독 일 통 일 백 서 (2000)

2001. 2

통 일 부

서 문

10년전 국가통일이 달성되었다. 독일은 이를 통해 보다 융성해지고 다양한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후로 많은 것이 변화되었고 많은 것을 이루었다. 특히 신연방주 주민들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부지역과 서부지역 사이의 경제적 사회적 동질화는 만들어내지 못하였다. 더욱이 높은 실업률은 신연방주에서 특히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까닭으로 일자리 창출과 생활수준의 균등화가 연방정부의 중요한 목표가 되고 있다.

얼마 전부터 동독의 부흥이 다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제조업의 성장과 함께 경쟁력 있는 산업기반이 신연방주에서 자리를 잡고 있다. 최초의 청신호는 노동시장에서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신연방주의 미래는 전체 독일의 지원과 연대기금에 의존할 것이다. 그래서 연방정부는 현재의 연대협약이 2004년까지 연기되는 후속조치를 취하였다.

통일의 완성은 물론 단지 정치만의 과제는 아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것을 넘어서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협력과 책임에 의존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보다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즉 함께 가야하고 통일된 독일에 사는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길에 대한 상호이해가 필요하다.

수상실 장관

롤프 슈바니츠

목 차

제1장 국가통일 10년-현재까지의 발전 ····· 1

1. 평화혁명-통일의 기반 ····· 2
2. 신속한 제도개선과 통합 ····· 4
3. 경제와 노동: 성공과 보완점 ····· 5
4. 가장 중요한 과제로서 내적 통일의 완성 ····· 8
5. 실업과의 전쟁 ····· 10
6. 경제 재건의 진전 ····· 11
7. 상호 이해의 촉진 ····· 12

제2장 정치 부문에서 상위 과제로서 독일 통일의 완성 ····· 14

1. 경제적. 사회적 성장의 진전 ····· 14
1.1. 신연방주에서의 현재 경제 발전 ····· 14
1.1.1. 수공업 경제의 급속한 성장 ····· 15
1.1.2. 투자와 창업 행위의 계속적인 증가 ····· 17
1.1.3. 중산층 중심의 경제 ····· 18
1.1.4. 생산성 진보의 완화 ····· 19
1.1.5. 노동 시장 상황 : 최초의 긍정적인 징후 ····· 20
1.1.6. 느려지고 있는 임금의 균등화 ····· 22
1.1.7. 전망은 밝다 ····· 23
1.2. 신연방주에서의 성장과 고용를 위한 경제 정책의 역점 ····· 24
1.2.1. 이노베이션에 대한 지원 ····· 26
1.2.2. 경제 지원 ····· 27
1.2.3. 인프라 구조의 확대 ····· 27
1.2.4. 일차적인 노동시장에서의 통합 ····· 28
1.3. 연방 예산에 있어서 동독 재건에의 중점 ····· 28

1.3.1. 혁신, 연구 및 개발에의 지원 ····· 28
1.3.2. 경제 지원 ····· 29
1.3.3. 인프라 구조의 구축 ····· 29
1.3.4.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 ····· 30
1.3.5. 신탁청 후임 기관과 비스무트 ····· 31
1.3.6. 연방 국가의 재정 균등화 ····· 31
1.4. 공동의 행위 : 신연방주를 위한 노동, 교육 및 경쟁력을 위한 연대 ····· 32
2. 성장과 현대화를 위한 필수 불가결한 경제 지원 ····· 34
2.1. 투자우호적인 지원조건 ····· 35
2.1.1. 지역적인 경제구조의 개선 ····· 37
2.1.2. 투자 보조금(Investitionszulage) ····· 38
2.1.3. 투자 지원법 ····· 38
2.1.4. 일반적인 경제원조 ····· 39
2.1.5. 신탁청 업무 처리 ····· 39
2.2 창업에 대한 지원과 신생기업의 강화 ····· 40
2.2.1. 출발자본 프로그램 ····· 41
2.2.2. 대학교와 연구 기관에서 출발한 창업 ····· 41
2.2.3. 문제 해결과 신생기업의 강화 ····· 42
2.3. 기회자본(모험자본)과 참여자본의 구축(확대) ····· 43
2.4. 판매지원과 수출지원 ····· 44
2.5. 수공업 강화와 지불 윤리의 개선 ····· 45
2.5.1. 지불윤리의 개선 ····· 46
3. 중점 과제: 이노베이션 강화, 산업망 확대 ····· 47
3.1 기업과 밀접한 연구 ····· 48
3.2. 지역적인 산업망과 기술이전의 확대 ····· 50
3.2.1. InnoRegio-지역을 위한 혁신적인 동인 ····· 50
3.2.2. 인터넷 플렛폼 ; www.kompetenznetze.de ····· 52
3.3. 대학의 지원 ····· 52
3.3.1. 대학특별 프로그램 Ⅲ (HSP Ⅲ) ····· 52

3.3.2. 대학건축에 대한 지원 ····· 54
3.3.3. 국제적인 대학협력 ····· 55
3.3.4. 신연방주에서의 대학연구 ····· 55
3.4. 연구구조와 혁신구조의 강화 ····· 56
3.4.1. 연구인프라 구조의 확장 ····· 56
3.4.2. 기술지향적인 경쟁센터 ····· 57
3.4.3. 유럽연합 구조기금의 투입 ····· 60
4. 인프라구조의 계속적인 확대 ····· 60
4.1. 교통인프라구조의 질적인 확대 ····· 60
4.1.1. 연방교통도로 계획의 재검토 ····· 61
4.1.2. 1999년에서 2002년 사이의 연방철도, 연방간선도로 및 연방수로를 위한 투자프로그램 ····· 62
4.1.3. [독일 통일 교통 프로젝트]의 신속한 실현 ····· 64
5. 매력적인 주거생활 - 살만한 가치가 있는 도시들 ····· 66
5.1. 구부채규정 (Altschuldenregelung) ····· 67
5.2. 주택건물의 현대화 ····· 69
5.3. 주택보조금 개정안 (Wohngeldnovelle) ····· 69
5.4. 사회적인 도시 (Soziale Stadt) ····· 70
5.5. “주택경제적인 구조변화 ” 위원회 ····· 73
6. 교육기회의 향상과 청소년실업의 퇴치 ····· 75
6.1. 노동을 위한 연대 (Bündnis für Arbeit)의 교육에 대한 합의 ····· 75
6.2 청소년실업 퇴치를 위한 긴급프로그램 ····· 76
6.3. 연방과 주의 직업훈련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 78
6.4. 범기업적 직업훈련장에 대한 지원 ····· 80
6.5. 학교의 네트워크화 ····· 81
7.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통합에의 지원 ····· 82
7.1. 노동시장 정책의 조치를 높은 수준으로 지속시키다 ····· 82
7.2. 최초의 노동시장으로의 통합 ····· 86
8. 사회보장과 삶의 질 ····· 87

8.1. 연금 보장 ····· 87
8.1.1. 노후보장의 핵심기둥으로서의 법적인 연금보장 ····· 87
8.1.2. 2000년도 연금개혁 조치 ····· 88
8.1.3. 자금이 보완된 노후보장의 지원 ····· 90
8.2. 광범위한 보건제도 ····· 91
8.2.1. 간호보장(Pflegeversicherung) ····· 93
8.2.2. 의료 재활과 직업적인 재활 ····· 94
8.2.3. 안티 D 원조법(Das Anti D-Hilfegesetz) ····· 94
8.3.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변화 속의 여성 ····· 95
8.3.1. 프로그램 "여성과 직업" ····· 96
8.3.2. 여성에 대한 폭력 퇴치를 위한 행동프로그램 ····· 97
8.4. 청소년과 가족 ····· 98
8.4.1. 가족정책(Familienpolitik) ····· 98
8.4.2. 가족급부(Familienleistung)의 균등화 ····· 98
8.4.3. 양육휴가(미래에는 "부모들의 시간")와 양육비의 개선 ····· 98
8.4.4. 청소년 정책(Jugendpolitik) ····· 99
8.4.5. 청소년들의 태도 : 증가되는 신뢰도 ····· 101
9. 미래의 에너지 확보와 환경보호 ····· 103
9.1. 에너지정책 ····· 103
9.1.1. 갈탄에 의한 발전의 확보 ····· 104
9.2. 환경 보호 ····· 106
9.2.1. 구부채의 정리(Altlastensanierung) ····· 106
9.2.2. 방사성 구부채의 정리(Sanierung radiologischer Altlasten) ····· 107
9.2.3. 원자력 발전시설의 해체(Stilllegung von Atomkraftanlagen) ··· 109
9.2.4. 갈탄의 정화(Braunkohlsanierung) ····· 110
9.3. 자연보호(Naturschutz) ····· 113
9.3.1. 신연방주 자연보호지역의 사유화의 중단 ····· 114
9.3.2. 생물 서식공간의 연결체계(Biotopverbrndsystem)의 마련 ···· 115
10. 농촌지역의 지원 ····· 116

10.1. 농업에 대한 지원 ····· 116
10.2. 농경지확보 프로그램 (Flächenerwerbsprogramm) ····· 117
11. 예술, 문화, 스포츠 ····· 118
11.1. 신연방주와 베를린의 문화지원 ····· 118
11.1.1. 신설프로그램 “신연방주에서의 문화” ····· 119
11.1.2. 투자지원법(Investitionsförderungsgesetz) ····· 119
11.1.3. 그 외의 투자원조 ····· 120
11.1.4. 문화재 보호(Denkmalschutz) ····· 120
11.1.5. 수도 베를린 ····· 121
11.1.6. 프로이센 문화재 재단 ····· 121
11.2. ‘등대지원’- 프로그램(Leuchtturm-Programm) ····· 122
11.3. 스포츠, 황금빛 동부계획(Goldener Plan Ost) ····· 125
11.3.1. 특별지원 프로그램 “황금빛 동부계획(Goldener Plan Ost)” ···· 125
11.3.2. 베를린의 올림픽 경기장의 현대화와 라이프찌히의 중앙경기장의 개조 ····· 126
11.3.3. 스포츠학 관련 연구소 ····· 126

제3장 다른 각도에서의 주제와 부록 ····· 128
1. 신연방주에 대한 고용, 교육, 경쟁력을 위한 연대의 결의 ····· 128
결의 I : 동부 독일 생산품과 용역의 지역외 매출의 지원 (AG Aufbau Ost)
결의 II : 신연방주에서의 혁신적인 잠재력의 향상을 위한 연구와 개발의 기여(AG Aufbau Ost)
결의 III : 지원이 필요한 실업자의 사회에의 편입과 1차 노동시장에서의 자격취득노력 (AG Aufbau Ost)
결의 IV : 신연방주의 교육기회의 안정과 확대 (AG Aus- und Weiterbildung)
2. 연방주의위원회의 결정들과 그 실천 ····· 145

제1장 국가통일 10년 - 현재까지의 발전

10년 전 1990년 10월 3일 독일의 국가적 통일이 성취되었다. 그 사건의 바로 전 까지만 해도 그 어느 누구도 이러한 발전이 가능하리라고 예상하지 못하였다. 통일은 동시에 독일인들의 공생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었다. 독일통일 10년을 계기로 이 역사적 사건을 회고해 보고 이 통일의 길에서 가장 중요한 발전과 단계를 되돌아보고 통일 이후의 수년간을 다시 한번 기억해보고자 하는 것이 이 단원의 의도이다.

통일은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분단의 오랜 세월 동안 점점 더 비현실적으로만 보였던 소망의 실현이었다. 당시 동독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그것은 오랫동안 거부되었던 정치적인 자유, 여행의 자유, 서독에 있는 친구와 친지들을 방해받지 않고 접촉할 수 있는 자유 및 물질적으로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자유에 대한 희망이었다. 40년 이상의 강제적인 국가의 분단 - 그중 28년 이상이 장벽과 철조망으로 분단되었다 -이 마침내 종식되었다. 통일로 인하여 베를린은 반으로 나누어진 도시가 합치게 되었으며 독일의 정치적인 중심으로서의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다.

통일은 동독인에게나 서독인에게 모두 기쁨과 동의로서 받아들여졌다. 오늘날까지도 통일과 관련하여 어떠한 과장된 민족감정도 없었으며 유럽의 분단으로 독일의 분단 또한 행복한 특히 평화로운 결말을 맞게된 것에 대한 만족감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통일을 받아들였다. 다시 한 번 회고해봐도 통일은 반론의 여지없이 우리 역사에 있어서 가장 긍정적인 사건중의 하나로 남아 있다.

국가 통일이 수립되던 그 몇 주와 몇 달간은 동서독의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당연히 행복하고 희망에 찬 시간이었다. 모든 독일인들은 통일과정에 있어서의 동독인들의 기여도에 자랑스러움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평화스러운 혁명에 있어서의 동독인들의 시민용기가 그 후의 광범위한 변화에 결정적인 동인을 주었다. 이에 동독과 서독의 독일국민들은 통일이 우리들의 파트너 국가들의 연대

적인 지원으로서만 또한 거대한 유럽의 평화와 통일 과정의 일부로서만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 이후에 두 개의 서로 다른 사회가 법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함께 성장하는 데는 밝은 면 뿐 아니라 특히 어두운 면도 보여 주었다: 자주 희망에 찬 분위기는 실망감으로 바뀌었다. 특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붕괴의 경제적인 요구사항의 범위와 결과에 대해서 과소평가 했고, 그것으로 함께 성장하는 과정에 많은 부담을 주었다. 왜냐하면 변화로 인한 부담 중 더 무거운 부분을 동독의 국민이 짊어져야 했기 때문이었다. 이들의 생활세계와 노동세계, 법적, 사회적, 문화적 삶의 조건들은 급격하게 변화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의심할 여지없이 가장 결정적인 변화는 일자리의 상실이었는데, 이것은 사회적인 통합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였다.

동시에 동독과 서독간의 생활 상황이 빨리 좁혀지리라는 처음 몇 달간에 부풀었던 희망도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동독은 이를 위해 근본적으로 시간이 더욱 많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돌아보면 지난 몇 년 간 많은 것이 이루어졌다. 서독주민들과 특히 동독주민들의 유래 없는 확고한 연대적인 작업과 엄청난 노력이 이러한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독일 통일 10년을 기화로 우리 모두는 이러한 성과와 개별적인 단체들 및 사회 전체의 엄청난 노력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1. 평화혁명 - 통일의 기반

동독의 용기 있는 시민의 반발과 정치적인 상황의 격변에 대한 이들의 결정적인 개입이 없었다면 통일은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하여 이들은 외교적인 성과와 이와 연관하여 유럽에 있어서 정치적인 지도를 급격하고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결정적인 전제조건을 마련하였다. 1989년 9월 4일 라이프찌히의 니콜라이 교회에서의 평화의 기도가 끝난 후 약 1,200명의 사람들이 최초

의 월요시위를 위해 모였다. 단지 몇 주 후 10월 9일 월요일에는 이미 70,000명의 사람들이 라이프찌히에서 정치적인 자유를 위해 시위하였다. 1989년 11월 4일에는 5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베를린에 모였다. 처음에 지역적으로 시작 되었던 시위는 이렇게 하여 전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강력한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시민들의 시위는 사회주의통일당(SED) 정권의 근본 기조를 흔들었고 결국은 정권의 몰락으로 이어졌다. 그러므로 호네커가 물러난 후에도 그의 후임이 약한 정도의 개혁을 통하여 사회주의통일당(SED) 정권을 유지시키려 했던 시도도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계속되는 시민의 저항은 안으로도 밖으로도 1989년 11월 9일 저녁 장벽이 무너짐으로써 개방을 강요했다. “이제 함께 속하는 것이 함께 자라게 된다” 라고 말함으로써 빌리 브란트는 독일에서 그리고 유럽에서 역사가 어디로 움직일 것인지를 천명하였다.

아직 동독체제하에서 민주주의적인 해방으로의 결정적인 단계가 이루어졌다. 원탁회의에 모든 정치적인 세력들이 모였다. 1990년 3월 18일에는 최초의 민주적인 인민의회선거가 실시되었다. 독일통일 과정에서 그 다음 가장 중요한 단계는 1990년 7월 1일의 화폐통합, 경제통합 및 사회통합이었는데 이로써 서독 마르크는 동독에서도 공식적인 화폐로 인정되었다. 1990년 8월 22일 밤부터 8월 23일 사이에 동독 인민의회(Volkskammer)는 1990년 10월 3일자로 서독으로의 편입을 결의했고, 이날은 독일통일의 날로 되었다.

국가적 통일을 위한 이정표
89년 가을 : 동독에서 시민들의 평화적인 시위
89년 10월 9일 : 라이프찌히의 대규모 시위
89년 11월 9일 : 베를린의 장벽이 무너짐
90년 3월 18일 : 첫 번째 동독에서의 자유로운 선거
90년 7월 1일 : 통화, 경제, 사회통합, 마르크의 도입
90년 8월 23일 : 1990년 10월 3일에 서독으로의 편입에 대한 동독의회의 결의
90년 8월 31일 : 통일조약의 서명
90년 9월 12일 : 모스크바에서 2+4조약 서명, 전체독일의 완전한 주권의 기초
90년 10월 3일 : 독일 통일의 날

2. 신속한 제도개선과 통합

1990년 7월 22일의 동독 인민의회(Volkskammer)의 결정으로 구동독의 중앙집권적인 질서가 청산되고 1952년 와해되었던 동독지역의 5개의 주가 새로이 재건되었다. 모든 주에 걸쳐서 광범위한 국가차원의 그리고 행정적 차원의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졌다. 여기에는 주 행정기관, 독립적 사법기관, 노동 행정기관과 사회 행정기관 및 연방 행정기관의 건설 및 민주주의 헌법국가의 기능에 필요한 기관들을 건설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자치에의 권한을 얻었고 지역의 크기, 행정구조와 정치적인 대표의 형태에 따라 광범위하게 새로 구조 조정되었다. 경찰의 새로운 구조조정은 급격히 이루어졌다. 동독 인민군대(Nationale Volksarmee)에 속한 군인들의 연방군으로의 통합 또한 독일의 내적인 통일에 기여했다.

1990년 7월 1일의 화폐 및 경제통합으로 사회통합이 가시화 되었다. 이로써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진입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모든 동독인들이 서독의 사회 보장 시스템으로 들어옴으로써 생활수준의 동일화로의 중요한 첫걸음이 마련되었다.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엄청난 경제적 사회적 상황의 변혁과 변화에 더 잘 대처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동독지역에서는 거의 모든 것이 변화했다: 노동시장, 학교와 교육, 지금까지의 사회적인 관계, 국영기관과 비국영기관과의 관계 등등. 신연방주의 국민들에게는 하나의 새로운 삶의 현실이 생겨났다. 변화된 소비세계에서의 체험과 경험, 독일의 다른 한 부분에서 온 "낯선 사람들"과의 만남, 그리고 이와 연관된 느낌과 감정은 다시 재정비되려 하고 또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 짧게 말해서: 신연방주의 시민들은 완전히 새로운 상황에 적응해야만 했다.

통일독일에서의 사건의 발생

90년 12월 2일 : 첫 번째 전독일의 연방의회선거
91년 1월 1일 : 독일통일 기금과 동독재건 공동체의 설치
91년 6월 20일 : 베를린을 미래의 의회소재지로 하는 연방의회의 결의
1991년 말 : 동독의 산업생산의 절반이상이 감소함.
1992년 중간 : 노동시장의 저점: 3백 2십만의 실업자와 고용정책조치하의 근로자
94년 12월 31일 : 15,000의 민영화 후의 신탁청의 활동종료 : 나머지 과제는 그 후신인 회사에 넘김.
95년 1월 1일 : 연대협정 I. 2004년까지 신연방주에 대한 재정지원, 통일연대부가금(Solidaritätszuschlag)의 도입
99년 여름 : 연방의회와 연방정부의 베를린으로 이사
2000년 5월 : 2004년까지의 연대협정 II에 대한 연방수상의 강조

3. 경제와 노동 : 성공과 보완점

국가통일 후 10년 동안 동독은 현대화되고 미래지향적인 경제로의 큰 발걸음을 내디뎠다. 일인당 소득과 동독경제의 급부능력은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처분 가능한 순소득은 오늘날 서독 수준의 거의 90%에 달하고 있다. 고급의 오래 사용 가능한 소비재와 함께 가사에 있어 서독에 비해 그 차이가 사실상 사라졌다. 아주 주목할만한 성과는 50만개가 넘는 대부분 소규모의 중산층의 기업이 설립되었다는 것과 그곳에서 300만개의 경쟁력 있는 일자리가 생긴 것이다. 특

히 환영할만한 일은 최근에 수공업이 강력하게 성장하였다는 것이다. 이것은 다른 성장하는 서비스산업과 함께 현대화되고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경제를 위한 기초가 된다. 이러한 발전을 기화로 개인적인 삶의 상황은 현저하게 향상될 수 있었다. 특히 거주의 질은 명백히 향상되었고 유해물질로 인한 환경오염은 줄어들었다. 노인들을 돌보는 데 있어서도 예를 들면 지불되는 연금의 수준에 있어서 동독과 서독의 차이가 거의 없다.

그러나 동시에 동독 재건은 아직 완료되지 못했다. 이것은 특히 서독과 비교해서 실업률이 두 배 이상이라는 사실에서도 드러난다. 지금까지도 다양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신연방주는 이제 현대화되고 완전히 발전된 국제적으로도 경쟁력 있는 산업 및 서비스 사회의 시작단계에 서있다. 이에 대한 원인은 급부에의 준비나 창의력 부족에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과제의 범위와 경제적인 구조조정과정에 필요한 시간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서 시장경제로의 이행단계의 초기에 경제활동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 또한 사정을 더 어렵게 하였다. 이러한 발전의 속도와 범위는 오늘날까지도 유래가 없는 정도다. 최단기간에 동독에서의 산업생산은 거의 반으로 줄어들었고 1991년 초까지 이러한 감소는 거의 70%에 육박했다. 통일 당시 9백만이 넘던 생산활동자 중에서 일자리의 수는 6백20만으로 줄었다. 120만 사람들이 1992년 공식적으로 실업자로 등록되었고 또 다른 거의 200만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노동시장 정책적인 조치하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를 일으킨 원인은 무엇보다도 마르크화를 경제적인 급부능력에 비하여 너무 과대 평가된 비율로 도입한 데 있다. 통일의 목적을 위해 화폐와 경제통합이 일찌감치 도입되는 것이 정치적으로 필요한 것이었다 할지라도 이것은 동독경제의 적응능력에 너무 부담되는 것이었다. 결국은 그 결함이 엄청난 규모로 가시화 되었다. 자본재(Kapitalstock)는 광범위하게 너무 낡은 것이었다. 생산성은 서독 수준의 30%도 넘지 못하였다. 생산품의 종류도 경쟁력이 없었다. 동유럽에서도 전통적인 판매시장이 또한 급격히 무너졌다. 그 외에도

주로 서독기업이 인수한 유통업계에서 상품진열대에서 동독생산품의 거의 전부가 사라졌다. 얼마 되지 않아 동독 경제의 엄청난 부분이 지불불능의 상태에 빠졌다. 이것은 왜 경제적인 침입이 아주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는 모든 분야를 거의 점령하였는가 하는 것을 잘 설명해 준다.

정치는 경제와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이러한 급격한 경제적인 격변을 유화 시켜 보려 하였고, 이러한 격변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결과를 일자리지원을 늘림으로써 사회적으로 무마시켜보려 애썼다. 그 외에도 전체여건은 강력한 인프라의 구축으로 많이 개선되었다. 그러나 이것도 점점 커지는 경제적인 문제를 제어하기에는 충분치 못했다.

왜냐하면 전환과정에서 자연히 생겨나는 문제 이외에도 일련의 다른 정치적인 결정이 동독의 경제구축에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했다. 처음부터 신탁관리청의 일방적인 사유화정책과 미해결 재산문제에 있어서의 기본결정 같은 것이 이에 속한다.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동독 경제의 구조적인 적응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90년대 초반의 지원 컨셉트에도 있었다.

지원정책은 통일이후 몇 년간 너무 건설분야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물론 이를 통해서 90년대 중반까지 건설경기에 힘입어 경제 전반적으로 높은 성장률이 달성될 수 있었다. 이 지원전략은 건설정책에 있어서 엄청난 능력을 구축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는 필수 불가결한 인프라구조와 주택에 대한 투자 때문에 처음에는 필요한 것이기는 했다. 그러나 이것은 지속적인 부정적 결과를 가져왔다. 잘못된 투자, 비어있는 공간(Leerstände), 공급초과(Überkapazitäten)가 오늘날 시장을 누르고 있다. 많은 동독 지방자치단체들이 그 결과를 부담해야만 한다. 이러한 차별화 되지 못한 지원전략이 비정상적으로 거대한 건설경제를 형성하는 결과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공적으로는 현저한 조세상 손실을 가져왔다. 너무 늦게 이러한 잘못된 발전이 인식되었고 너무 늦게 지원정책의 중점이 산업과 서비스산업 분야에 놓이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해진 건축경제의 적응과정은 아직도 완료되지 않았고 그 이전과 마찬가지로 신연방주의 전체

경제상의 성장과 노동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다.

90년대 초부터 시작된 급격한 구조변화는 경제적 사회적 상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그 이후로 많은 것이 달성되었다. 그러나 많은 기대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로 있어야했다. 수 백만 명의 사람들이 실직의 경험을 해야만 했고 지금까지도 하고 있다. 삶의 계획에 있어서 가장 아픈 실직의 경험은 주로 여자들이 해야만 했다. 이들은 실업에 의해 가장 타격을 많이 받았었고 또 받고 있다. 처음에는 실업률이 급격히 올라갔다. 1990년 이후로 130만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가 주로 수공업이나 서비스 경제분야에 마련될 수 있었으나, 이는 구조적인 변화로 생겨난 일자리 손실을 모두 메워 주지는 못하고 있다.

4. 가장 중요한 과제로서 내적 통일의 완성

1989년 시위군중들의 요구 사항이었던 민주주의, 법적 보장, 여행의 자유는 오늘날 통일 독일에서 보장되고 있다. 정치적인 과거 또한 처리가 되고 있다. 왜냐하면 내적 통일은 경제적 사회적 삶의 상황을 균등화하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역사적 정치적 동일화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사회주의통일당(SED) 통치의 불법행위와 그 희생자의 고통에 대해 학계, 사법부 및 여론은 열띤 논의를 하고 있다. 독일 의회 내의 두 개의 특별 위원회가 여기에 자극을 주었고 사회전체에 의해서 이루어진 반전체주의적인 합의를 공고히 하는 것은 모든 안정된 민주주의를 위한 필수 불가결한 기초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스타지 문서관련 연방위임인 (Der Bundesbeauftragte für Stasi-Unterlagen)은 구동독 억압체제와의 역사적인 결단에 핵심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사회주의통일당(SED)의 독재체제의 청산을 위한 재단 설립을 통하여 연방은 이 분야에서 특히 다양한 사회적인 자발단체를 지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실망과 심지어 절망이 확산되었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정치 자체에 의해서 야기된 사람들의 기대는

동독의 경제적인 문제가 끈질기게 계속됨으로써 그 기대가 무너져 간 것보다는 더 낙관적이었다. 많은 사람들은 적응의 어려움과 여러 장애들에 대해서는 예상했지만 기약 없이 일자리를 상실하는 것은 예상하지 못했다. 특히 많은 실업자들은 성공적으로 새로운 사회에 통합될 수 있는 아무런 기회도 갖지 못했다. 이로써 이들은 통합된 공동의 국가에서 이류 인간으로 전락하는 느낌을 받게 되었다. 그러므로 정치적인 제도나 사회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감소했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동독 공산당의 불법청산법

2000년 1월 1일 구 동독에서 정치적인 박해의 희생자에 대한 복권규정의 개선을 위한 법률이 발효된다. 연방과 주가 오는 몇 년간 약 4억 마르크를 정치적인 박해를 받은 희생자들을 위해서 마련할 것이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은 정치적 구금자와 사망자와 장벽희생자들의 가까운 친척들이다. 연방하원과 상원은 법률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주 정부와 옛 정치적 구금자를 위한 기금은 새로운 규정을 빨리 적용하여 옛 정치적 구금자들과 사망자들의 가까운 친척들에게 정의의 틈새를 메워 주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생활상황을 평준화하려는 데 있어서의 지금까지의 과정에 대한 그러한 경험과 전망에 비추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감이 찾아 온 것은 사실이나 통일에 대한 기본적인 동의와 미래에 대한 확신은 지난 몇 년 간 다시 증가하였다. 지난해에는 전 동독인의 약 50%가 통일에서 잇점이 있다고 보았고 약 40%는 잘 모르겠다는 입장이었고 단지 15%만이 통일을 개인적인 손실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긍정적인 경향에도 불구하고 한가지 사실, 즉 높은 실업률이 이 나라에 남긴 깊은 상처는 간과되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오늘날 동독에서의 실업자 중에서 13% 만이 통일에서 이득을 인식할 수 있고 나머지 47%는 통일을 명백한 손해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높은 실업률의 퇴치는 연방정부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다.

5. 실업과의 전쟁

1999년에는 동독에서 연평균 약 134만 명의 근로가능자가 실업자로 등록되었다. 이것은 그 이전 해 보다 31,200명 적은 것이다. 실업률은 1998년의 18.2%에 견주어서 1999년에는 17.6%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서독에 비하여 여전히 두 배 가량 높은 숫자이다. 그래서 연방정부는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분명한 입장표명으로서 신연방주에서의 구조변화의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전문화조치가 계속되고, 장기 실업자와 문제 그룹을 위한 통합가능성이 향상되고 있다. 신연방주에서의 많은 구조 취약 지역에서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경제정책에 있어서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이 필수 불가결한 도구이다.

구 연방정부의 중대한 과실은 노동시장 정책적인 수단을 악용한 것이다. 1998년 연방의회선거가 시작되기 전 구 연방정부는 특히 동독에서 공식적으로 등록된 실업률을 노동시장 정책적인 도구를 집중적으로 투입함으로써 감소시키려 애썼다. 일자리 마련을 위한 조치(Arbeitsbeschaffungsmaßnahmen, ABM)에의 참가인원이 1998년 1월에서 11월까지 80,100명에서 231,000명으로 증가되었으며, 부분적으로는 단기간 조치로 엄청난 효과를 보았다. 이러한 정치적인 동기로 인해 성장한 노동시장 정책적인 조치가 그 이후의 몇 달 동안 급격한 실업을 동반하는 엄청난 후퇴의 물결로 끝나지 않기 위해 1999년 노동시장 정책을 위한 자금은 높은 수준으로 고정되어야 했다. 이로 인하여서 뿐만 아니라 또한 1999년 8월 1일 사회법전 3편의 개정법이 발효됨으로서 목적에 합당한 무엇보다 지속적이고 신뢰할만한 노동정책을 위한 기초가 마련되었다.

노동시장 정책은 그러나 더 많은 일자리를 위한 유일한 원동력으로서만 이해되어서는 안된다. 주요 목적은 일차적인 노동시장에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이다. 더 많은 일자리는 더 나은 전제조건이 마련됨을 통하여 창출될 수 있다. 이것은 주로 경제정책과 재정정책을 통해서 마련된다. 임금협상 파트너 또한 특별한 책임을 지닌다. 그러므로 정치, 경제, 노동조합, 사회 자발단체의 모든 책임자들은 고용문제 해소에 함께 기여하도록 촉구된다. ‘직업, 직업훈련 그리고 경쟁력을 위한 연합

(Bündnis für Arbeit, Ausbildung und Wettbewerbsfähigkeit)'은 이러한 공통의 책임에로의 중요한 발걸음이다. 예를 들어 이러한 연합에서 기업과 함께 합의된 직업훈련에 관한 콘센스는 직업훈련 시장에서의 사정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했다. 공동의 노력의 목표는 직업 훈련을 받을 능력과 의지가 있는 모든 청소년에게 직업 훈련 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6. 경제 재건의 진전

실업 퇴치에 있어 지속적인 성공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신연방주에서의 경제적인 발전을 강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미래에는 특히 산업 기반을 확장, 중산층에 대한 지원, 동독 경제의 혁신력과 경쟁력을 개선시키는 데 중점이 주어진다. 많은 경제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신연방주는 지금까지 자발적인 성장의 단계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신연방주는 향후에도 지원에 의존하게 된다. 따라서 지금까지보다 더 강력히 스스로의 잠재능력을 발전시키는 것에 동독 재건의 중점이 주어져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연방정부는 경제 정책적인 전체 컨셉트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것은 특히 미래 프로그램 2000이나 조세 개혁 2000을 통해 조성되는 것과 같이 경제적인 기본조건을 성장 지향적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특히 연방정부가 이번 회기 내에 새로운 재정균등화를 위하여 2004년까지 효력이 있는 연대협정의 승계규정의 범주 내에서, 견실한 국가 재정은 조세부담의 단계적인 인하와 동독재건의 신뢰할 수 있는 재정적인 지원을 위한 재정 정책적인 행동여지를 만들어 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의 혁신능력에 대한 지원, 지역적인 발전, 인프라구조, 중산층 및 창업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동독 경제를 위한 새로운 미래의 영역을 여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최근에 확인할 수 있는 신연방주 경제 발전의 긍정적인 시작이 특히 산업과 산업에 인접한 서비스업에

서 더욱 더 강화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신연방주에서의 경제는 지난 수년간의 성장부진을 극복하기 위한 좋은 궤도 위에 있다. 수공업은 점차로 신연방주의 경제적인 발전의 동인이 되고 있다. 그 동안 그것은 서독에서 보다 현격히 빨리 성장하고 있다. 여기서 스스로 자립하는 점차 성장하는 사업과 함께 하는 경제 발전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연방정부는 신연방주에서 미래에는 구연방주의 성장에 못지 않은 전체 경제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이에 점차 감소해 가는 건설경제의 적응 위기 또한 한몫을 할 것이다. 그 외에도 동독지역의 몇몇 지역에서는 전도 유망한 경제 발전 중심지가 생겨나고 있는데 이것은 새로운 회사와 공급업체, 연구기관과 생산지에 인접한 서비스업체를 연결해 놓은 네트워크이다. 이러한 발전은 새로운 전망을 열어 주고 있다. 그러므로 조만간 동독의 산업이 엉망이 될 것이라는 염려는 전혀 현실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7. 상호 이해의 촉진

그러나 독일이 함께 성장한다는 것은 물질적인 것을 넘어서는 것이다. 이에는 무엇보다도 서로에게 다가가려는 마음가짐과 서로 다른 삶의 길과 삶의 경력에 대한 상호 이해를 발전시키는 것 또한 포함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서로의 소속감은 더욱 발전할 것이다. 여기에는 그 이전과 마찬가지로 전체 사회의 책임감이 요구된다. 동독의 재건에서와 같은 생존의 변혁상황에서는 동독의 주민들은 더욱더 전 독일의 연대감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개개인으로 하여금 스스로 새로운 연결을 통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찾도록 길과 가능성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통합과 소속감을 촉진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한편 국가와 사회는 세계로의 개방성과 관용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보여주도록 요구되고 있다. 이것은 특히 우리 나라에 사는 외국 국민들과의 공생에 특히 해당되는 것이다.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극우주의와 외국인 적대적인 난동행위가 순전히 동독의 문제만이 아니라 독일 전체의 문제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동독과 서독에서 자꾸만 싹이 트는 외국인 적대 감정은 이제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대항하여 모든 민주주의적인 세력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 이때 폭력사용자에 대하여 강력한 법적 조치를 통하여 극우적인 범죄행위를 단호히 추방시키는 것 이외에도 절망감에서 과격주의로 빠지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에도 중점을 두어야 한다. 과격한 인간멸시의 풍조에 한 점의 자리도 내 주지 않기 위해서는 특히 시민의 용기와 민간의 노력(Zivilcourage)이 요구된다. 올해에 결성된 " 극우주의와 폭력에 대항하는 민주주의와 관용을 위한 연합 "으로 연방정부는 행동연합 단체와 시민자발단체와 함께 이를 촉진하고자 한다.

제2장 정치 부문에서 상위 과제로서 독일 통일의 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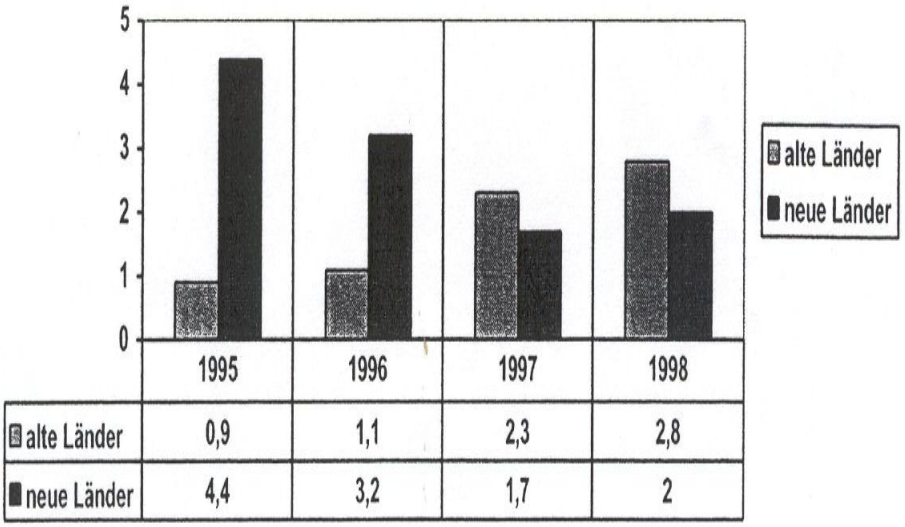
1. 경제적 · 사회적 성장의 진전

1.1. 신연방주에서의 현재 경제 발전

경제적인 발전과 노동시장에서의 최초의 청신호 - 전체적으로 보아서 신연방주에서의 최근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이렇게 묘사할 수 있다. 경제적인 발전의 원동력은 광범위한 지역적인 구조 변화인데 특히 동독 지역에서의 수공업이 점차 중요성을 얻고 있다. 동독에서의 수공업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서독에서 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점차로 경쟁력 있는 산업이 형성되게 되는데 이는 동시에 생산과 밀접한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 이로서 이 산업은 점점 더 강하게 신연방주에서의 전체 경제적인 성장의 담당자로 발전되고 있다.

이러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년 간 전체 경제의 성장률이 비교적 낮은 것은 무엇보다 그 원인이 초기 경제의 가장 중요한 성장의 담당자이면서 고용 담당자였던 건설 경제가 부정적인 발전을 보인데 있었다. 1998년 신연방주에서의 전체 경제 성장은 2.0%에 달했고 이로써 다시금 서독 경제 발전률인 2.8%에 조금 못 미치게 되었다. 잠정적인 평가에 따르면 신연방주에서의 국내 총생산의 성장비율은 더 이상 구연방주 보다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이러한 발전 경향은 금년과 다가오는 해에도 역시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베를린의 독일 경제 연구소는 동독 경제와 서독 경제의 성장률이 계속해서 비슷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발전상에 직면해서 경제 회복 과정의 중단이나 심지어 동독 재건의 정지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신연방주와 구 연방주의 1995년에서 1998년 사이의 국내총생산의 성장률》



	1995	1996	1997	1998
alte Länder	0,9	1,1	2,3	2,8
neue Länder	4,4	3,2	1,7	2

출처 : 연방통계청, 총생산의 계산은 1991년 가격기준.

1.1.1. 수공업 경제의 급속한 성장

몇 년 전부터 동독에서의 수공업은 급속한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1999년에도 플러스 8.4%로 새로이 현저한 생산성장을 달성했다. 2000년 3월에는 비교할 수 있는 전 년도의 기준치를 17.7%나 넘어서는 성장을 하였다. 특히 급격한 성장을 한 분야로는 사무기기 와 정보처리 기계의 생산, 전기기술, 정밀기계, 광학 및 자전거 조립 등의 분야이다. 1998년 중반부터 이러한 발전은 처음으로 일자리가 가볍게 늘어나는 현상을 동반했다. 이러한 긍정적 발전은 계속된다.

이에 따라서 수공업이 전체 경제적으로 가치 창출에 차지하는 정도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1994년부터 1998년까지 그 비율은 14.2%에서 17.6%로 증가하였다. 지난해와 올해에는 이 비율이 산업에 있어서의 높은 성장률 때문에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수공업이 가치 창출에 차지하는 비율이 비록 서독 수준인 26.4%에 현저하게 못 미치지만 이 차이는 향후 계속해서 감소될 것이다.

《신연방주에서의 수공업 생산의 발전》

(지수 1995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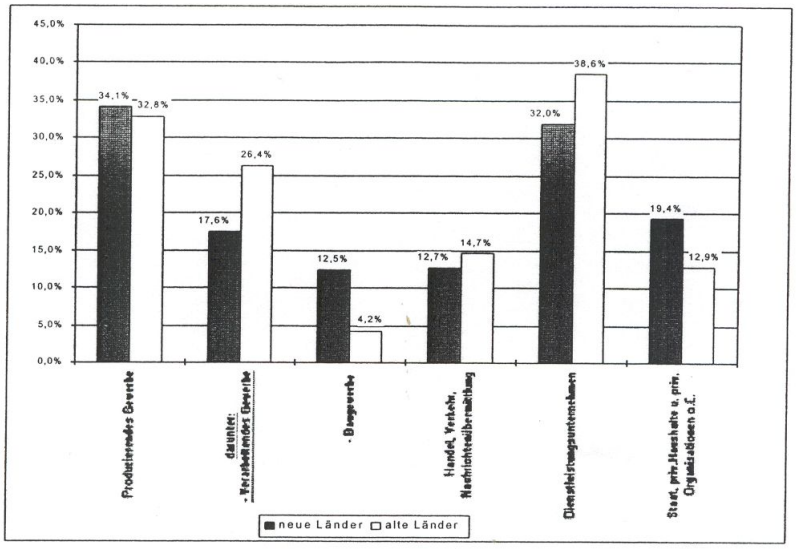
생산 분야	1996	1997	1998	1999
수공업 분야	105.9	115.6	127.6	135.3
- 사무기계	116.3	140.3	158.0	183.0
- 자동차제조	94.3	100.7	129.2	137.9
- 화학공업	98.2	99.9	114.8	126.9
- 식품	112.8	123.6	126.0	128.7
- 가구	104.6	116.0	128.1	128.2
건 설	96.6	92.2	85.3	81.7

출처 : 연방통계청

이러한 발전에는 해외시장 매출의 순조로운 발전이 한 몫을 했다. 1999년에 해외시장 매출은 광업과 수공업에 있어서 10.3%로 성장하였다. 이로써 이 경제 분야에 있어서 동독의 수출은 3년 이후로 계속해서 이미 서독의 비교할 수 있는 수출량 보다 훨씬 급격히 성장했다. 1996년부터 1999년까지 동독 산업의 수출사업은 약 90%로 전체 3천 백만 마르크로 거의 두 배 가량으로 성장했다. 이것은 증가하는 수출 비율에서도 반영되고 있다. 기업의 전체 매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같은 기간동안에 12.2 %에서 18.7%로 증가하였다. (2000년 6월에는 이미 21.2%이었다.) 그러나 또 한편 여기서 구 연방주(수출비율은 35% 이상이다)와 비교해서 얼마나 그 차이가 여전히 큰가 하는 것을 보여준다. 베를린을 포함하여 동독지역의 수출이 전체 독일 수출의 단지 5.4%를 차지하는 것을 보면 그 차이는 더욱 명백히 드러난다.

건축 분야에 있어서는 건축업무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는 데에 적응하는 경향이 계속되었다. 1999년에는 건축 주요 분야에서 생산이 마이너스 0.6%로 감소했다. 그러나 신연방주에서의 건축업이 가치창출에 차지하는 비율은 아직도 구 연방주보다 세 배나 높다.

《여러 경제분야의 총가치창조의 비율 19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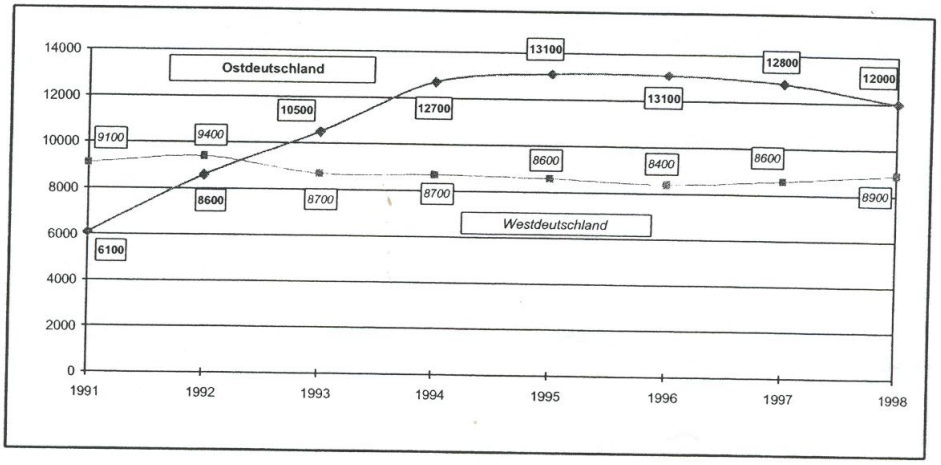


출처 : 연방통계청

1.1.2. 투자와 창업 행위의 계속적인 증가

지난 몇 년간 약간 감퇴하는 경향을 보이긴 했으나 투자 행위는 높은 수준으로 계속되고 있다. 1998년 신연방주에서의 국내 총생산의 42%가 시설 투자에 사용되었다. (구연방주에서는 18%이다) 독일에서의 모든 시설투자의 거의 24%가 신연방주에 투입되었다. 이렇게 하여 동독은 독일의 투자 원동력이 되었다. 1999년에도 Ifo 연구소의 산정에 의하면 투자 행위가 전년도와 같이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르면 감소는 건설 투자에만 제한되었을 뿐 중요한 시설 분야에서는 같은 수준으로 투자가 계속되었다. 주민수 당 총 시설 투자의 비율은 1998년 서독 수준의 약 135%이었다.

《모든 경제영역에서의 주민 일인당 투자 (동서독 비교), 1991-1998》



출처 : 연방통계청, ifo 투자계산 (1999년 9월 현재)

기업의 창설 또한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중산층 연구소의 산정에 의하면 1999년 약 92,000개의 기업이 새로 건립되었는데 이는 전 년보다 약간 적은 수치다. 기업 파산의 숫자도 역시 약 85,000개로 약간 감소했는데 이로써 전체적으로 약 7,000개의 기업이 더 생겨났다고 말할 수 있었다. 비교적 파산 숫자가 많은 것은 한편으로는 과거에 기업 창업을 많이 한 결과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특히 건설업과 수리업에서의 많은 중소기업들의 어려운 상황을 반영해 주고 있다. 최근 전체 기업청산의 거의 40%가 이 경제 분야에 해당된다.

1.1.3. 중산층 중심의 경제

국가 통일 10년 후 동독에서는 약 550,000 개의 기업과 약 3백 20만 명의 노동자(이것은 동독 직업인의 반 이상의 수치다)가 증가하여 중산층 중심의 경제를 발전시켰다. 물론 대기업은 서독 경제보다 훨씬 적은 규모이다. 금융산업의 통계에 따르면 평균적인 동독 기업의 판매량은 약 백만 마르크 수준이다. 이로써 특히 기술과 연구 집중적인 분야에서의 성장과 생산성과 경쟁력의 한계가 주어진 셈이다. 더욱 고무적인 일은 신연방주에서 혁신적인 기업의 숫자가 점점

늘고 있다는 사실이다. 2000년 7월에는 이미 21개의 동독 기업이 새로운 시장의 주식 부문에 기록되었다. 그 중에서 대부분은 베를린 출신의 기업이다. 금융계의 평가에 따르면 현재 신연방주에서는 조만간 주식시장에 상장되는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60개의 기술 회사가 있다.

1.1.4. 생산성 진보의 완화

기업의 높은 생산성 수준은 경쟁력과 수입 증가의 중요한 전제 조건이다. 현재에는 동독 경제에서의 생산성 수준이 서독 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1998년 노동 생산력은 서독 수준의 59%에 겨우 미쳤다. 통일 직후 몇 년간의 급격한 회복 과정 후 지난 몇 년간은 생산성 증가 속도가 느려졌다. 수공업 분야에서는 작업 생산성이 서독 수준의 약 2/3 로 훨씬 높았다. 동서독 비교에서의 이러한 차이는 종사자 당 매출에 있어서도 나타난다.

동독과 마찬가지로 엄청난 시장경제적인 구조변화를 겪었던 동유럽 이웃국가들과 비교해서 동독의 생산성은 물론 훨씬 높다. 예를 들어 폴란드는 동독 생산성의 겨우 반정도에 미쳤고 체첸과 헝가리는 약 1/3 정도였다. 이러한 비교는 동독 경제가 다른 전환경제보다 더욱 빠르고 성공적으로 발전되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예를 들어 헝가리 같은 나라들은 이미 80 년대에 시장경제적인 발전의 경험을 힐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독보다 생산성이 낮다.

《신연방주의 생산성의 발전》

	1995	1996	1997	1998
생산성(국내총생산/노동력)마르크	62,300	66,000	69,700	70,900
서독의 생산성에 대한 %	56.2	59.5	60.3	59.4

출처 : 연방통계청

서독에 비해 생산성이 차이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이다. 그러나 그 이유는 절대로 부지런하지 않거나 고용인들의 노동력 투입이 부족해서 생긴 것이 아니다. 그것은 주로 구조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다. 여러 다양한 요소들 중에는 특히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동독 경제에 있어서 자본 기반이 튼튼한 대기업이 별로 없다는 것, 비교적 낮은 생산성을 가진 경제 분야(광산업, 농업)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 연구와 개발이 집중적인 분야가 훨씬 적다는 것과 동독 기업은 경쟁력 있는 제공자로써 생산 시장에서의 자신의 인상을 부각 시켜야 한다는 사정 때문에 서독 기업 보다 비교적 시장 진입에 장애가 많다는 점 등이다.

1.1.5. 노동 시장 상황 : 최초의 긍정적인 징후

실업자 수는 1999년 연평균 31,200 에서 총 134만 4천명으로 감소했다. 이것은 1998년 2 % 감소한 것과 같다. 실업자 비율은 1998년 18.2%와 비교해서 1999년 17.6%이었다. 이것으로 실업률이 1995년이래 처음으로 다시 감소했다. 여기에는 근로자 수가 약간 증가한 것과 연평균 노동시장 정책을 통하여 해고가 약간 감소하는 원인이 작용했다. 또한 노동력에 대한 공급이 감소한 것 또한 원인이 되었다. 이것은 연방 노동청의 노동시장 및 직업연구소(IAB)의 산정에 의하면 연 평균 10만 명 정도가 감소한 것이다. 여기에 대한 원인은 인구상의 변화 외에도 생업에 참여정도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지난해의 노동시장의 발전은 올해에도 전체적으로 계속될 전망이다. 2000년 8월 말 실업자 수는 133만 7천 명에 달했는데 이는 17.0%의 실업률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것은 한 해 전보다 약 9,000명 정도 실업자가 감소한 것이다.

이러한 발전에는 연방 정부가 노동자와 직업 교육을 받는 이들을 위한 신뢰성을 바탕으로 취한 적극적인 노동정책이 중요한 기여를 했다. 1999년까지만 해도 이전 정부가 1998년 여름부터 가을까지 일자리 마련을 위한 조치를 과도하게 지원함으로써 야기된 높은 재정적인 의존도를 역력히 느낄 수 있었다. 그 이후의 연방정부의 후속 프로그램이 없었다면 노동시장 정책적인 조치가 엄청나

게 감소할 것과 그에 따르는 실업률의 증가를 걱정해야만 했을 것이다. 노동시장 정책에 있어서의 안정화와 신뢰성 있는 정책의 기조는 미래에도 계속될 것이다.

동독에서의 고용 상황은 동시에 신연방주에서의 경제구조의 변화도 반영해 준다. 통일 후 초기 몇 년간은 건축업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그 동안 이 분야에서는 고용이 급격히 감소한 반면에 다른 경제 분야에서는 고용이 증가하였다. 수공업은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 수공업 분야에서의 고용은 지난 해 약 7,000개의 일자리 증가로 아주 긍정적인 발전을 보여주었다. 서비스 분야에서도 고용 수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긍정적인 징후에도 불구하고 동독에서의 실업률은 여전히 서독에 비해서 두 배 이상 높다. 1999년 연 평균 실업률은 구연방주에서의 8.8%에 비해 17.6 %이었다. 이에 반해 미고용인구, 말하자면 실업자와 실업정책적인 조치하에 있는 사람들의 수를 합한 인구의 발전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숫자는 계속해서 감소했고 1999년 6월 이래로 그 전 달보다 계속 감소상태에 있다. 이러한 경향은 경제가 계속 활기를 띠면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신연방주의 노동시장*1》

단위 천명

	1996	1997	1998	1999
근 로 자	6,267	6,078	6,055	/*2
실 업 자	1,169	1,364	1,375	1,344
실 업 률	15.7	18.1	18.2	17.6
가공업의 근로자	588	563	588	595

1. 출처 : 연방노동청
2. 1999년부터 근로자는 더 이상 동서독을 구분하지 않는다.

1.1.6. 느려지고 있는 임금의 균등화

주로 90년대 전반부에 임금과 봉급을 끌어올리려는 주목할 만한 진전이 있은 후에는 최근 이러한 평준화 경향은 현저히 완만해 졌다. 근로자의 임금은 지난해 서독에 비해 평균 0.5% 만 높아졌는데 이것은 그 동안 서독지역 평균 임금의 91% 수준에 도달한 것이었다. 분야에 따라서 물론 현저한 차이가 있다. 인쇄산업과 은행에서는 임금이 서독임금의 100%에 이르는 반면, 예를 들어 호텔이나 숙박업에서는 서독의 약 3/4 수준으로 협약되어 있다.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는 1999년 임금 수준이 서독의 같은 분야 임금의 86.5%의 수준이었다. 2000년 8월 1일부터 이 임금 수준은 87%이고 2001년 1월 1일부터는 88.5%로, 2002년 1월 1일부터는 서독의 90% 수준으로 상승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지급되는 임금과 봉급을 살펴보면 이러한 모습은 전혀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지급되는 임금은 겨우 서독의 79% 수준이다. 특히 눈에 띠는 것은 수공업 분야에서의 임금 수준이 서독의 67%로 서독에 비해 크게 뒤떨어진다는 점이다. 이에 반해 서비스업 같은 몇몇 분야에서는 거의 서독 수준에 도달했다. 이로써 실질적인 임금에 있어서 전체 총량에 있어서는 주목할 만한 차이가 존재하는데 이는 최근 계속해서 점점 더 완만하게 메워 지고 있다. 이것은 평균 임금의 인상에서도 잘 알 수 있다. 신연방주에서의 실질임금의 인상률은 서독의 1.2% 에 비해서 2.1%로 약간 더 나은 것을 알 수 있다.

총평균임금/ 동서독의 종속근로자의 봉급 1996년에서 1999년까지(6월 현재)/ 분야에 따라(고용주과 휴가비 제외)						
분 야	동독				서독	서독 = 100
	1996	1997	1998	1999	1999	1999
	마르크				마르크	퍼센트
농업과임업	2,370	2,460	2,480	2,580	2,610	99
가공업	3,070	3,130	3,160	3,230	4,780	67
기본재료가공	3,230	3,310	3,330	3,450	5,160	67
투자재	3,280	3,340	3,380	3,470	5,110	68
소비재	2,560	2,630	2,640	2,740	3,750	73
건설업	2,890	3,040	3,040	3,230	3,950	82
상업	2,660	2,750	2,760	2,830	3,480	81
신용과 보험업	4,080	4,060	4,270	4,260	5,160	82
서비스	2,930	3,020	3,040	3,170	3,520	90
숙박업/세탁	1,990	1,900	1,930	2,180	2,420	90
교육/출판사/ 예술	3,250	3,550	3,600	3,450	3,560	97
공기관/사회보험	3,470	3,500	3,520	3,610	4,180	86
동독전체	3,030	3,100	3,130	3,220		79
서독전체	3,810	3,880	3,950	4,090	4,090	100

출처 : IAB-경영패널 1999년 에서의 설문조사의 결과

이에 반해서 근로자의 실질적인 순수입은 이미 서독의 90% 수준에 이르렀다. 이것은 조세 부담이 줄어든 점, (집세를 포함하여)물가 수준이 낮아진 점, 신연방주에서 근로자의 가계에 대한 국가적인 배려가 비교적 증가한 것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1.1.7. 전망은 밝다

독일의 경제적인 전망은 그 어느 때보다도 밝다. 연방정부는 금년과 후년에 생산과 고용이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것은 경제 전문가의 전망과도 부합하는 것이다. 연방정부는 2000년 전반부 프로젝트에서 금년에 전 독일의 국내 총생산이 2.75%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명한 경제연구소의

전반부 감정의견서는 올해와 내년에 2.8 % 성장한다고 보고있고 국제통화기금은 심지어 내년에는 3.3% 증가한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발전에는 유럽과 세계무역에서의 경제 상황이 좋은 것 외에도 특히 연방 정부의 경제 및 재정 정책과 임금 협약 파트너의 고용 친화적인 임금 협약 또한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러한 발전으로 신연방주도 이득을 취하고 있다. 신연방주는 수출 비율이 낮기 때문에 주로 국내 수요에 의존하고 있다. 국내 매출은 올해 초 이래로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2000년 전반기에는 14 %의 성장으로 신연방주는 구연방주의 8 %보다 훨씬 급격한 성장을 보였다. 이로써 동독에서는 중기적으로 다시 전체 경제적인 성장에 대한 힘을 강화시키게 된다. 독립적인 경제 연구가의 산정에 따르면 2002년부터 건축 경제도 침체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신연방주에서의 전체 경제 성장은 구연방주 보다 다시 높아 질 가능성이 많아진다. 이외에도 조세와 준조세부담이 임금으로 환원됨으로써 신연방주에서도 추가적인 고용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1.2. 신연방주에서의 성장과 고용를 위한 경제 정책의 역점

지금 전 독일을 이끌고 있는 경제적인 발전은 연방정부의 정책이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 결단된 개혁에 의해서 안정된 물가하에 지속적인 성장과 고용이 증가되는 기초가 마련되었다. 이것은 투자자와 소비자의 신뢰와 확신을 강화시켜 준다.

전체적으로 연방정부는 신연방주에서의 경제적인 발전을 두 가지 방향에서 지원하고 있다.

a) 한편으로는 정부는 전체 경제적인 제반 조건을 향상시킨다. 이러한 장기적인 안목의 개혁은 특히 신연방주에 이롭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는 :

· 금년 7월에 결정된 조세개혁 2000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기업의 조세의 점진적인 감면

- 다단계의 조세 감면법, 가족 수입의 균등화의 새로운 규정 및 기업 조세 개혁을 통하여,

- 최저세율의 점진적인 감소를 통하여, 그렇게 하여 소득세의 최저세율은 15%로 최고세율은 42%로, 법인세는 25%로 내린다. 이는 감지할 수 있을 정도의 부담경감으로 된다.

- 환경세 개정의 범위 안에서 연금 보험금의 인하를 통하여, 그리고 사회보장에 있어서 구조 개혁을 통하여.

· 새로운 채무부담을 경감시키는 연방의 안정된 재정정책.

- 연방재정 2000에서 280억 마르크를 절약함으로써 2003년까지 견실화 액수가 약 470억 마르크까지 오른다. 늦어도 2006년까지 연방정부는 새로운 부채를 부담하지 않고, 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이렇게 하여 오는 해를 위한 현대적인 경제의 구축 시에 신연방주의 계속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위한 신뢰할 만한 기반이 마련된다.

· 국가, 경제계, 사회의 총체적인 현대화를 위한 경제정책.

- 연구, 교육 그리고 학문에 있어서 투자의 증대를 통하여, 동독도 여기에 규모이상으로 참가한다.

- 인프라 구조에의 투자를 통한 안정화를 통하여(이것은 신연방주의 효과적인 경제 구조를 위한 전제조건이다).

- 공공 행정기관의 혁신을 통하여, 국가적인 영역은 계속해서 현대화되고 시민에게 더욱 친숙하게 변모할 것이다.

이러한 성장과 고용에 적합한 정책은 협약 파트너로부터 '노동과 교육과 경쟁력을 위한 연대'의 범주 내에서처럼 중기적인 고용에 적합한 임금체결의 근거 위에 지원을 받을 것이다.

b) 또 다른 한편으로는 동독 경제가 특히 그에 대한 도전 즉, 경쟁력을 계속 강화시키는 데 더욱 잘 적응하도록 동독 경제를 지원하는 데 특별히 역점을 두는 것이다.

오늘날 동독 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시장에서의 지위를 강화하고 새로운 시장을 또 얻는 것이다. 이때 특히 새로운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 기업의 자본력과 수익상태를 강화하는 것, 그리고 경제에 있어서 미래에 전문인력이 필요할 것에 대비하여 젊은이와 고용인력의 자질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의 과제이다. 이러한 기초 위에 향후 신연방주에서의 고용 상황이 눈에 띄게 향상될 것이다.

신연방주를 위한 연방정부의 경제 정책적인 핵심 개념은 이러한 것에 특히 새로운 역점을 두고 있다. 가장 중요한 전략적인 중점은 다음과 같다.

1.2.1. 이노베이션에 대한 지원

혁신에의 능력과 미래의 시장에서 새로운 상품과 새로운 아이디어로 성공적으로 살아남는 능력은 장기적으로 더욱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결정적인 전제조건이다. 현재 동독 기업의 혁신능력은 아직도 비교적 미미하다. 그 이유는 특히 90 연대 초 산업 연구가 급격히 퇴보한 데 있었고 또한 동독 경제구조가 소규모 기업에 의존한다는 데 있었다. 그 동안에 대학 혹은 대학 밖에서의 연구 인프라 구조가 잘 발달되었다. 그러나 여기에는 종종 경제계와 학계

사이의 긴밀한 협력이 결여되어 있다.

그래서 연방 정부는 특별히 신연방주에 연구, 발전 그리고 혁신 분야에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시켰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추가시켰다. 특히 기술 이전의 강화와 지역적인 차원에서의 네트워크 및 기업과 학문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에 중점이 주어져 있다. (상세한 것은 3. 혁신능력 강화, 네트워크 구축 참조)

1.2.2. 경제 지원

경제 지원의 범위에서는 투자 지원 또한 미래에 중요한 요소를 이루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동독의 기업 자본재가 큰 진전에도 불구하고 서독 수준에 크게 못 미치기 때문이다. 산업 기반의 강화와 생산에 인접한 서비스의 강화 또한 경제 지원의 중점 과제이다. 여기에는 지역 경제 지원을 위한 자금을 쓸 수 있다. 지역개발을 위한 유럽공동체 기금의 보충과 지역발전을 위한 자금, 그리고 세법상의 투자보조금이 제공될 수 있다. 그 외에도 일반적인 경제 지원 기구가 많이 있는데 특히 연방의 지원 은행(DtA, KfW)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창업과 기업 강화를 위한 재정적인 원조 및 상담, 자기 자본 및 크레디트 원조 및 담보를 예로 들 수 있다(상세한 것은 2.1. 투자 우호적인 지원의 틀 참조).

1.2.3. 인프라 구조의 확대

인프라 구조, 특히 교통, 커뮤니케이션, 주택과 도시의 건축 등은 신연방주에서의 경제력과 매력적인 삶의 조건을 펼쳐 가기 위한 중요한 전제 조건이다. 엄청난 투자 자본이 통일 이후로 교통 도로와 전화망의 건설과 도시 건축상의 폐건물들을 제거하여 거주 환경을 개선하는 데 투입되었다. 인프라 구조의 지원은 계속해서 중점사항이 될 것이다. 그 외에도 그것은 건축 경제에 있어서 구조적인 적응 과정을 정리하는데도 큰 기여를 한다. 이것뿐만 아니라 주와 지방의 투자력은 동독 재건의 투자 지원법상의 자금을 통해서 강화된다.

1.2.4. 일차적인 노동시장에서의 통합

끝으로 특히 장기 실업자와 특별한 문제 그룹을 통상적인 노동 시장에 통합시키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성장을 겨냥한 경제 정책은 향후에도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 외에도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은 실업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대신 고용을 촉진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특히 청소년 실업을 충분한 직업훈련자리와 일자리 마련을 통하여 퇴치하는 것이다. 이것은 특히 기업과의 교육 합의의 범위에서 혹은 실업 청소년을 위한 단기 프로그램의 도움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아주 성공적이어서 금년에도 계속될 것이다 (6. 7.단락 참조)

1.3. 연방 예산에 있어서 동독 재건에의 중점

특히 수공업 분야에서 밝은 전망과 신뢰할만한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동독 경제는 당분간 계속해서 연방과 주의 집중적인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인프라 구조의 구축에 있어서나, 혁신 잠재력의 강화나 경제 지원에 있어서 지원을 너무 일찍 중단해 버리면 경제 발전이 심각히 지연되고 그 결과로 실업률의 증가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연방정부는 향후 몇 년간에도 역시 충분한 규모로 재정적인 지원을 하게 될 것이다. 연방 정부는 연정 협약에서도 이미 밝혔듯이 2004년 이후에 현재 유효한 연대협정에 대한 적절한 시기의 후속조치를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동독 재건에 대한 신뢰할 만한 중기적인 지원의 틀을 확립하는 것인데 이는 미래에도 역시 연방과 구 연방주의 연대성에 기초하는 것이다.

1.3.1. 혁신, 연구 및 개발에의 지원

혁신, 연구 및 개발에의 지원을 위해 2000년에 이 분야에서 30억 마르크 이상이 제공된다. 정책의 목적은 동독 기업의 혁신 능력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왜냐하면 신연방주는 이를 통해서 미래 산업과 미래의 서비스에의 투자를 하기에

더욱 매력적으로 되기 때문이고 이는 또한 신연방주의 입지와 경쟁력을 증대시킨다. 동독에서 연구와 개발 능력을 구축하는 것에 하나의 역점을 두고 있다. 경제 정책상의 이러한 핵심 분야에 있어서의 지원을 위해 마련된 자금으로 현존 프로그램을 위한 입장이 안정된다. 연방 정부의 목표는 근본적으로 적은 연구 자금으로 사적인 연구가 최대한 유발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좋은 예는 새로운 지원 모델인 “InnoRegio” 이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의 특별한 발전의 가능성이 현장에서 인식되고, 개발되고 조직화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때 기업과 연구 및 교육 기관은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촉진되어야 한다. 2005년 까지 이를 위해 총 5억 마르크가 마련되어 있다.

1.3.2. 경제 지원

경제 지원을 위해서 2000년에 총 23억 마르크 가 마련되어 있다. 이로써 지역적인 경제 지원은 예상된 규모 내에 있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향후의 예산에 있어서도 이전 해의 계획 결정에 의해서 도출되는 지출의무가 어림 잡힐 것이다. 그 외에도 2000년에도 동독에 대한 판매 지원이 있게 된다.

그 외에도 신연방주는 앞으로 몇 년간 유럽 연합 아젠다(Agenda) 2000에 합의된 대로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추가로 약 20억 마르크를 유럽 구조 기금에서 쓸 수 있다. 이로써 지역적인 발전을 지원하는 데 매년 3억 마르크를 더 쓸 수 있다.

1.3.3. 인프라 구조의 구축

연방의 교통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는 “독일 통일 교통 프로젝트”에 대한 우선권은 변함이 없다. 그 외에도 30억 마르크 규모의 “교통 인프라 구조”라는 추가적인 연방 프로그램과 함께 약 60억 마르크 투자 규모의 특별히 선정된 교통 프로젝트의 구축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로써 연방은 동독에서 교통 인프라 구조

의 개선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주택과 도시의 건설은 2000년 예산과 더욱 효과적으로 서로 맞물려 있다 :

- 재건은행(Kreditanststalt für Wiederaufbau) 새로운 제2차 주거 현대화 프로그램이 제출되었다. 이것은 아주 심하게 훼손 당한 주거 상태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고 100억 마르크 규모의 자금이 제공될 것이다. 2%의 이자 할인에 대한 부담은 같은 비율로 연방과 주가 부담한다.

- 그 외에도 도시 건축 지원은 5억 2천만 마르크 규모의 프로그램 안에서 계속 우선적으로 진행될 것이고, 처음으로 제출된 "사회 도시 (Die Soziale Stadt)"프로그램을 통해 보충될 것이다.

2000년 정부예산에서 인프라 구조를 지원하기 위하여 190억 마르크가 준비되어 있다. 이 중에서 약 36억 마르크가 건축 잔재와 기술적인 스탠더드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철로 분야에서의 투자(소위 집중적인 구부채)를 회복하는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다. 독일 철도 회사는 2002년까지 투자를 필요로 하는 구부채를 완전히 제거할 수가 없을 것이므로 연방은 2002년 이후에도 이를 위해 연방의 자금을 쓸 수 있도록 신연방주와 합의하였다.

1.3.4.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

연방과 연방 노동청은 동독에서의 노동 시장 정책에 대한 조치를 위해 2000년에는 연방 예산에서 약 220억 마르크를 배정하였다. 이로써 적극적인 노동정책을 지난해의 높은 수준으로 계속시키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청소년 실업의 퇴치는 연방 정부의 핵심적인 사안이다. 그 목적은 청소년들에게 직업적인 전망을 열어 주는 데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 실업의 퇴치를 위한 아주 성공적인 특별 프로그램은 2000년에도 20억 마르크로 계속된다. 그 중의

40%가 신연방주로 유입된다.

동독 직업훈련 자리를 위한 자발단체는 계속 유지된다. 이로써 신연방주와의 합의에 상응하게 17,000 명의 청소년들이 기업 외의 교육을 받는 것이 가능해진다.

1.3.5. 신탁청 후임 기관과 비스무트

신탁청 후임 기관은 1995년 이후로 투자와 산업 기반의 안정화에 아주 중요한 기여를 했다. 금년에는 통일 관련 연방 특수 업무국이 신탁청으로 부터 위임받은 과제를 계속해서 처리할 것이다. 특수 업무국은 금년에도 연방 정부로부터의 추가적인 자금 없이 해 나간다.

모든 신탁청 후임 기관과 비스무트가 충분한 자기 자본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2000년 연방 예산에서 17억 마르크가 이에 대한 지원금으로 준비되어 있다.

1.3.6. 연방 국가의 재정 균등화

1995년 이후로 신연방주는 동등하게 연방 국가적인 재정 균등화에 참여했다. 이 재정 균등화는 조세 분배의 결과를 부가가치세 분배시의 보충 부분을 통하여, 주 정부의 재정 균등화 요구를 통하여, 부족한 예산과 특별 필요 자금에 대해 연방의 보충 지시를 통하여 수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의 가장 큰 부분은 신연방주와 베를린에 돌아가는데 1999년에는 약 490억 마르크이었다.

연방 정부의 가장 긴급한 임무는 1999년 11월 11일 연방 헌법 재판소의 판결을 실행하는 것이다. 연방 헌법 재판소는 입법자에게 연방 국가적인 재정 균등화를 새로이 규정하도록 의무를 주었다. 즉. 2003 년 1월 1일 까지 제정하는 기준법을 통하여 규정하도록 한 것인데 여기에 더 추가하여 2005 년 1월 1일까지

새로이 규정하는 재정 균등화 법을 통하여 규정하도록 한 것이다. 기준법은 재정 균등화의 불분명한 개념들을 구체화하고 보충해야 하는 것이다.

연방 정부는 기준법에 대한 필수적인 예비작업을 판결 직후에 시작하였다. 법원의 요구사항은 최대한 만족되어야 한다. 이때 일련의 아주 어려운 법적이고 재정 정책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신연방주의 상황은 특별히 고려되어야 한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필수 불가결한 신연방주에 대한 지원은 구연방주와 연방의 연대감을 필요로 하는 전 국가적인 임무이다. 연방 정부는 이번 회기에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1.4. 공동의 행위 : 신연방주를 위한 노동, 교육 및 경쟁력을 위한 연대

여러 해 동안 독일에서 계속된 높은 실업을 퇴치하는 일은 모든 사회적인 힘의 연대를 통해서만 성공할 수 있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개혁을 위해서는 넓은 사회적인 공감대가 요구된다. 그래서 연방정부는 1998년 겨울에 있은 선거 직후 기업과 노동조합의 대표자들을 '노동, 교육 및 경쟁력을 위한 연대'로 초대하여 이들과 함께 이러한 문제를 풀고자 하였다. 신연방주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특별한 협력 그룹, 즉 신연방주의 문제에 관한 위임자들의 우두머리인 롤프 쉬바니츠(Rolf Schwanitz) 장관의 지휘하에 '동독 재건에 관한 협력단체'가 설치되었다. 이 협력 단체에는 신연방주의 정부들도 함께 일한다.

'동독 재건에 관한 협력단체'의 작업은 신연방주에서의 경제, 교육, 노동시장에 대한 제반 조건들을 집중적으로 개선시키는 것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동독 경제는 오늘날 경쟁에서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려는 핵심적인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때 특히 중요한 것은 새로운 생산품의 기초 위에 국내적일 뿐만 아니라 점점 더 강하게 국제적인 기준에서 시장 포지션을 열어 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협력 단체는 우선 지역외 판매의 개선과 동독지역 경제의 혁신력의 강화라는 두 가지 문제를 파악하였다. 두 영역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결정

이 내려졌다.

판매촉진의 분야에서는 참가자들이 특히 다음의 조치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 연방의 프로그램, 특히 신연방주에서의 판매 촉진 프로그램을 계속함으로써, 혹은 일반적인 대외 경제적인 지원조치 시에 동독 기업을 우선시하는 것을 보장한다든가 혹은 동독 공급자를 위한 공적인 위탁을 적절하게 배분한다든가 하는 것을 통하여 시장 개방을 용이하게 하는 것,

- 주들과 협력하여 국내와 국외에서 산업박람회에 참여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

- 경제 단체들 (예를 들면 외국 상공회의소)과의 협력을 통해 동독 공급자들을 소개하는 일,

- 동독 기업의 특별한 성과(경제단체들의 활동)를 공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매년 수출포상을 하는 것이나

- 2000년 9월 4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수출 대책 회의를 공동으로 추진하는 일 : 연방 수상의 개회로써 연다.

이노베이션의 강화는 동독 재건을 위한 협력 단체의 모든 참가자들에게 신연방주에서 특별히 중요한 것으로 인정된다. 특히 기업과 긴밀한 연구와 발전의 영역에서는 많은 과제들이 특히 중요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여러 가지 조치의 카타로그가 합의되었는데, 그 중에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일련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통하여, 예를 들면 연방의 “InnoRegio”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의 혁신적인 잠재력을 강화시키는 것

- 동독 대학교와 기업간의 기술 이전을 향상시키는 것(주의 의무)

- 연방의 ‘연구와 개발’ 특별 프로그램을 높은 수준으로 지속시키는 것

- 연구 유한회사들을 지원하고 주를 통하여 혁신에 대한 초기 단계의 재정적 지원을 개선시키는 것

- 경제 단체들을 통하여 지원되는, 서독 기업과의 이노베이션 협력을 강화하는 일

- 경제 단체들을 통한 이노베이션 토론회의 개최(가장 좋은 실무의 예를 설명하는 일)

‘동독 재건을 위한 협력 단체’는 이외에도 수많은 여러 문제들을 다루는데, 예를 들면 지불 모럴의 개선의 문제라든가 - 이는 특히 수공업에 있어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 테마이다. (2.5 와 비교)- 혹은 신연방주를 위한 적극적인 시장 정책의 범위 안에서 지원이 필요한 고용자들의 통합 문제라든가 혹은 직업교육 일자리 프로그램의 문제 같은 것이다.

2. 성장과 현대화를 위한 필수 불가결한 경제 지원

신연방주에서의 경제적인 미래를 위해 결정적인 것은 현존하는 실행의 잠재력을 펼치고 경쟁에서 이를 증명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전제조건은 특히 산업의 건설 및 생산과 밀접한 서비스의 발전으로 최근에 현격히 향상되었다. 이것은 이행력이 강한 경제와 경쟁력이 있는 일자리를 위한 기초이다. 90년대 초 산업 생산량이 급격하게 감소한 후에 신연방주에서의 수공업 분야에서의 고용자 수는 오늘날 약 600,000명으로 안정화되었다. 얼마전부터 이는 기뻐할 만 하게도 약간의 상승을 보였다.

주목할 만한 일은 신연방주에 많은 새로운 혁신적인 기업이 탄생했다는 것이다.

이들 중의 몇몇 기업은 이미 성공적으로 주식시장에 입지를 세웠다. 마이크로 전기 산업의 분야에서는 특히 드레스덴 지역에 있는 관할센타 (Kompetenzzentrum) 가 그러하고 컴퓨터 칩 분야에서는 이 지역에서 몇몇 기업이 그 동안 국제적인 기술의 최고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또 다른 지역에서도, 예를 들면 예나(Jena)나 오더(Oder)강가의 프랑크푸르트에서는 마이크로 전기 연구소로서 소프트웨어나 정보 및 통신서비스 혹은 멀티 미디어 분야에서의 새로운 전망이 열린다. 베를린 아들러스 호프의 설립 및 혁신 센터에서는 그간 300 개가 넘는 테크놀로지 집중적인 기업이 생겨났다.

또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예를 들면 자동차 제조 분야 - 신연방주에서는 이 분야에 이미 약 55,000 명의 고용자가 일하고 있다 - 혹은 중산층 중심의 기계 설비 분야에서는 경쟁력 있는 산업 기초가 생성 중에 있다. 화학 산업에 있어서는 특히 작센 안할트에서 계속적으로 생산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1997년 이래로 다시 1991년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다. 해변에는 그 동안 생산성과 비용 수준에서 유럽의 최고 조선소임을 입증하는 경쟁력 있는 조선소가 생겨났다.

연방정부의 목표는 이러한 발전을 계속 강화시키고 신연방주의 다른 지역에서도 산업적 제조, 생산과 근접한 서비스 및 연구의 네트워크를 발전시키고 지원하는 것이다. 이때 특히 중산층을 강화하는 것과 위험자본을 접할 수 있는 가능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창업을 강화시키는 것이 중점을 이룬다.

2.1. 투자우호적인 지원조건

신연방주에서의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연방 정부의 광범위한 도구는 투자자로 하여금 스스로에게 이득을 가져오면서 연방주의 건설에 참여할 수 있는 매력적인 가능성을 제공한다. 전체 지원 도구는 계속해서 경제의 변화하는 요구에 맞춰지고 향후에는 더 높은 수준으로 계속될 것이다. 이것은 투자자들에게 신뢰감과 계산가능성을 준다. 종합적으로 많은 연방 혹은 주의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유럽 연합을 위한 원조가 제공되고 있다. 투자에 대한 지원은 계속해서 앞

으로도 신연방주에서의 경제 지원의 핵심이 될 것이다.

또 다른 목표는 기업으로 하여금 여러 지원 가능성에 쉽고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 조건을 투명하게 구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예를 들면 연방 경제 및 기술부의 새로운 테크놀로지 개념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컨셉트로서 혁신적인 중산층을 지원하기 위한 세 개의 지원 노선을 가진 투명하고도 쉽게 이해 가능한 지원 개념이 마련되었다. 세 개의 지원 노선이란:

- 혁신
- 연구 협력 및
- 기술적인 상담

이다. 지금까지의 지원 프로그램은 서로 합쳐져서 함께 새로운 이니셔티브들과 더불어 총괄 가능한 구축체계로 통합되었다. 여기에는 예를 들어 기업과 연구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인 "PROINNO" 나 "InnoNet" 같은 것이 있고 신연방주에서의 기술 지향적인 기업의 설립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프로그램인 "FUTOUR" (기술중심 기업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 같은 것이 있다. 이로써 신연방주에서의 기업의 결함을 경쟁력 있는 혁신적인 새로운 기업의 설립을 통하여 메우는데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여기서 언급된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3.1. 기업과 가까운 연구의 구축”에 나와 있다.)

연방 내각에 의해서 결의된, 독일 변제은행 (Deutsche Ausgleichsbank)과 재건은행(Kreditanstalt für Wiederaufbau) 에 있어서의 지원활동에 대한 규정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지원 환경이 효과적으로 단순화될 것이다. 독일 변제 은행은 연방의 설립과 중산층 은행 (Gründungs- und Mittelstandsbank)으로 설립되고 그에 합당한 지원 프로그램은 여기에서 합쳐진다. 이로서 중소 기업은 자신들에게 핵심적인 문제인 자금조달의 필요에 대한 명백히 정의할 수 있는 상담자 (Ansprechpartner) 를 갖도록 보장되는 것이다.

재건은행은 다른 나머지 중요한 지원 과제에 집중할 것이다. 이에 속하는 것으로는 예를 들면 인프라 구조, 주택 건설, 수출 등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기업의 영역에서 특별 보조 같은 것이 속한다. 이 두 개의 지원 제도의 긴밀한 기업적인 연관관계를 한편으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원 업무의 명확한 구분은 중기적으로 명백한 비용절감에의 잠재력을 깨워주고 이는 결국 지원에 이롭게 되는 것이다.

2.1.1. 지역적인 경제구조의 개선

"지역 경제구조 개선"을 위한 연방과 주의 공동 과제 (GA) 는 향후에도 신연방주에서 투자 지원의 중요한 수단이다. 제조업 관련 중소 기업의 투자는 구조가 취약한 지역에서 50 % 까지의 투자비용으로 지원될 수 있고, 상대적으로 더 큰 대기업의 경우는 35 % 까지 지원될 수 있다. 구조가 굳건한 지역에서는 지원 최고액이 48% 혹은 28 %이다. 그 외에도 경제에 가까운 인프라 구조를 구축하고 개선하기 위한 투자 보조금이 보장될 수 있다. 인프라 구조 시설들은 종종 경제 활동을 위한 전제 조건을 우선 창출하고 개인적인 투자의 경영적인 생산성을 증가시킨다. 연방과 주의 계획위원회는 매년 공동과제의 기본 계획과 지원 규칙을 지역 정책적이고 경제 정책적인 발전에 맞게 검토해서 목적에 부합한 효과적인 자금투입이 가능하도록 한다. 그러므로 특히 임금 수준에 부합하는 보조금의 도입을 통하여 지원가능성이 확대되었는데 이로서 지원의 적용 효과가 강화될 것이다.

"지역적인 경제구조의 향상" 이라는 공동과제를 위해서 2000년 연방예산에서는 신연방주와 베를린을 위해 229만 천 마르크 규모의 순자금과 의무수권(Verflichtungs ermächtigungen)이 174만 7천 마르크 규모로 준비되어 있다. 여기에다 주의 기여분이 덧붙여 진다. 주들은 절반까지 공동과제 지원에 참가하고 거기다가 지역 발전을 위한 유럽 기금(EFRE)의 자금을 추가로 투입한다. 이로서 2000년 신연방주에서의 공동 과제 지원에는 총 승인규모(Verflichtungsermächtigungen und EFRE 자금)가 앞으로 약 44억 마르크가 준비되어 있다. 2001년 연방 예산의

기획과 2002년부터 2004년까지의 재정 계획은 계속적인 지원을 마련하고 있다.

그 외에도 새 연방정부는 모든 신연방주가 2000년에서 2006년 기간동안 유럽연합 지역정책에서 최고의 우선순위를 점할 것과 동베를린이 제 1목표 이전 지원을 받게 되는 목표를 달성했다. 그래서 2000년에서 2006년까지의 기간 동안 유럽연합 구조기금은 신연방주에는 376억 마르크, 동베를린에는 14억 마르크를 제공한다. 이것은 신연방주에서의 지역에 대한 지원에 있어 그 이전보다 훨씬 많은 유럽연합 기금이다.

2.1.2. 투자 보조금(Investitionszulage)

신연방주에서의 투자 지원에 있어서의 또 다른 핵심은 조세상의 투자 보조금이다. 이것은 특히 과거에 1998년으로 마감된 지원지역법을 진행상태에 따른 특별면제액(pro- gressionsabhängige Sonderabschreibungen)를 이용할 수 없었던 수익이 적은 동독 기업에 유리한 것이다. 1999년의 투자보조금법(InvZulG 1999)은 주로 제조업 및 생산과 근접한 특정 서비스업이나 혹은 수공업이나 도시간의 무역의 중소기업에 집중하기 때문에 더욱 단순하고 목표에 정확하게 지원하고 있다. 투자 보조금은 1999년 대 기업에 대해서는 10%,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0% 까지 두배가 되었다.

연방정부는 경제적으로 특히 중요한 최초투자들에 대한 투자보조금을 금년에 다시 한 번 대기업에 대해서는 12.5%,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5% 까지 인상하기로 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보충투자에 대한 지원은 감소되었다. 1999년 투자보조금법은 제조업 분야와 생산에 근접한 서비스업 분야에는 2004년 말까지 적용되고 수공업 분야와 도시간의 무역 분야의 중소기업에는 2001년 말까지 적용된다.

2.1.3. 투자 지원법

2004년까지 연방 정부는 신연방주에 연방주들과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히 중요

한 조치를 위해 동독 재건 투자 지원법에 따라 매년 66억 마르크 수준으로 재정 지원을 보장한다. 투자 지원법의 자금은 서로 다른 경제력을 균등화하고 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조개선적인 조치를 위해 광범한 스펙트럼으로 투입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새로운 연방 정부는 2000년 초부터 지원능력이 있는 투자계획의 범위를 현격히 넓혔다. 이제 그 범위는 오래 전부터 숙원이던, 공공건물, 예를 들면 공립 학교, 극장, 관청건물 같은 것들의 개선 가능성까지 포함한다. 재정 원조는 신연방주와 지방자치 단체들로 하여금 인프라 구조적인 보충에 대한 필요를 충족시키도록 해주며 또한 그 외에도 이들의 예산 부족의 한계에도 도움을 주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2.1.4. 일반적인 경제원조

이러한 투자 지원 조치이외에도 추가로 기업은 명확히 정의될 수 있는 목적을 위한 일련의 경제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들은 주로 기업과 연관된 연구 및 개발 성과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혹은 동독 기업의 판매와 마케팅의 성과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중요한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

신연방주를 위한 일반적인 원조 프로그램(창업자에 대한 지원, 판매와 마케팅, 기업 재정에 대한 지원에서부터 중산층과 수공업에 대한 지원까지)의 역점은 후술되는 부분 2.2부터 2.5까지에서 다루어진다.

2.1.5. 신탁청 업무 처리

신탁청 후속 기관들은 1995년부터 투자와 산업적인 기반의 안정화를 위하여 중대한 기여를 하였다. 연방 정부는 선거 직후 이들의 남은 업무를 올바르고 완벽하게 처리하도록 보장하였다. 이제 연방 통일 관련 특수업무청(BvS)은 신탁청으로부터 넘겨받은 업무를 계속해서 처리하였다. 이것은 아직도 주로 계약관리나 채무변제 혹은 환경상의 구부채 분야에서 활동한다. 특히 통일 관련 특수업

무청은 투자자들에 의해서 이행되어야 하는 의무 (특히 일자리나 투자에 대한 약속) 가 지켜지는지 감찰하고 계약 이행을 보장한다. 이러한 업무는 그 동안 계속 재건은행을 위한 자회사에 의해 연방 통일관련 특수업무청을 위해 업무가 계속되어 왔다. 환경상의 구부채의 영역에서는 연방이 주와 함께 경제적이고 기술적인 변제를 주에 이전시키고 주가 이를 위해 적정하게 보상하는 협상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금년 말까지 연방 통일 관련 특수업무청은 조정적인 활동을 할 것이다. 그때까지 처리되지 못한 업무들은 다른 기관으로 위임되거나 역시 업무 처리로 넘어갈 것이다.

신탁 부동산 회사(TLG)는 강력하게 과거의 인민 소유의 부동산을 사유화하는 일을 하고 있다. 재산법적이고 구조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1995년부터 성공적으로 약 50,000개의 대상을 매각하고 반환하였다. 신탁 부동산 회사는 이로서 토지와 대지는 신연방주에서의 경제 발전을 위한 조건이 더 이상 아니라는 사실에 근본적인 기여를 하였다. 이외에도 신탁 부동산 회사는 부동산의 발전을 위해 재정적인 도움을 주는데 이는 사유화을 위한 더욱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사유화는 부분적으로 가치평가상태에 광범위한 투자를 요구한다. 더 나아가 신탁 부동산 회사는 자신들의 결실력, 수익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신들의 물건의 발전에도 투자한다. 이렇게 하여 신탁 부동산 회사는 미래에도 동독 재건에 기여할 것이다.

2.2. 창업에 대한 지원과 신생기업의 강화

창업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과 특별 상담서비스는 끊임없는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미 제공된 프로그램과 현존 기업의 보존을 위한 자발 단체들은 여러 다양한 경우에 신생기업의 입지를 확고히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그래서 독일 변제 은행(DtA)의 지원을 받은 기업의 93%가 설립 후 5년이 지나도 여전히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1999년에 신연방주에서 신생기업의 창업과 정착을 위해 총 약 62억 마르크 규모로 15,536 의 자금이 독일 변제은행과 동독 재건은행(KfW)의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되었다.

새로운 자발단체가 여기에 또 추가되었는데, 예를 들면 지역적인 산업 및 상공회의소와의 협력으로 하는 작센 안할트의 창업안내인 같은 것인데 이것은 선도프로젝트의 범위 내에서 연방 경제 및 기술부에 의해 함께 지원된다. 독일 변제 은행은 5년 동안 막데부르크에 있는 Otto-von-Guericke 대학에 창업 강좌를 열도록 지원하는 제의를 하였다. 교수 임용 절차는 현재 진행중이다.

유럽 회복 프로그램(European Recovery Program, ERP)의 특별재산의 지원자금은 이미 1990년 3월 이래로 새로운 기업의 창업과 그 성장을 위한 중요한 재정적인 초석에 속한다. 2000년 ERP 경제 플랜은 그 이전과 마찬가지로 신연방주에서의 엄청난 수요에 부응하고 있고 다시 신연방주를 위해 엄청난 지원을 할애하고 있다.

2.2.1. 출발자본 프로그램

1999년 독일 변제 은행에 의해 새로이 세워진 출발자본 프로그램은 작은 규모의 계획을 가진 창업자들로 하여금 자립으로의 출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프로그램인데 활발한 관심을 일으켰다. 이것은 동년에 787번 이용되었다. 이 프로그램에서 연말까지 총합 약 4,600만 마르크가 지불되었다. 2000년 1/4분기에서는 390 개의 계획을 위해 이미 약 2,400만 마르크가 지불되었고 이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신연방주의 여성들에게는 소규모 창업을 위한 독일 변제은행의 이 새 프로그램으로 자립적인 삶에 대한 기회가 뚜렷하게 향상되었다. 1999년에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이들 여성들의 참여가 37.2 %로 독일의 자립자들의 전체 수 중의 여성 비율인 27.4 %를 웃돌았다.

2.2.2. 대학교와 연구 기관에서 출발한 창업

대학교와 연구기관에서 출발한 창업은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중요성을 얻고 있다. 여기에 대한 전제조건을 독일에서도 강화하고 학문적인 영역에서 “자립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대학에서의 창업 (EXIST)” 프로그램이 출발

되었다. 전 독일에서 200개가 넘는 대학교는 이 EXIST 대회에 참가하였다. 신연방주에는 이 프로그램의 범위 내에서 2001년까지 총 약 4,500만 마르크를 쓸 수 있다. 여러 지역으로부터 온 다섯 가지 네트워크 개념이 선정되었고 지원되었는데, 그 중에는 신연방주에서는 두 개의 자발단체, 즉 "GET UP - Generierung technologieorientierter Unternehmensgruender, 기술지향적인 창업의 생성" 과 "Dresden exists" 가 있다. "GET UP" 은 임메나우 공과대학과 예나 대학, 예나 전문 대학과 슈말칼덴의 전문대학에 의해 주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초기 2년 간은 이 네트워크가 160개 이상의 기업설립을 도왔고 주도했다.

신연방주에서 연방에 의해 주도되거나 혹은 공동지원되는 연구기관들은 창업 지원에 있어서 특별히 활발한 참여로 두드러진다. Berlin-Buch에 있는 Max-Delbrück 센타 주위에는 그 동안 30개가 넘는 기술 집약적인 기업이 정착했는데 주로 바이오 테크닉이나 유전자 정보학 분야이다. 특히 Frankfurt/Oder에 있는 반도체 물리학 연구소나 그곳 대학과 협력하는 연구소인 예나에 있는 분자생물학기술연구소는 이러한 본보기가 되는 창업 자발단체를 뒤잇고 있다. 신연방주에서의 Helmholtz 센터에는 총 약 20개의 창업의 예가 알려져 있고 베를린의 연고단체에 의해서 세워진 Berlin-Adlershof의 혁신주도청(Innovationsleitstelle)은 설립된지 약 1년 반 사이에 4개의 기업설립을 실현시켰고 6개를 더 준비하였다. (대학밖에서의 연구기관의 활동에 대해서는 3.4 참조)

2.2.3. 문제 해결과 신생기업의 강화

1995년 독일 변제 은행에 의해 설립되었던 "원탁(Runde Tisch)"은 설립의 곤경에 처한 기업을 회의소나 은행 그리고 해당 주의 경제부와 함께 도우려는 목적에서 설립되었는데 아주 성공적인 것으로 증명되었다. 상담 자발단체의 시작 이래로 신연방주에서 상공협회와 수공업협회에 의해 약 11,000 개의 기업이 모든 분야에서의 약 120,000 개의 일자리가 마련되었다. 1999년에만도 2,200개 기업의 취약점이 분석되었는데 이때 연방이 독일 변제 은행을 통하여 이 후견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한다. 후견된 기업의 대부분은 중소기업들이었다. 이때 특별

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자발 단체가 10개의 경우 중 9개는 해당 기업에 의해 직접 주도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은행의 협력은 여기서 강조할 만하다. 이렇게 하여 모든 경우 중 약 70%가 해결점을 찾을 수 있었는데 이는 중기적으로 기업의 계속적인 경영을 가능하게 하였다.

신연방주에서의 신생기업에 대한 또 다른 새롭고 유용한 시도는 독일 변제은행과 독일 상공인 협회(DIHT)에 의해 중개되는 대부제(Patenschaften)이다. 여기서는 과거의 매니저나 전문가나 지도자들이 명예직으로서 대변인의 역할을 해준다. 이들의 지식과 경험에서 특히 중소기업들은 공짜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2.3. 기회자본(모험자본)과 참여자본의 구축(확대)

많은 성장집약적이며 혁신적인 기업들은 급성장하는 참여자본 시장의 가능성을 이용한다. 연방 독일 자본 참여 협회에 의해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1999년 새로 시작된 자본참여의 20% 이상이 신연방주의 기업에 투입되었다. 이것은 지난해 13억 1,400만 마르크로 1998년 5억 7,000만 마르크를 새로 승인한 것의 두 배 가량에 해당되는 것이다. 신연방주가 현존 자본에 참여하는 전체 규모의 비율은 이로서 기뻐할 만 하게도 90년대 초 낮은 수준에서 1999년 말 18.3%로 높아졌다. 모험자본 시장의 이러한 급격한 발전은 연방정부의 지원정책의 새로운 구상을 통하여 촉진되었다. 이렇게 하여 1999년 초 ERP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은 자본참여를 위해 개방되었고. 이것을 통해 이미 출발하는 해에 신연방주에서의 계획을 위해 2,600만 마르크 승인 규모의 자금이 쓰여질 수 있었다. 이외에도 FOUTOUR 프로그램에서 혁신적인 창업자들을 위해 4,700만 마르크의 참여자본이 준비되었다.

이외에도 동독 자본 참여기금으로서 위험자본을 위해 널리 쓰일 수 있는 보충자금이 마련되어 있다. 세금할인을 받아 개인에게서 얻은 자금은 독일 변제은행과 재건 은행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책임자금을 강화하기 위해 쓰여진다. 강

조할 것은 이러한 자본이 특히 인적자본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치, 예를 들면 제품개발, 시장개척 혹은 경영 자질강화를 위한 조치들 같은 데 광범위하게 쓰여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이로서 소위 “유연한 투자(weiche Investitionen)”도 물적 투자와 마찬가지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투입도 혁신분야에만 제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1999년 6월부터 성장 집중적인, 임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기업이 참여자본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확대되었다. 독일 변제 은행의 자매회사인 “gbb 자본참여 주식회사(gbb Beteiligungs AG)”는 ‘동독 기업을 위한 새로운 공고화와 성장을 위한 기금’의 범위 내에서 2억 5,000만 마르크를 내놓고 있다. 각각의 연방주들은 약 1억 7,000만 마르크로서 참여하였다.

이렇게 하여 1999년에 연방의 참여 프로그램은 아주 광범위하게 새로운 기업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었다.

2.4. 판매지원과 수출지원

더 많은 판매 가능성과 특히 새로운 판매시장을 여는 것은 성공적인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전제조건이다. 최근에 특히 이 분야에서 엄청난 성장률로서 몇몇 성공이 달성될 수 있었다. 제조업의 수출비율은 지난해에 아직 18.7%이었던 반면 2000년 전반기에 20%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여기에는 연방의 수출 지원 프로그램도 한 몫을 하였다. 신연방주의 많은 중소기업과 특히 새로 건립된 많은 기업들에게는 자신들의 생산품의 지역외 판매가 여전히 중대한 도전이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종종 적극적인 마케팅이나 외국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합당한 재정적인 자본이 없고 부분적으로는 노하우나 자질을 갖춘 인력도 부족하다. 중요한 판매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한 해외투자는 신연방주의 기업들에게는 아직도 여전히 사소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연방의 수출 지원 프로그램으로 집중적인 도움이 제공된다. 예를 들어 사업

대 사업 분야(businiss-to-businiss-Bereich)나 인터넷을 통한 사업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다루는 일 또한 점점 더 중요해 진다.

그러므로 '노동, 교육, 경쟁력을 위한 연대(동독 재건을 위한 협력)'의 범위 내에서 동독 기업이 생산품의 지역외적인 판매와 서비스를 할 때 이를 도울 수 있는 일련의 다른 조치와 자발단체가 결성되었다. 연방과 주와 기업의 활동은 공급자토론과 마케팅 원조에서부터 수출 협력의 지원, 외국주재 상공회의소에의 지원을 포함하여 국내와 국외에서의 전시회 참여에 대한 지원에 까지 이르고 있다. 2000년 9월 베를린에서 열린 공동 회의에서는 합의된 조치에 대한 경험과 진행상태에 대해 보고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1.4와 제3장 1의 연대 협약에도 나와 있다.)

2.5. 수공업 강화와 지불 윤리의 개선

수공업은 통일 이후 능력 있고 경쟁력 있는 중산층 구조의 건설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수공업 분야 기업은 급격히 증가하여 오늘날 약 126,000개에 달한다. 이렇게 하여 수공업 밀도(1,000명의 주민당 기업의 숫자)는 구 연방주의 수준과 동일하게 되었다. 신연방주에서 높은 조세 감면으로 지원된 건설붐으로 이 경제 분야가 전체 서비스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서독보다 근본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동독에서 건설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몇 년 전부터 현저하게 감소된 이후로 구조적인 적응과정이 시작되었는데 이는 오늘날까지도 완료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연방정부는 현재 그리 간단하지 않은 처지에 있는 신연방주에서의 수공업을 경제 정책적인 계획이나 법개정 시에 수공업계의 이익을 특별히 고려하고 중산층 지원의 범위에서 이행능력과 경쟁력을 계속 강화시킴으로서 지원하고 있다.

여러 가지 기업세 개혁은 주로 중소 수공업 기업의 부담을 현저하게 경감시

켜 줄 것이다. 기본 면제액의 인상, 혹은 최저세율의 경감, 혹은 영업세의 총체적인 산정을 통하여 독일에서의 수공업과 중산층은 2005년까지 총 180억 마르크의 부담을 덜 것이다.

그 외에도 연방정부는 직업 교육과 재교육을 직접 원조하거나 혁신과 기술이전 혹은 상담, 교육, 정보제공 조치를 직접적으로 원조함으로서 수공업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금년에 독일에는 총 약 2억 900만 마르크 규모의 예산을 쓸 수 있다. 이 지원은 거의 대부분 특히 직업 재교육소의 설립에 있어 보충에 대한 수요가 계속 존재하는 신연방주에 투입된다.

신연방주에서의 수공업은 엄청난 규모로 연방의 ERP 프로그램으로부터 나오는 이율이 유리한 대출을 이용하였다. 1999년에 수공업자들은 전체 약 4억 6,000만 마르크 규모의 1545개의 ERP 대출을 받았다. 주로 창업을 위한 투자나 혹은 기업의 확장이나 인수를 위한 투자가 지원되었다.

2.5.1. 지불윤리의 개선

일반적으로 더 나빠진 위임인의 지불태도는 지난 몇 년간 주로 동독 건축수공업자들의 존재를 위협하는 파산의 골목길로 내몰았다. 그러므로 연방의회는 연방정부의 주도하에 해당 기업의 법적 위치을 명백히 개선시키는, 기한내의 지불을 더 가속화하기 위한 법을 통과시켰다. 이것은 2000년 4월초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새로운 법의 중요한 목표는 건축수공업자와 위임인 사이의 이해의 정당한 조정에 있다.

이 법은 만기된 요구사항을 관철하는 것을 일련의 핵심적인 요점에 있어 개선시키고 있다. 앞으로는 이 계산이 시작된 후 30일이 경과되면 경고 없이도 지체가 되는 것이다. 지체이자는 기본이자율에다가 5% 더 인상되고 이로서 지체하면 잘못한 채무자에게 그 결과가 나타난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된다. 그 외에도 부분이행에 대한 분할 지급을 요구 할 수 있고, 수령은 근본적인 하자가 있

을 때만 거부될 수 있다. 종료확인 절차로 기업은 혹시 있을 수 있는 주문자의 하자고지를 법적인 절차 앞에서 빠르게 해명하고 서류심사에서 절차기한이 오래 걸리지 않고 빨리 집행타이틀에 도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을 손에 쥘 수 있게 되었다.

3. 중점 과제 : 이노베이션 강화, 산업망 확대

동독 대학과 연구시설들은 최근에 잘 발달하였다. 수많은 연구소들은 오늘날 연구에 있어서 최상위권에 속하고 국제적인 비교를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 기업과 연관된 연구에 있어서도 몇몇 긍정적인 발전이 있다. 예를 들면 1995년에서 1998년까지 신연방주에서의 특허 신고의 수가 거의 1/3 정도로 성장했다.

이러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동독 기업들의 혁신력은 국제적인 기술경쟁에 비추어 볼 때 여전히 상대적으로 미미한 편이다. 여기에는 다른 요소 이외에도 90년대 초의 산업연구가 급격하게 진입한 원인이 오늘날까지도 미친다. 연구 집약적인 산업 비율은 겨우 전 생산의 1/3 수준이다. 현재에는 연구를 특히 중소기업에 집중시키고 있다. 연구인력의 60%는 직원이 100명 보다 적은 기업에 종사하고 있다.

원조정책에 있어서의 새로운 역점

그러므로 연방정부는 연구와 개발(FuE)분야와 여기서 다시금 기업과 관련된 연구의 원조에 특별한 중점을 두고 있다. 여기에 계속해서 일련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가진 연방의 원조정책의 중점이 놓여있다. '노동, 교육 및 경쟁력을 위한 연대'의 범위 내에서도 동독 경제의 혁신력이 성장과 고용 확대를 위해 전략적인 의미를 지닌다는 것이 인정된다. 그래서 사회적 협조자들은 동독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일련의 구체적인 조치들에 합의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1.4를 보라. 그리고 제3장 1의 노동을 위한 연대의 신연방주에서의 혁신잠재력

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의 선언의 문구를 보라)

기업과 밀접한 연구의 성과와 대학과 연구기관에서의 전체 연구환경을 계속 확대하기 위하여 연방정부는 4가지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이 분야란:

- 기업과 밀접한 연구의 확대
- 연구영역과 기업영역의 지역적인 협동의 발전
- 대학과 전문대학의 집중적인 지원
- 신연방주에서의 학문과 연구 센타의 구축

또 다른 중점은 기업과 연구기관의 협력에 놓여 있다. 혁신적인 산업망에 대한 원조는 몇 개의 새로운 지원 프로그램의 도움으로 적극적으로 지원된다. 이때 적용된 원조 개념과 경쟁절차는 신연방주의 한계를 넘어 관심을 집중시켰다.

3.1. 기업과 밀접한 연구

긍정적인 발전 경향을 정착시키고 가속화시키기 위하여 연방정부는 동독 산업연구에 대한 지원을 계획된 중기적인 지원 구상의 틀 안에서 높은 수준으로 지속시키기로 결정하였다. “신연방주에서의 연구, 개발과 혁신의 지원”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은 외부 산업연구와 혁신적인 중산층을 위한 ‘연구와 개발(FuE)’ 프로젝트 지원과 인력지원의 프로그램 틀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2004년까지 높은 수준으로 계속될 것이다.

1999년 말까지 이 기준이 되는 프로그램 틀 안에서 약 4,300개의 기업이 약 24억 마르크 수준의 자금을 지원 받았다. 산업 중산층의 동독 기업 중 1/4 이상이 이 지원 가능성을 이용하였다.「연구와 개발」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으로 서비스 기업이나 소규모 자영 회사와 외부 산업 연구시설들의 연구계획이, 부가가치가 높고 위험부담이 많지만 시장중요도가 매우 높은 이노베이션을 현실화시키고 국제적인 이노베이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원된다. 2000년에는

「연구와 개발」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해서 약 1억 7,500만 마르크 수준의 원조가 약 500개의 기업을 위해 계획되어 있다.

'연구와 개발' 프로그램의 인력 지원으로 생산제조업의 중소기업의 연구 및 개발인원이 함께 지원된다. 이로서 기업들은 자신들의 혁신 잠재력을 시장의 요구사항에 탄력성 있고 수요에 합당하게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적 프로그램을 위해 2000년에는 약 1,200개의 기업을 위해 약 6,500만 마르크 규모의 지원이 예정되어 있다.

신연방주에서의 산업연구를 위해서는 연방 전역에 걸친 프로그램인 "산업 공동연구"로부터 엄청난 자금(1999년까지 3억 8,500만 마르크)이 준비되었다.

지원 프로그램인 FOTOUR 2000으로서 연방정부는 신연방주에서의 기술 지향적 기업설립에 대한 원조를 계속하고 있고, 이로서 그 다음의 200 하이테크 설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이때 FOTOUR 2000은 전 연방에 걸친 기술 프로그램인 "소규모 기술기업을 위한 자본참여" 와 밀접하게 연계되고 더욱 효과적으로 구성된다. 이 프로그램은 혁신적인 기업으로 하여금 최첨단의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데 이러한 최첨단 기술은 경쟁력 있고 미래전망을 가진 기업구조를 위한 전제조건이 될 것이고 이로서 미래보장적인 고급 일자리를 마련하게 된다.

1999년 6월 시작된 연방에 걸친 프로그램인 "PRO INNO"로 기업끼리의 연구가 지원되고 일정 기간의 인력교환을 포함해서 국내와 국외의 연구 시설로 지원된다. 이 프로그램은 짧은 시간에 혁신에 대한 지원의 가장 중요한 틀이 되었는데 특히 동독의 중산층의 경제를 위해서도 그러했다. 지금까지의 산정은 신연방주 출신의 기업과 외부 산업연구 기관의 비율이 명백하게 50%를 훨씬 윗돌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2000년에는 동독에서만 앞으로 750개 이상

의 [연구 개발 프로젝트]가 승인될 수 있을 것인데 이중 개발단계에서만 적어도 일년에 3,000명의 고용인이 일하게 될 것이다. 경계를 넘나드는 협동프로젝트, 특히 동독기업과 동유럽에서의 협동파트너 사이의 협동프로젝트 또한 다이나믹하게 발전하고 있다.

서로 다른 담당의 연구기관과 중산층 경제 사이의 연결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인 INNONET 에도 신연방주의 참가자 비율이 약 50%로 높다. 최초의 자금은 2000년에 승인되었다.

3.2. 지역적인 산업망과 기술이전의 확대

모티베이션과 창조력과 능력은 교육과 연구기관, 기업, 정치, 행정, 협회나 단체 및 사회파트너등 각계에서 온 여러 종류의 사람들의 긴밀한 협력하에 잘 펼쳐질 수 있다. 특히 지역적인 차원은 그러한 여러 분야에서 온 활동인들의 결성에 적절하다. 연방정부는 특히 그러한 네트워크 사이에 경쟁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협동구조의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3.2.1. InnoRegio - 지역을 위한 혁신적인 동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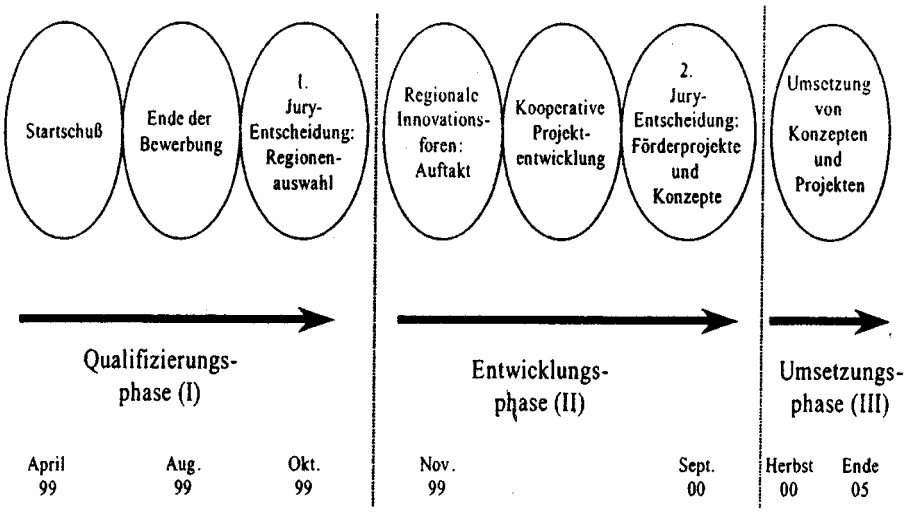
연방정부는 1999년 신연방주를 위한 자발단체 “InnoRegio -지역을 위한 혁신적인 동인”을 활성화시켰다. InnoRegio의 목표는 교육기관과 연구기관 및 경제, 행정 사이의 협동의 새로운 형태를 통하여 지역 경제의 발전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Inno Regio로 동시에 새로운 종류의 지원 개념이 발견되었는데 이것은 단계적인 경쟁 절차를 통해 사람들의 창조력과 주체적 자발성 및 자발적 조직에의 능력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테마와 참가자가 자유로운 경쟁에 참가했던 444개의 지역적인 자발단체 중에

서 자유로운 배심원에 의하여 25 개의 "InnoRegio"가 선정되었는데 이들은 발전단계 (InnoRegio-2단계: 1999년 11월에서 7월까지)에서 자신들의 지역을 위한 세밀한 혁신개념을 만들어 낸다. InnoRegio 의 실현단계 (3단계: 2000년 11월부터 2005년까지) 에서는 지역에서 가치창조와 경쟁력과 고용상황을 개선시키는데 기여하는 자립적인 자발단체와 구조들의 건설과 확장에 주력한다. InnoRegio를 위해 2005년까지 연방교육과학부 예산에서 총 5억 마르크가 준비되어 있다.

《시간적인 경과》



이렇게 하여 25개의 시범적인 InnoRegio 지역의 범주에서 경쟁의 2단계와 3단계에서 지원될 수 있는 것 보다 훨씬 많은 수의 신연방주에서의 지역발전을 위한 아이디어와 이니셔티브에 도달하였다. 이러한 시도중 많은 부분은 주차원에서 검토되고 여러 연관되어 있는 지원활동에 관련되었다. 연방교육과학부는 InnoRegio대회의 결과에 관계없이 혁신지원의 틀 내에서 신연방주에 있는 지역들을 그 혁신적인 발전에 있어서 계속 시범적으로 지원하려고 한다. 지역적인 개혁지원을 부각시키는 길에 있어서 다음의 가능한 단계로 주와 지역적인 업무담당자와의 협력을 통한 분야 관련적이며 기술관련적인 혁신논의를 실행하는 것이 검토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연방교육과학부 지역적인 혁신지원을 위한 조

정자를 두었다.

3.2.2. 인터넷 플렛폼 : www.kompetenznetze.de

다른 주도적 노력으로 연방정부는 또한 연구풍토의 주역들 사이에 네트워크 연결을 지원한다. 그러한 노력은 예를 들면 BioRegio, MedNet, 의료기술을 위한 센터, 미세기술을 위한 센터와 선도연구과제, 그리고 혁신적인 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Exist에 대한 공고이다. 이러한 연구센터에 많은 대학 밖의 연구기관이 참여한다.

언급되어야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연구 네트워크이다: 튀링엔의 안과학혁신센터, 로스토크 대학의 인간의 Proteomanalyse 선도과제, 베를린 훔볼트 대학의 Phamagogenetik 선도과제, 체계적인 염증과 류마티스병에 대한 MedNet, 드레스덴의 Intermobil 선도과제, 예나의 BioRegio, BioChance "Probiodrug"

2000년초 이래로 독일의 주요한 네트워크는 인터넷의 평면에 kompetenznetze.de에 나타나 있다. 처음에 나타난 네트워크는 신연방주에서는 예나의 BioInstrumente와 작센의 미세기술센터인 “초박 기능층 (Ultradünne funktionale Schichten)”, 베를린-브란덴부르크의 BioTop 그리고 예나의 Optic Valley이다. 드레스덴과 예나에서 연구자, 기업, 교육기관 그리고 서비스제공자를 네트워크에 모아서 그들의 기능을 모았다 (공동의 사무처, 학제간 공동작업, 전문 세미나, 시장분석, 창업상담, 공동의 연구과제).

3.3. 대학의 지원

3.3.1. 대학특별 프로그램 III (HSP III)

지난 몇 년 동안 대학특별프로그램 III으로 신연방주에서 대학분야에서의 구조가 뚜렷이 향상되었다. 중점으로는 특히 전문대학의 계속적인 발전, 유럽간

혹은 국제적인 협력, 대학과 대학외의 연구기관들의 학문적인 후계자들에 대한 지원, 특히 연구와 강의분야의 여성들에 대한 지원 등이다. 신연방주를 완전히 통합한 대학특별 프로그램 III는 2000년 말까지 진행된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범위 내에서 신연방주에서의 대학과 학문의 지원을 위해 연방과 주를 통하여 약 8억 6,300만 마르크가 공급될 것이다.

이 프로그램이 끝나면 지원은 특정한 중점에만 집중될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연방과 주의 정부고관들이 1999년 12월에 합의하였다. 이들의 합의에 따르면 미래의 지원은 6개의 특별한 전문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다.

- 신연방주와 베를린에서의 혁신적인 연구구조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 대학교에서의 강의에 응용하기 위한 새로운 미디어에 대한 지원 및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
- 연구와 강의에 있어 여성들의 기회균등을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 전문대학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 대학분야에서의 구조적인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 졸업생을 위한 과정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대학교 분야에서도 네트워크가 가능》

“신연방주에서의 혁신적인 연구구조의 지원”이란 전문프로그램의 틀 내에서 대학끼리의 연구연대나 대학과 대학외의 연구기관이나 기업의 연구기관 사이의 연대들이 강화되었다. 이때는 참가자들 사이의 더욱더 긴밀한 인력교환이 중요하다.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2003년까지 우선 총 1억 5,000만 마르크가 준비되어 있는데 각각 반까지는 연방과 신연방주에서 부담한다.

지원기한은 2006년까지로 되어있다. 2001년 초부터 2003년 말까지의 기간 중에는 연방과 주 공동으로 준비한 9억 7,200만 마르크를 쓸 수 있다. 2002년에는 교육계획과 연구지원을 위한 연방과 주의 공동위원회에서의 검토의 토대 위에

나머지 기간을 위한 지원목표와 지원규모가 확정된다.

3.3.2. 대학건축에 대한 지원

1999년 연방정부는 공동과제 '대학건축'을 위한 자금으로 약 2억 마르크를 인상하였다. 인상된 표제시도는 2000년도에도 신연방주와 구연방주에서의 대학의 경쟁력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계속되었다. 이때 특히 신연방주에서는 구동독 시절 심하게 방치된 건물을 개선시키고 새로운 건물을 세우거나 현대적인 외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대학건축지원을 위한 연방의 시도를 확실하게 인상함으로서 2000년에도 약 6억 5,000만 마르크(이것은 전 대학건축비의 약 30%에 해당한다)가 신연방주를 위해 쓰여질 수 있다. 연방정부는 중기적으로 인상된 예산비율을 계속 유지시킬 의도인데 이는 특히 신연방주에서도 건축상황을 가까운 미래에 계속 향상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여기에는 1997년 이후로 존재하는 가능성, 즉 특정규모 내에서 제 3자를 통해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 계획도 추가로 대학건축을 위한 지원계획에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신연방주는 이러한 가능성을 엄청난 규모로 이용하였다. 신연방주에서 제 3자를 통한 공동재정지원에 맡겨진 계획에 든 건축비용은 29번째 기본계획의 상태에 따르면 11억 6,000만 마르크에 이르고 연방전체로는 총 20억 2,000만 마르크에 이른다. 다른 선택적인 재정적 지원을 이용함으로서 현재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회복에 대한 필요를 공적인 예산의 도움으로만 가능한 것보다 훨씬 일찍 충족된다.

2000년에서 2006년까지의 지원기간을 위한 유럽공동체의 구조기금과 응집기금에 관한 협상의 범위 내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유럽기금의 자금을 신연방주의 대학 건축조치나 기술적인 장비설치를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마련

되었다.

3.3.3. 국제적인 대학협력

지난 몇 년간 동독의 대학들은 지속적으로 국제적인 협력관계를 맺어왔다. 동독의 대학들은 중부유럽과 동부유럽에 대한 자신들의 전통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발전시켰다. 동시에 이들은 국제적인 감각의 학위프로그램이나 연구프로그램을 서유럽과 외국의 대학들과의 수많은 협동을 통해서 새로이 마련하였다. 동독의 대학들은 이렇게 하여 그간 긴밀하게 국제적인 대학공동체 및 연구공동체와 연관관계를 맺고 있다.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연방정부는 총 480만 마르크를 Slubice에 있는 Collegium Polonicum의 Europa-Fellow를 위한 장학금 설립에 지원한다. Collegium Polonicum은 Frankfurt(Oder)의 Viadrina유럽대학과 Poznan의 Adam-Mickiewicz대학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계를 초월하는 학문적인 기관이다.

그 동안 신연방주의 대학들이 성공적으로 국제적인 공동체와 연관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은 예를 들어 금년부터 Ilmenau 공과대학이 Supraleitung을 위한 유럽 네트워크인 “Scenet”에 참여하게 된 것에서도 드러난다. “Senet”으로 전세계적으로 Supraleitung의 분야에서 유럽경제의 경쟁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 네트워크는 유럽의 국가 연구기관 혹은 대학의 연구기관 혹은 산업 연구기관을 서로 연결시키고 그 외에도 모든 다른 참여분야로부터 온 그룹들의 기초연구와 응용연구를 위한 장을 제공한다.

3.3.4. 신연방주에서의 대학연구

동독의 대학시스템과 연구시스템의 새로운 구성을 위해 의미심장한 기여를 한 것은 Halle-Wittenberg에 있는 마틴 루터 대학의 연방과 작센안할트 주에

의해 공동으로 건립된 Wittenberg 대학연구을 위한 연구소이다. 여기서는 대학에서의 개혁과정을 위한 기초가 연구된다. 이를 위해 전 연구소를 망라하는 연구역점인 “대학에서의 질적 발전”이 개발되었다. Wittenberg의 대학연구를 위한 인스티튜트는 대학과 대학발전 및 대학교육에 관한 연구를 업무로 하는 신연방주에 있는 최초의 학문적인 기관이다.

3.4. 연구구조와 혁신구조의 강화

3.4.1. 연구인프라 구조의 확장

신연방주를 위한 연방정부의 혁신정책적이고 연구정책적인 공세에 있어서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동독 연구센터의 건립과 현대화이다. 그러므로 2000년도 예산에서는 여기에 대해 훨씬 더 많은 자금이 지원된다: 독일 연구재단에 대해서 (1998년에 비해서 20.4% 이상 인상), Helmholtz 센터에 대해서 (1998년에 비해 6.53% 이상 인상), Frauenhof 재단에 대해서 (1998년에 비해 60.3% 이상 인상), 그리고 막스 플랑크 재단에 대해서 (1998년에 비해 약 32.4% 이상 인상). 이로서 다음과 같은 목표설정이 현실화될 수 있다:

- 신연방주에서의 막스 플랑크 재단 (MPG) 시설의 확장이 빨리 진행될 수 있다. 이로서 막스 플랑크 재단은 신연방주에서 조만간 서독과 완전히 비교할만한 수준으로 대표될 수 있을 것이다.
- 신연방주에서의 프라우엔호프 재단(FhG)시설의 확장 (18개의 시설, 그중 9개의 독립적인 연구소, 4개의 부분연구소 및 5개의 분소)도 잘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프라우엔호프 재단은 Rostock에 생산기술 분야의 거대구조를 위한 응용센터와 Ilmenau에는 전기 미디어기술을 위한 전문그룹은 오늘날 이미 신연방주에서의 시설들과 비견할만하다.
- 네트워크의 구축과 대학연구와의 협동을 통하여 그리고 막스 플랑크 재단과 프라우엔호프 재단 및 특별연구영역에 대한 여러 방면의 참여를 통하여 33개의 [청색 목록의 연구소들]은 연구능력을 강화시키고 혁신적인 동

인을 제공한다. 2000년에 연방과 주들은 6억 7,400만 마르크 이상을 이 연구소를 위한 지원금으로 준비해놓고 있다.

· Helmholtz 센터 (HGF) 는 점차 강화되는 국제적인 프로그램과의 연계가 강조하듯이 연구와 개발 및 지식과 기술전이에 있어서의 자신의 업무를 계속 성공적으로 감지하고 있다. 경쟁절차에 있어서의 이들의 성공적인 참여는 특히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 드러나는데, 즉 포츠담의 지질연구센터 (GFZ), 베를린 부흐의 Max-Delbrück 센터 (MDC) 와 라이프찌히 할레의 환경연구센터 (UFZ)가 HGF 전략기금의 범위 내에서 다른 국가적인 파트너기관과의 협력 프로젝트를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다.

3.4.2. 기술지향적인 경쟁센터

투자를 둘러싼 글로벌한 경쟁에 살아남으려면 국제적으로 가시적인 경쟁센터에 희망을 걸어야 한다. 신연방주에는 그러한 지역적인 센터가 이미 드문드문 형성되었다. 이러한 발전은 연망을 통하여 지원된다:

· 환경연구에의 역점

독일에서의 환경연구는 신연방주에서의 환경연구 소재지들(라이프치히-할레의 환경연구센터 (UFZ), 라이프치히의 열대지역연구, 포츠담의 기후의 영향연구를 위한 연구소, 로스톡-바르네뮌데의 Ostsee 연구를 위한 연구소) 없이는 생각할 수 없는데 이에는 연방의 제도적인 원조자금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여기서 강조할 만한 것은 예를 들어 유엔 사막을 위한 분과 (Wüstensekretariat)에 의해 진행되는 프로그램 “Combating Desertification"의 틀 안에서 라이프치히-할레 환경연구센터의 연구들이다. 또한 1,100만 마르크으로 지원되는 연합프로젝트인 SAFIRA (Sanierungs-Forschung In Regional kontaminierten Aquiferen) 또한 지적할 만하다.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에는 비터펠트 지역에 현대적인 연구파일럿시설 (Forschungs- pilotanlage)이 가동되었다. SAFIRA는 UFZ에게는

지하수정화의 분야에 있어서는 주도적인 권한을 잡기 위한 하나의 결정점이다.

· 바이오 테크닉에의 역점

바이오테크닉을 위한 연방정부의 프로젝트 지원자금의 약 27%가 신연방주로 유입된다. 특히 강조할 만한 것은 베를린-브란덴부르크지역과 예나지역인데 여기서는 현재 새로운 바이오 테크닉 기업의 설립 붐이 일어나고 있다. 독일 인간 게놈 프로젝트 (Deutsche Humangenomprojekt: DHGP)의 범주 내에서와 새로운 지원프로그램 BioChance(지금까지 신연방주에서 3개의 기업)로부터의 설립이 이러한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언급할 만한 것은 예나의 분자생물공학연구소(Institut für Molekulare Biotechnologie: IMB) - 이것은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센터로 발전하였다 - 에 있는 Sequenzierzentrum 이다.

식물바이오테크닉 분야에 있어서의 중점은 가스터레벤, 할레, 골름와 그라이프스발트/로스톡 지역에 놓여 있다. 'BioFuture 프로그램'의 틀 안에서 지금까지 지원된 총 32개의 후진양성그룹 중에서 신연방주에서 9개의 그룹이 일하고 있다.

· 마이크로 전기에의 역점

연방정부가 프랑크푸르트/오더 에 있는 반도체 물리학 연구소 - 이것은 1999년 말에 넘어갔다 - 의 신축에 재정적으로 참여함으로서 연방정부는 마이크로 전기 분야에 있어서 신연방주를 위한 하나의 이정표를 세웠다. 새로운 건물은 마이크로 전기 칩의 생산을 위한 초현대식 시설 (라인스트라움)을 포함하고 있다. 총 1억 2,800만 마르크의 비용은 연방과 브란덴부르크주와 유럽연합이 (EFRE 자금으로)부담하였다.

반도체 물리학 연구소는 모토로라 회사와 함께 이후 헨디 세대들을 위한 새로운 종류의 칩과 이동 가능한 인터넷을 개발하고 있다. 새로운 건물과 기술적

인 가능성과 연구소의 우수한 연구원들로서 반도체 물리학 연구소는 점점 더 코트부스 기술대학의 대학 내 연구와 산업 사이의 회전축이 되고 있다.

1998년에 시작된 '300 mm 프로젝트'의 틀 안에서 드레스덴에서는 지멘스(지금은 인피네온)와 모토롤라에 의해서 조인트 벤처 세미 컨덕터 300에서 2001년까지 미래의 칩공장을 위한 기술적인 전제조건이 마련되었다. 모토롤라 회사로 세계적인 미국 반도체 생산자가 중요한 노하우 담당자로 연계될 수 있게 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연방정부에 의해서 약 2억 5,000만 마르크로 지원된다. '300 mm 프로젝트'의 목표는 300 mm 실리슘 조각을 기초로 해서 칩생산을 위한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300 mm 프로젝트'는 현재 유럽에서 가장 큰 전자연구 프로젝트이다. 이로서 독일과 유럽은 적극적으로 마이크로 전기 미래의 발전을 최상단의 위치에서 함께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예를 들어 소재지 드레스덴에는 새로운 전망이 열리고 있다. 지금까지 매우 성공적인 프로젝트로 인하여 그리고 연구결과의 토대 위에 건설적으로 2000년 3월에 인피네온 회사는 300 mm 제작의 현존 생산량을 확대하기로 하는 발표를 하였다. 이를 위한 투자비용은 25억 마르크에 달한다. 국민 경제적으로 볼 때 이로서 지속적으로 6,000개의 일자리가 확보되고 창출될 수 있다. 그 중에서 5,100개는 드레스덴 지역에서 가능하다.

· 레이저 및 플라스마 연구

레이저 연구의 선별된 분야에서 동독의 연구소들은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이것은 특히 레이저광선 물질대체효과(드레스덴, 할레 로스톡), 레이저광선 광학(예나), 및 Höchstfeld- und Ultrakurzpulslaser(국제적으로 탁월한 응용실험실을 가진 베를린의 막스 보른 연구소)분야에 해당된다. 그 외에도 신연방주에서는 연방정부에 의해서 지원되는 레이저기술을 위한 실험 및 상담센터 10개중의 4개가 이러한 혁신적인 기술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중소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다.

저온 플라스마 연구는 그라이프스발트 소재지에 집중되어 있다. 연방과 멕클

렌부르크-포어폼머른 주는 지난 해 공동으로 110개의 일자리를 가진 저온 플라스마 물리학 연구소의 신축을 약 30백만 마르크의 비용으로 실현시켰다. 매년 약 5백만 마르크로 연방 교육과학부는 이 분야에 있어서 여러 응용분야, 즉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기술, 자료처리기술, 플라스마화학, 환경기술, 에너지기술 및 의학기술 같은 응용에 초점을 맞춘 기초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원천과 환경을 보호하는 플라스마기술을 통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독일 기업의 경쟁위치를 강화하고 지역적인 소재지의 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해결책이 마련될 것이다.

3.4.3. 유럽연합 구조기금의 투입

대학 밖의 연구기관을 포함한 연구 및 개발능력의 강화는 경제에 있어서의 혁신 잠재력의 개발, 학문과 경제 사이의 기술이전 및 기술 지향적인 기업설립에 점점 더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발전에는 1994년에서 1999년까지의 지원 기간 사이에 이러한 지원을 위해서 유럽 구조기금, 특히 지역발전을 위한 유럽연합 기금(예를 들면 프랑크프르트/오더의 반도체 물리학 연구소)에서 나온 엄청난 자금이 투입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2000년에서 2006년까지의 지원기간을 위한 전략은 응용지향적인 연구인프라구조와 기술인프라구조를 중요한 경제발전의 요인으로서 계속적으로 강화시키고 인프라구조적인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한 전제조건은 “독일에서의 공동의 지원컨셉트 목표 1과 목표 1 과도기 지원”을 통과시킴으로서 마련되었다.

4. 인프라구조의 계속적인 확대

4.1. 교통인프라구조의 질적인 확대

연방정부의 중심적인 목표는 교통구조를 질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때 동

독에서의 교통도로의 새로운 건설과 확대에 특별한 의미를 두고 있다. 1999년 이전 정부에 의해서 수립된 연방교통도로 계획은 현실적인 기초를 전혀 갖고 있지 않았다. 목록에 올려놓은 프로젝트는 오히려 하나의 소원을 적어놓은 리스트와 비슷했고 진지한 재정지원은 없었다.

그러므로 동맹연합정권은 1998년 10월에 당시 유효한 1992년의 연방교통도로 계획을 다시 재검토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단계에서 연방주와 지역단체가 건축경제 계획의 확실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계획이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연방철도, 연방간선도로 및 연방수로를 위한 투자프로그램”에서 합쳐졌다.

그 외에도 교통도로계획 가속화법이 계속적으로 프로젝트들의 조속한 실현을 보장하기 위하여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다.

4.1.1. 연방교통도로 계획의 재검토

1992년의 연방교통도로계획 (유효기간은 2010에서 2012년까지)은 명백하게 엄청난 결함을 갖고 있다. 재정지원 범위는 비현실적이고 프로젝트 비용도 더 이상 실제적이지 못하며 교통진단의 기초로서의 각본은 너무 오래되었고, 진단은 너무 낡았으며 방법적인 평가기준은 재검토가 필요한 형편이다. 그 결과로 이러한 결함의 수정은 프로젝트들을 검토함에 있어서 - 긴급히 필요로 하는 프로젝트들에 있어서도 - 변화된 평가단계를 가져올 수 있다.

경제적이고 환경적인 목표를 실행에 옮기기 위하여 교통도로와 교차장소에 대한 투자는 광범위한 교통컨셉트에 통합될 수 있는데 이것은 가능한 육상교통과 항공교통의 가능한 많은 부분을 철도와 수로로 옮길 수 있는 전제조건을 마련한다. 이에 대한 요구사항으로는 특히 지속적으로 환경친화적인 유동성에 대한 보장, 지속적인 공간구조와 거주지역구조에 대한 지원 및 모든 교통담당자들을 위한 공정하고 비교가능한 경쟁조건의 마련 같은 것이 속한다.

특히 생태, 공간질서, 도시건설을 고려하는 평가방법의 현대화를 위하여, 그리고 인적교통과 물적교통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열고 완성하기 위하여 또한 2015년 새로운 계획의 지평을 위한 진단 시나리오의 개발을 위하여 전문적인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구조 데이타 진단은 이미 나와 있는 상태다. 현대화된 방법과 현실적인 교통진단이 제때에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수요계획 철도, 육로와 수로의 영역에서의 실제적인 발전 및 통합된 교통정책, 공간질서정책과 도시건설정책의 중요한 교통 정책적인 측면을 검토한 결과와 함께 이것은 "2000년도 교통보고서"에서 광범위하게 명시될 것이다.

현대화된 평가방법, 교통 정책적인 시나리오, 새로운 진단 결과로서 프로젝트 평가가 이루어진다. 이 평가의 결과는 재정적인 가능성과의 조정 후에 새로운 연방교통도로계획의 설계를 위한 기초가 된다. 주와 연방 전문국과의 의견조율 후 그리고 전문가 집단과 협회들의 의견을 들어 본 후에 연방내각은 이 회기기간 내에 이 평가결과와 상대해야 한다.

4.1.2. 1999년에서 2002년 사이의 연방철도, 연방간선도로 및 연방수로를 위한 투자프로그램

연방정부는 1999년에서 2002년까지의 연방철도, 연방간선도로 및 연방수로를 위한 투자프로그램 (여기서는 투자프로그램 (IP)라고 부른다) 에서 이미 실행되고 있는 계획 및 2002년까지 시작되어야 하는 모든 재정지원되는 계획을 총괄하여 명시하였다. 이 프로그램으로서 4계절 기간에 재정적 지원이 확실히 마련되어야 한다.

투자프로그램 (IP)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전제조건을 갖고 있다 :

- 건설 중에 있는 프로젝트를 중단하지 말 것.
- 도로와 철도를 위한 투자지원금이 단계적으로 서로 균등화되도록 정치적인 목표 설정을 완성하는 것.

· “독일 통일” 교통프로젝트 (VDE)에 대한 우선권은 계속 보장된다.

투자프로그램은 약 674억 마르크의 전체투자규모를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 신축조치와 확대조치에 약 360억 마르크가 지급된다. 나머지 자금은 교통인프라구조의 유지를 위해 사용된다.

아주 우선권을 가진 조치를 위한 총 645억 마르크의 자금은 신연방주를 위해 마련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마련되어 있다.

· 연방철도에 새로운 건설과 확장 및 대체와 유지를 위해 투자금의 45%를 쓸 수 있다.
· 연방간선도로에 있어 새로운 건설과 확장을 위해 투자금의 60%를 쓸 수 있다.
· 연방수로에 있어 새로운 건설과 확장 및 대체와 유지를 위해 투자금의 43%를 쓸 수 있다.

이로서 신연방주에서의 교통인프라구조에 대한 투자는 그 이전과 마찬가지로 높은 수준으로 계속된다. ‘독일 통일 교통프로젝트’를 위해서만도 1999년부터 2002년까지 133억 마르크가 계획되어 있다. 이것은 독일 통일 교통프로젝트의 전체투자금의 약 20%에 해당되는 비용이다.

연방프로그램 [교통인프라]

연방정부는 1999년 5월에 신연방주를 위하여 (목표 1) 2000년에서 2006년까지의 유럽 구조기금의 틀 안에서 교동인프라구조라는 연방프로그램을 제정하였다. 연방프로그램은 유럽연합 구조기금의 자금과 함께 2000년에서 2006년까지의 지원시기에 약 30억 마르크 규모로 동반 지원되어야 한다. 이로서 독일에서 처음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유럽기금 (EFRE)’ 이 연방의 교통인프라구조 계획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공되게 된다. 이 ‘지역발전을 위한 유럽기금’과 연방프로그램으

로부터 나오는 재정원조는 오로지 신연방주(베를린을 제외하고)에만 지원되는 것이다.

1999년 5월 신연방주의 장관들의 결의에 따라 17개의 임시적인 프로젝트 제안이 연방정부와 합의되었는데 이를 위해서는 EFRE의 구조기금의 자금이 신청되어야 한다. 이로서 동독에서의 지역 발전과 경제잠재력의 성장을 위한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되었다. 이 프로젝트에는 특히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국제공항의 도로연결 및 철도연결, 뤼겐연결도로(B 96n), 라이프찌히 철도-시티-터널, 막데부르크의 엘베 확장공사, 소위 중부 독일 연결 (철도)와 연방고속도로 A 17이 속한다.

4.1.3. 독일 통일 교통 프로젝트의 신속한 실현

17개의 독일통일 교통프로젝트 (VDE) 는 약 690억 마르크 투자규모를 가지고 있다. 이 중에서 1999년 말까지 약 330억 마르크 - 이것은 약 48%의 비율에 해당된다 - 가 지출되었다. 독일 통일 교통프로젝트 Nr. 8.2(에어푸르트와 할레/라이프찌히 철도연결)의 범위내에서 할레와의 연결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유럽기금의 자금이 준비되어 있다.

연방철도(Bundesschienenwege)

9개의 철도프로젝트의 실현에 1991년부터 1999년까지의 기간동안 190억 마르크가 투자되었다. 1999년 착수된 웰쩬과 슈텐달 사이의 진행되는 교통계획으로는 연방통일 철도프로젝트 Nr. 3을 포함하여 6개의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남쪽방향의 '독일통일 교통프로젝트' 8.1(뉘른베르크-에어푸르트)과 8.2(에어푸르트-라이프찌히/할레)의 실현은 미루어졌지 소멸된 것은 아니다. 연방정부는 현재 건설 중에 있는 에어푸르트와 일메나우-볼프스베르크 사이의 독일통일 교통프로젝트(VED) 8.1을 완성하도록 결정하였다. 이로서 새로운 건설구간의 확

대는 재정적인 자금이 충분히 확보되는 이후의 시점에 현실화될 것이다. 또한 VDE 8.2.의 현재 건설중인 그뢰버스-라이프찌히 구간도 완성되어야 한다.

VED 8.1과 8.2 프로젝트에 대한 기본원칙의 결정과 관련하여 철도교통이 전체표면에 있어서 개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바이마르-글라우카우 구간 위에 중부독일 연결구간 파더보른-카셀-에어푸르트-바이마르-게라-켐니츠가 총 6억 6,500만 마르크의 투자규모로, 호프-라이프찌히/드레스덴 구간에 작센-프랑켄-마기스트랄에 뉘른베르크-호프-라이프찌히/드레스덴이 28억 마르크의 투자규모로 2006년까지 수리되고 각각 경사기술차량에 맞추어진다.

연방간선도로 (국도) (Bundesfernstrassen)

도로프로젝트에 있어서는 계획된 2,000Km의 고속도로가 이미 개통되었다. 이를 위해 1999년 말까지 거의 130억 마르크가 지출되었다. 2000년에도 24억 마르크의 지출이, 그리고 그 이후 2001년과 2002년에는 각각 22억 마르크의 투입이 계획되어 있어서 총 7개의 프로젝트가 2005년 말까지 기본적으로는 완성될 것이다. 최종적인 완성은 2007/2008년으로 예정되어 있다.

금년에도 중요한 부분이 실행에 옮겨진다. 이에는 예를 들면 쇤베르크와 그레베스뮐렌 및 비스마와 로스톡 고속도로 교차로 사이의 A 20 이 속한다. 2000년 말로 예정된 쇠네벡과 쾬너른 및 달렌바르스레벤과 막데부르크 고속교차로 사이의 A 14의 개통으로 독일통일 교통계획 Nr. 14, 즉 막데부르크와 할레 사이의 A 14는 연방 전체에서 최초로 완공된 VDE-도로신축프로젝트가 될 것이다. 약 100 Km의 긴 새로운 고속도로를 위해 단지 10년간의 계획 및 건설시간은 연방 전체적으로 유일무이한 성과이다.

연방수로 (Bundeswasserstrassen)

1991년에서 1999년까지의 기간동안 독일교통프로젝트 Nr. 17로서 하노버-막

데부르크-베를린간의 수로연결의 건설을 위해 약 9억 마르크가 지불되었다. 이 건설은 환경친화적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단계적으로 배가 다니기 위해 가장 좋도록 하는 측면에서 진행된다. 중점은 중부지대 수로, 엘베-하벨 간의 수로와 막데부르크 수로교차로이다. 엘베강 위의 수로교량 및 로텐제 수문과 호엔바르테는 건설 중에 있거나 늦어도 2003년까지 완성될 것이다. 샬로텐부르크의 수문 신축은 2002년까지 완성될 것이다.

5. 매력적인 주거생활 - 살만한 가치가 있는 도시들

신연방주에서의 주거상황의 개선과 에너지 절약적인 사용은 연방정부에게 계속해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주거시장에서는 특히 독일 통일 10년 후 문제상황이 근본적으로 변화하였다. 우선 구동독 시절 건물의 임박한 황폐화를 막고 주택공급에 있어서 엄청난 후진 상황을 감소시키는 것이 중심적인 과제였다. 이 점에 있어서는 그 동안에 많은 성과가 있었다: 한 사람당 사용하는 주거면적이 1998년에 32.8 ㎡로 늘어났고 거주하는 모든 주택의 95% 이상이 오늘날 욕실과 화장실을 가지고 있고 집단난방 (Sammelheizung)을 가진 주택이 82.7%로 늘어났다. 자가주택소유 또한 많은 진전이 있었다: 사유주택의 비율은 1998년 31%로 늘어났다. 3명 이상의 가구는 12% 점수를 더해 평균이상으로 이러한 발전의 혜택을 보았다. 주택공급의 개선은 특히 조세상의 유리한 기본조건, 280억 마르크 규모(5.1 부분 참조)의 구부채의 부분적 탕감, 재건을 위한 신용기관을 통한 지금까지 790억 마르크 규모의 저리의 대출 및 총 80억 마르크의 사회주택 건설 지원 등에 기인한다.

이제는 효과적인 일련의 조치로서 공급과잉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변화된 시장상황을 특히 인구가 급속히 감소하는 구조 취약적인 지역에 참작하는 것이 주요한 문제이다. 주택기업, 개별적인 임차인 및 해당 국민은 적합하면서도 신속히 대처하는 조치를 통하여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 외에도 동독과 서독의 삶의 조건의 동일화는 일관성 있게 계속 추진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연방정부의

정책의 역점은 주거공간의 현대화와 주택보조금의 제정 및 주택과 도시발전정책의 새로운 컨셉트와 도구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5.1. 구부채규정 (Altschuldenregelung)

약 280억 마르크로 주택경제의 부담을 덜어주고 50억 마르크의 이자원조로서 구부채원조법 (Altschuldenhilge-Gesetz: AHG)는 신연방주에서의 주거경제의 신용능력과 투자능력의 개선에 중대한 기여를 하였다. 구부채원조를 통하여 주도된, 주거건물의 수리와 현대화를 위한 투자규모는 1997년 말 약 800억 마르크이었다. 이를 통하여 특히 지역적인 주택기업과 수공업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었다.

구부채 감면은 주택기업이 적어도 자신의 주택의 15%를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양도한다는 조건에 연결되어 있다. 재건은행에 의해 매년 제출되는 보고서의 평가에 의하면 사유화부담금(1999년을 위한 계획자료까지 포함하여)은 약 360,000 개의 양도할 임대주택의 75% 이상까지 찼다. 그러므로 구부채원조법(AHG)의 목표는 이미 충분히 달성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특히 인구수가 엄청나게 감소하고 실업률이 높은 구조취약적인 지역에서의 주택기업의 일부에게는 구부채원조법으로부터의 의무를 적적한 비용으로 충족시키는 것이 점차적으로 더욱 어려워 질 것이다. 이것은 특히 주택의 매매시에 해당된다. 이주의 결과로 부분적으로는 기업의 수익력을 약화시키는 높은 비율의 공동화현상이 나타난다.

법률의 행정적인 실현을 담당하는 AHG 조종위원회(AHG-Lenkungsausschuß)는 특히 연방정부와 신연방주의 건설부와 재건은행(KfW)이 주 담당자인데, 이렇게 변한 상태를 이미 1999년 3월에 고려를 하였다. 특히 구조취약한 지역에 있어서의 집이 비어 있는 비율이 높은 주택기업은 사전에 사유화 의무로부터 벗어났다. 이러한 하부법적인 규정의 바탕위에 1999년 3월부터 총 미해결된

2,100개의 경우가 이미 반 이상이 훨씬 넘게 해결될 수 있었다.

주택경제의 투자능력과 신용능력을 계속 강화하기 위하여 2000년 6월초에 독일 의회에서 두 번째 구부채지원변경법이 체결되었는데 이것은 2000년 9월 1일에 발효된다. 구부채지원법에 따라 구부채지원을 받은 주택기업은 중립적 경쟁방식으로 미리 그 사유화의 의무에 대한 한계선을 긋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사유화 부담금을 위한 마감기한이 2003년 말에서 1999년 말로 앞당겨진다. 이로서 자신의 사유화 의무의 불이행을 책임지지 않는 주택기업은 이미 원래 예정된 기한 보다 4년이나 훨씬 전에 재건은행을 통한 최종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이것은 주택기업을 또 다른 사유화를 위한 노력으로부터 해방시켜 준다. 법률개정안의 실현은 신속하고 비관료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AHG 조정위원회는 이미 쉬운 방안을 결정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많은 주택기업이 즉시 최종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는 특히 최소 20개의 주택의 사유화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소기업이나 평균이상 많은 주택(5% 이상)을 임차인에게 직접 양도했던 기업들이 이득을 보았다. 이를 통해서는 특히 원했던 임차인사유화가 보상을 받았다. 이러한 규정의 적용 후에는 이미 확정된 최종결정을 계산하여 약 260 명의 구부채원조 수혜자가 남을 것인데 이들에 대해서는 AHG 개정안의 단순화된 마감절차가 적용될 것이다.

AHG 개정안은 이 외에도 사유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모든 주택회사들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부채제거기금에 납부할 수 있는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다.

재산법에 따른 신청이 거부당하거나 철회될 때 반환해야할 주택을 가진 주택회사에게 돌아가는 부담 또한 없어져야 한다. 부분경감결정은 1999년 12월 31일 이후에는 신고해야하는 주택이 재산법에 따른 신청의 거부나 혹은 철회에 따라 현재 처분권이 있는 주택회사에 맡겨져 있을 경우에도 더 이상 변경되어서는 안된다.

추가적으로 AHG는 어려운 경우 해결책의 경우에로도 확대된다. 이를 통해서

너무 오랫동안 빈 상태로 있어서 그 경제적인 본질에 있어 위협을 받는 그러한 주택을 위한 또 다른 구부채의 탕감이 가능해진다.

구부채지원법의 개정안으로서 연방정부는 동독 주택회사가 자신들에게 필요한 법적인 안정성과 계획상의 확실성을 가지게 되도록 배려하고 있다. 동독 주택회사는 미래에 그 외에 현존건물에 긴급히 필수 불가결한 투자를 위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할 수 있는데 이것은 주택의 질을 더욱 개선하게 됨으로서 임차인에게 이로울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주택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

5.2. 주택건물의 현대화

주택건물의 현대화를 위하여 또한 재건은행의 이자율이 유리한 대출이 제공된다.

- 2000년 2월 8일에 시작된 [재건은행-주거공간-현대화 프로그램] II는 그 차용규모가 약 100억 마르크인데 이 프로그램은 총 투자규모가 1,200억 마르크에 달했던 그이전의 아주 성공적인 1990년의 프로그램에 연결된다. 이 지원은 특히 아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현대화조치, 주로 옛건물과 아파트 및 문화재 보호 건물 같은 것에 집중되고 투자보조법에 대한 보조에서 찾을 수 있다.

[재건은행 주거공간 현대화 프로그램] I과는 달리 주들은 이제 후속프로그램의 재정지원의 절반에 참여한다.

- 재건은행의 이산화탄소 감소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저리의 크레디트를 통하여 구연방주의 주택의 열기완화와 난방현대화 조치를 지원하였는데 이것은 이제 신연방주에도 적용이 된다. 지금부터 당장 재건은행의 저리의 차용은 특히 한 가구 주택과 두 가구 주택 및 아파트의 에너지 절약조치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

5.3. 주택보조금 개정안(Wohngeldnovelle)

약 14억 마르크의 지급개선을 포함하는 전 독일에 해당되는 최초의 현실적인 주택보조금 개정안은 주택보조금을 - 지난 1990년의 지급개선 이후로 나타난 집세 및 수입의 발전을 고려하여 - 지속적으로 강화시킬 것이다. 개정안에 근거하여 신연방주에서의 주택보조금 지급수준은 2000년 말까지 특별규정의 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수혜자의 평균으로 보면 지금까지의 높은 수준으로 지급이 유지된다. 이로서 예를 들어 현대화를 통한 집세인상으로 말미암은 임대인의 부담이 미래에도 계속 감소될 수 있다.

구연방주의 주택보조금은 신연방주의 높은 지급수준에 맞추어 진다. 2001년부터는 구연방주에서의 지급수혜자는 지금까지 보다 평균 월 80 마르크 이상 - 이로서 50%이상 -을 지급 받는다. 4인 이상의 대가족은 평균 거의 120 마르크로서 더욱 더 확실히 이익을 받는다. 지금까지 주택보조금을 전혀 지급 받지 못했던 동독과 소독의 수입이 적은 많은 가구들은 앞으로 처음으로 혹은 다시 주택보조금 받을 권리를 갖게된다.

그 외에도 동독과 서독의 주택보조금은 최종적으로 합쳐지게 되고 지금까지의 일괄적인 주택보조금(Pauschalwohngeld, 앞으로는 : 사회구호수혜자을 위한 특별 전세보조금)과 지금까지의 도표보조금(Tabellenwohngeld, 앞으로는: 일반 주택보조금)사이의 균형이 다시 수립된다. 많은 법적인 단순화가 이러한 완성을 용이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수입조사(Einkommensermittlung)가 주택건설법(Wohnungsbaurecht)에 맞추어 진다.

5.4. 사회적인 도시 (Soziale Stadt)

여러 도시들의 점점 증가하는 사회적인 문제들의 해결은 연방과 주와 지방에 의한 프로그램인 “사회적인 도시 (Die soziale Stadt)”로서 공동으로 문제 제기된 지속적인 사회발전정책의 급박한 과제이다. 새로운 프로그램 시도의 목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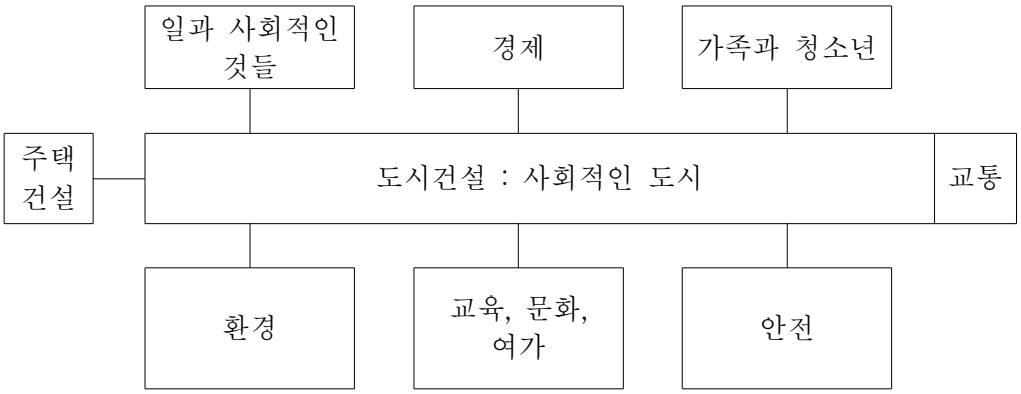
불이익을 받는 도시구역의 해당 사람들의 삶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문제를 도시구역 차원에서 공적 혹은 사적 지원자금을 사전의 동의나 집약(Bündelung)을 통해서 효과를 상승시키는 전략과 연결시키고 있다.

연방정부는 1999년 이후로 매년 1억 마르크를 새로운 프로그램을 위해 제공하고 있다. 이 자금은 1999년 이 프로그램의 해에 개별 주에 다음과 같이 나누어진다.

주	백분율	
바덴-뷔텐베르크	11.217	
바이에른	12.911	
베를린	5.132	
브란덴부르크	3.777	
브레멘	0.941	
함부르크	2.168	
헤센	6.811	
메켄부르크-포어폼메른	2.729	
니더작센	9.370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21.293	
라인란트-팔츠	4.428	
자알란트	1.305	
작센	6.703	
작센 안할트	4.332	
쉴레스비히-홀스타인	3.226	
튀링엔	3.657	
총계	100.000	

주와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적인 보조자금으로서 매년 3억 마르크가 준비되어 있다. 그 외에도 신연방주는 전형적인 도시건설지원 프로그램의 범위에서 매년 5억 2,000 마르크 규모의 연방자원을 지원 받는다.

1999년 연방의 프로그램 “사회적인 도시(Die soziale Stadt)”에 총 162개의 주로 투자적인 조치가 추가되었다. 통합된 행동조항은 이러한 조치들이 다른 정책분야에서 나온 프로그램들을 통하여 보충되는 것이 필요하도록 한다. 예를 들면 :



서로 다른 전문분야의 시너지효과를 달성하는 것이 그간 새로운 도시발전정책적인 시도의 최고 목표다. 그러므로 이러한 과제는 모든 국가적인 차원에 향해져 있다. “사회적인 도시” 프로그램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지원된다.

도시건축적인 조치에 대한 지원 - 혁신과 지속적인 도시구역의 발전-

⬇

· 거주환경의 개선 · 새로운 경제적인 활동을 일으키는 일, 지역적인 차원에서의 일자리 마련과 보장 · 사회적인 인프라구조의 개선 · 직업교육과 재교육의 가능성의 개선 · 안전한 도시를 위한 조치 · 환경보호 · 공적인 교통수단 Personennahverkehr · 주거환경 개선 · 문화 · 여가시간

⬇

통합된 개념/ 총체적인 가치인상전략 - 집중적인 사회적 환경적 인프라문화정책-

베를린에 있는 독일 도시학 연구소 (Das Deutsche Institut für Urbanistik: Difu)는 프로그램을 동반하며 초지역적인 중개-, 정보- 및 상담 아겐투어로서의 역할을 떠맡았다. 최근의 정보에 관해서는 인터넷 www.sozialestadt.de을 통해 알 수 있다.

연방 가족 노인 여성 청소년부는 -“사회적인 도시” 프로그램에 보충적으로 “사회적인 초점상의 젊은이들의 발전과 기회 (Entwickung und Chancen junger Menschen in Sozialen Brennpunkten ; E & C)”라는 프로그램을 출발시켰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특히 신연방주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삶의 조건과 기회를 향상시키고 도시구역과 시골지역의 붕괴를 막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여러 국가적인 차원(연방, 주, 지방)의 협력을 조정하는 것이 종종

개별적으로 고립된 조치들이나 제안들이 더욱 성공적으로 될 수 있는 전제조건이다. 그러므로 “E & C” 프로그램은 사회적인 초점에 있는 수단과 활동들을 묶고 가족,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한 제안과 서비스가 더욱 잘 조정이 되고, 더욱더 용이하게 다가갈 수 있고 더욱더 효과적으로 투입이 되는 그러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시험해 보고 있다.

5.5. “주택경제적인 구조변화” 위원회

신연방주에서는 1993년과 1998년 사이에 비어있는 주택의 숫자가 백만으로 내지 배보다 13% 이상 증가하였다. 그래서 주택경제의 일부와 개인적인 임대인도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빈 상태가 계속될 때에는 여기에다가 심각한 도시 건축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를 예상해야만 할 것이다.

32.9%로 최고의 빈 상태의 비율을 보여 준 것은 1998년 시내의 구건물(8 개 혹은 더 많은 세대로 이루어진 1948년까지 건립된 건물)인데, 이는 순전히 건축적인 이유에서 이미 오랫동안 비어 있었다. 8세대 혹은 그 이상의 세대로 이루어진 1949년에서 1990년까지 지어진 집 중에서는 1998년 8.4 %가 비어있었다. 이 부분에서의 이러한 경향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는 우선 매력을 주지 못하는 겉모습(예를 들면 실내에 위치한 욕조와 창문이 없는 부엌)을 지닌, 불충분한 정화수준과 현대화 수준의, 주변환경이 나쁜 도시 변두리에 있는 아파트들이다.

빈 주택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이다.

- 1993년 이후 약 760,000 개의 주택의 신축으로 인한 주택공급의 확대는 빈 집 수를 증가시키는 데뿐만 아니라 주택공급의 향상에 기여하였다. 특히 높은 수준으로 계속되는 자가주택 건설을 통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특히 수입이 좋은 가계는 시내의 다층주택건물과 큰 주택지역을 떠나 도시의 주변으로 이주하고 그래서 작은 공간 중심의

인구층의 손실을 가져온다.

· 매력적이지 못한 주택의 임차기회는 질적으로 좋은 주택에 대한 공급이 증가됨으로서 그리고 자가주택의 신축을 통해서 아주 나빠졌다.

· 빈집의 비율은 오랜 산업의 일자리의 손실이 특히 심하게 인구의 이주를 야기 시켰던 곳에서 극심하게 증가하였다. 지역적인 경제지원은 여기에 새로운 발전의 동인을 주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경제적인 구조변동이 공간적인 인구의 분배에 미치는 영향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빈집 비율이 많은 결과로 인한 주택소유자의 경제적인 문제에 비하여 임대인의 측에서는 잇점이 많다. 왜냐하면 높은 주택공급 비율로부터 집세가격을 낮추는 작용이 잇따르기 때문이다. 물론 빈 주택이 많은 주택지에서의 세입자에게는 주택관리에 있어서 엄청난 악화의 위험이 있는데, 특히 수입이 많은 세입자가 이 지역을 떠나기 때문에 사회구조가 붕괴되기 때문뿐만 아니라 주택회사가 자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임대가능성이 너무 적기 때문에 필수 불가결한 수리유지에 대한 투자를 더 이상 할 수가 없다는 사실 때문에 그러한 위험이 생긴다.

문제의 복합성에 비추어 볼 때 효과적인 정책은 근거있는 분석의 기초 위에서만 수립될 수 있다. 연방 교통 건설 및 주택부와 신연방주의 문제를 위한 연방정부의 부서는 그러므로 2000년 2월에 주택경제를 위해 중요한 모든 분야의 전문지식을 응집하는 “주택경제적인 구조변화” 위원회를 설립하였다. 이 위원회의 많은 과제 중의 하나는 지속적인 공급과잉시 피할 수 없는 주택의 붕괴의 규모 및 구조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위원회는 현재 상황의 점검 후에 미래의 수요의 발전에 대한 진단을 시도할 것이다. 그 외에도 위원회는 주택경제적인 문제 뿐 아니라 도시건축적인 문제를 고려하고 도시들에게 긍정적인 발전전망을 제공하는 행동강령과 도구를 개발해야 한다. 구체적인 결정은 현장에서 내려져야 하고 주택소유자와 주택정책과 도시계획 사이의 집중적인

의견조율과정을 필요로 한다. 위원회는 그 결과를 올해 안에 제출할 것이다.

6. 교육기회의 향상과 청소년실업의 퇴치

6.1. 노동을 위한 연대 (Bündnis für Arbeit) 교육에 대한 합의

젊은 세대의 교육기회의 개선은 우리나라의 핵심적인 과제에 속한다. 그러므로 연방정부와 경제단체와 노동조합들은 1999년 7월 6일 “노동, 교육 및 경쟁력을 위한 연대(Bündnis für Arbeit, Ausbildung und Wettbewerbsfähigkeit)”에서 연방에 걸친 교육에 대한 합의를 결성하였다. 이것의 목표는 교육을 받으려는 의지와 능력이 있는 모든 젊은이에게 원하는 직업분야에서 가능한 주거지에 가까운 교육여건을 제공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합의는 그 이후에도 역시 계속된다. 경제계는 2000년도에 기업의 직업교육 자리에 대한 인구분포상의 추가적인 수요를 충족시키기로 합의하였다. 연방행정부는 2000년도의 직업교육일자리에 대한 공급을 새로이 증가시킬 것이다. 1999년 10월 이후 매년 연초와 가을에 노동행정과 경제계와 노동조합과 그 밖의 지역의 책임자들의 지역적인 교육회의가 열린다.

1999년에는 기업의 직업교육 자리의 공급은 전체적으로 아직 충분하지 않았지만 젊은이들의 교육기회가 향상되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지금까지의 결산은 교육에 대한 합의에서 결정된 활동과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새로운 현대화된 직업에서는 평균이상의 상승률이 현실화될 수 있었다. 총합해서 지난 3년간 전 독일에서는 새로운 IT직업과 미디어관련 직업에만도 35,000 개의 새로운 교육관계가 생겨났다. 2003년까지 경제계는 이 직업분야에 있어 또 20,000 개의 추가 직업교육 자리를 이미 승인된 40,000개의 자리 외에 더 마련할 것이다. 또한 합의된 지역적인 직업교육 일자리에 관한 회의와 일자리 알선 운동도 성공적으로 이행되었다.

그 외에도 '노동, 교육 그리고 경쟁력을 위한 연대'에서는 신연방주에서 출발의 기회가 열약한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책으로 충분한 실업교육일자리 제공을 보장하기 위해, 혹은 새로운 자질향상에 대한 수요를 조기인식하기 위해서나 혹은 이중적 직업교육을 구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여러 종류의 활동과 기본노선에 합의하였다. 이러한 합의들은 2000년에 계속 실행된다.

6.2. 청소년실업 퇴치를 위한 긴급프로그램

1999년 20억 마르크의 배정된 자금으로 100,000 명의 젊은이들에게 교육과 자질강화와 고용에 대한 추가적인 기회를 열어주려는 목표는 전 독일에서 지원된 청소년들이 179,000 명이 되었으므로 명백히 초과달성된 셈이다. 이러한 큰 성공 때문에 청소년실업을 퇴치하기 위한 긴급프로그램은 계속된다.

이 긴급프로그램의 40%에 해당되는 자금은 신연방주에서 이 프로그램을 실현시키는데 중점을 두기 위해 신연방주를 위해 배정되었다. 7억 7,500만 마르크(전체지출의 41%)을 지출함으로서 이러한 유리한 입장은 달성되었다. 1999년 12월말까지 67,500명의 청소년들이 이 긴급프로그램의 조치에 합류했다. 그 중에는 특히 :

자질함양-노동창출조치	16,500명의 참가자,
훈련조치	11,600명의 참가자
채용시의 임금보조금	11,500명의 참가자
작업장 밖의 교육	11,000명의 참가자
아직 알선되지 않은 직업교육	
신청자를 위한 훈련프로그램	6,700명의 참가자
추후자질함양 및 추가자질함양	6,300명의 참가자

그 나머지 참가자들은 "정기교육과정의 보충", "(아직) 교육에 적합하지 않은 청소년들을 위한 노동과 자질함양 (AQJ)", "고용을 위한 원조", "사회적인 보

호 및 고용조치와 자질함양조치로의 안내"와 같은 조치들에 나누어져 있다.

12월말에는 신연방주에서의 약 39,900 명의 청소년들이 이 프로그램의 조치에 참가했었다. 같은 시점에 그 외에도 약 168,000명의 25세 이하 젊은이들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법적인 조치를 통해 지원 받았다.

이 광범위한 지원은 교육시장에서나 노동시장에서 모두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긴급프로그램을 통한 중개의 노력과 공장 밖의 직업훈련자리의 광범위한 마련으로 1998년과 그 이전의 교육지원자들 중에 아직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수를 확실히 격감시키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동시에 젊은이들의 실업률이 눈에 띌 정도로 감소되었다. 25세 이하 실업자들의 연평균 수가 120,700명(1996년)에서 139,000명(1997년)을 거쳐 143,900명(1998년)까지 상승했던 1996년에서 1998년까지의 부정적인 경향은 중단될 수 있었다. 1999년에는 연평균 137,600명의 젊은이가 실업자였다.

긴급프로그램은 법적인 도구와 함께 청소년 실업의 퇴치라는 유럽연합의 고용 정책적인 목표에 도달하는데 핵심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성공적인 긴급프로그램을 계속시키기 위하여 2000년에는 다시 20억 마르크가 배정되는데 이 자금으로 1999년에 시작된 조치가 계속되고 2000년에 새로운 조치가 추가될 수 있다. 2000년 6월 30일에는 총 68,900명의 청소년들이, 이중 30,500명은 신연방주의 청소년들인데, 긴급프로그램의 조치를 받았다.

긴급프로그램은 2000년 이후에도 계속 연장되는데 이때 신연방주에의 중점적 집중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노동, 교육 및 경쟁력을 위한 연대'의 파트너들은 2000년 7월 10일의 마지막 정상회의에서 2001년에 신연방주에 자금의 50%를 투입하기로 제안하였다. 그 외에도 신연방주에서의 노동청과 신연방주에서의 평균이상의 실업률을 가진 지역의 노동청들은 개별적으로 달라지는 중개원조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유동성 조치를 지원하기 위한 긴급조치 자금의

5%를 받아야 한다.

유동성지원을 측면지원하기 위하여 연방노동청은 신연방주의 노동관청과 구연방주의 노동관청 사이의 중개적인 파트너 관계을 맺도록 요구된다. 이로서 구연방주에서 일자리를 받기를 원하는 신연방주의 실업청소년의 노력이 지원되어야 한다.

6.3. 연방과 주의 직업훈련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1999년에도 신연방주에서 기업 밖의 직업훈련 일자리에 대한 공급이 직업훈련 일자리 시장에서의 균형을 불러오기에는 여전히 부족하였다. 특히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한 청소년들의 수는 1999년 9월 30일 기일까지(1998/99년 직업훈련의 해의 말) 약 9,800명으로 감소될 수 있었다. 이것은 지난해 보다 21% 감소된 것이다. 집중적인 알선운동으로 인해 이 수는 다시 한번 확실히 3,944명(59,6%)으로 감소될 수 있었다. 이 숫자도 1998년(4,261명의 알선을 받지 못한 청소년들) 보다는 더 나아진 것이다. 더욱더 유리한 발전을 위해 기여한 것은 1999년 4월 30일 연방과 신연방주와 베를린간에, 1999/2000년 직업훈련의 해을 위한 17,500개의 추가적인 직업훈련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불러일으킨 합의였다. 이 프로그램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연방은 2억 3,200만 마르크 규모의 자금을 투입한다. 신연방주와 베를린은 적어도 같은 수준으로 이 재정지원에 참가한다.

1999년 동독 직업훈련 일자리 프로그램의 내용적인 구성은 지난해의 활동프로그램을 따른다. 이것은 주로 기업과 가까운 직업훈련 일자리 조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연방의 참여액은 평균 지원 건당 13,250 마르크까지이다. 그러나 전체 조치비용의 50%를 넘어서는 안된다. 이들이 증명한데 따르면 1999년 12월 31일에는 자리의 부담부분의 약 96%가 이미 찼다.

연방과 신연방주는 노동의 측면에서 동독의 견습 자리 및 직업교육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이란 주제를 토론하였고 가능하면 신속하게 경제계가 스스로 부담하는 충분한 직업교육 자리에 대한 공급에 도달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이 영역에서의 공통적인 노력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향설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에 합의하였다.

- 연방과 신연방주는 2004년까지 동독을 위한 연방과 주의 직업교육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이 제출되어야 한다는 데 합의하였는데 이 프로그램의 규모는 매년 동독의 직업교육 일자리에 있어서의 그때그때 발전의 배경 하에 새로이 고려될 것이다.
- 경제적인 안정과 2002년부터 인구 분포적인 요인에 의해 시작된, 수업 자리에 대한 수요의 가벼운 감소를 고려해서 이 프로그램들은 축소되어 운영되어야 한다.
- '일인당 프레미엄지원(Pro-Kopf-Prämienförderung)'은 2002년까지 끝나야 한다.
- 현장에서는 모든 참가자들 사이의 합의를 통해서 지원경쟁을 피해야 한다.
- 신연방주의 경제계는 견습자리에 대한 참여를 전체적으로 넓히도록 요구된다. 특히 IT 영역에서 새로운 직업과 교육프로필에의 기회를 자신의 미래를 확고하게 할 필요에서 이용하도록 요구된다.
- 이러한 추천사항을 실행에 옮기는 일을 연방과 신연방주는 즉시 시작한다.

"직업훈련자리 개발자" 프로그램

교육과 연구를 위한 연방부처의 이 프로그램은 1995년 7월 1일 시작이래로 신연방주에서의 공장내의 직업교육 자리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직업훈련자리 개발자의 숫자는 그 동안에 190으로 증가되었다. 이 프로그램의 매년 비용은 약 1,900만 마르크에 이른다.

6.4. 범기업적 직업훈련장에 대한 지원

중요한 요소는 공장견습 다음의 직업훈련소의 건축인데, 여기서 교육받는 자는 자신의 직업적인 최초의 교육의 틀 안에서 공장견습 이후의 단계에서 현대화된 기술과 작업과정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더욱이 특히 수공업 분야에서의 중소기업은 혼자서는 직업교육 규정에서 요구되는 내용의 전체를 다 전달해줄 수 없다. 이러한 직업교육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1999년에는 연방자금이 1억 5,000만 마르크의 규모로 신연방주에 투입되었다. 2000년도에도 1억 4,800만 마르크가 계획되어 있다.

현대화된 기술을 빨리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다기능적으로 이용되는 범기업적 직업훈련소가 몇몇 선택된 분야에서는 경쟁센터로 계속 발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1998년에는 아이디어 경쟁대회가 개최되었다. 77개의 접수된 아이디어 공모 중에서 1999년에는 8개가 뽑혔고 그 중 두 개는 신연방주로부터 온 것이다. 범기업적 직업훈련소는 향후에도 계속되어야 한다.

승진재교육지원법(Aufstiegsfortbildungsförderungsgesetz)

승진재교육지원법(AFBG)은 후세대의 전문인력으로 하여금 최초의 직업적인 승진재교육을 가능하게 하는데 기여하고 있는데 이는 특히 수공업분야에 있어서 직업적인 자립성과 기업의 설립이나 인수를 위한 전제조건이다. 1999년 신연방주에서는 다음과 같이 AFBG에 따른 지원 신청 (최초의 신청과 그후의 신청)이 승인되었다. (각각 제 4/4분기 말까지)

연방주	3월	6월	9월	12월
브란덴부르크주	130	239	407	673
베를린 (전체)	209	267	440	583
메클렌부르크 포어폼머른 주	106	230	440	583
작센주	734	690	648	986
작센 안할트 주	133	249	351	568

튀링엔주	424	394	324	435
전체	1,736	2,069	2,524	3,810

6.5. 학교의 네트워크화

1998년 가을에 실행된 조사는 동독 소재 학교의 1/4 보다 더 적은 수의 학교가 컴퓨터 네트워크화가 되어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 이는 신연방주에서 다음과 같이 분포되어 있다 (1998년 10월의 상태):

연방주	전체학교 수	네트워크화된 학교
베를린	1,009	465
브란덴부르크 주	1,168	166
메클렌부르크 포어폼머른 주	969	120
작센주	2,448	444
작센 안할트주	1,556	325
튀링엔주	1,263	400
전체 학교	8,413	1,920

여기에다 신연방주에서는 학교의 컴퓨터 설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추가적인 노력이 경주되었다. 신연방주와 구연방주와의 비교는 신연방주가 절대로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경제계도 “21세기 정보화 사회의 혁신과 일자리”라는 자발적 프로그램의 범주 내에서 이에 대한 기여를 하려고 한다. 학교영역에서의 새로운 미디어의 투입도 독일의 전 학교에 네트워크와 T-Online의 사용을 무상으로 공급하겠다는 독일 텔레콤회사의 선언을 통해서 특별한 활력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외에도 1999년 11월에는 “여교사와 여학생들의 정보화”라는 프로젝트가 출발되었다. 이것은 여교사들을 위한 “Leanet” 부분과 여학생들을 위한 “LizzyNet″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포럼은 여교사들의 경험교환과 실질적인 수업준비에 도움을 주고 있고 온라인으로 재교육의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

LizzyNet은 여자아이들과 14세에서 18세 사이의 젊은 여자들을 학교에서 네트를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온라인 공급이다. 이로서 이들은 이들이 네트를 적극적으로 함께 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노하우를 습득해야 한다. 모든 학교에 인터넷 공급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에 직면하여 이러한 계획은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7.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 통합에의 지원

7.1. 노동시장 정책의 조치를 높은 수준으로 지속시키다

연방정부는 약속을 지켰고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을 높은 수준으로 안정화시켰다. 연방정부는 노동시장정책에 있어서 굴곡이 심한 경향을 종식시켰고 신뢰성 있는 노동시장정책을 위한 재정적인 기초를 마련하였으며 이는 역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조치를 담당하는 사람을 위해 계획의 확실성을 열어주었다. 그래서 1999년에는 연방노동청과 연방으로부터 신연방주에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위해 219억 마르크가 지불되었다. 이것은 1998년 보다 20억 마르크 이 더 많은 것이었다. 1999년에는 신연방주가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을 위해 지불한 비율은 49.2%이었고 독일에서의 모든 실업자들의 32.8%가 참가했다. 총합해서 1999년 연평균 그 이전해보다 더 많은 참가자들이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에 연계될 수 있었다. 1998년 선거의 해에 대한 높은 의존도 때문에 자금규모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연초에 도달한 참가자의 수준을 한해 전체 이상 지속시킨다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1999년 후반기에는 적극적인 노동시장의 부담이 덜어지는 효과가 감소되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1999년 8월1일 효력이 발생한 사회법전 제3편에 대한 두 번째 개정법으로 노동지원이 더욱 유연해지고 목표그룹에 더욱 맞게 형성되었다. 동시에 유럽연합의 고용정책적인 노선에 합당하게 특히 장기실업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노동지원에 대한 좀더 이른 개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로서 연방정부는 노동시장정책에서 방향전환을 꾀하고 있다. 특히 목표는 장기실업을 좀 덜 생기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보다 더 일찍 노동시장 정책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다. 동시에 고령근로자들에게 좀 더 나은 고용전망을 열어주어야 한다. 편입보조금 및 고용창출조치에의 할당을 통한 고령근로자에 대한 지원은 이제 이미 6개월간의 실업 후에는 가능하다.

그 외에도 신연방주와 특히 실업률이 높은 노동청 관할지역에서는 55세 이상의 실업자와 실업에 위협을 받는 노동자가 5년까지 특별한 구조적인 적응조치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은 신연방주에서의 장기실업자의 수를 6%를 줄여 12개월 이상의 장기실업자 수가 427,500명으로 감소되는데 기여하였다.

25세 이하 청소년들에게 있어서도 실업자의 수가 평균보다 4% 이상 감소해서 137,600명이 되었다. 이것은 특히 청소년 실업 퇴치를 위한 긴급프로그램의 성과였다.

연방정부의 견해에 따르면 직업생활의 시작에 서 있는 젊은이들에 대해 특별히 사회적인 책임이 있다. EU의 다른 대국과 비교해서 독일에서는 청소년 실업이 몇 년 전부터 더 감소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주의 교육정책, 지방 차원의 청소년 구호는 여기서 연방과 EU의 적극적 노동정책과 마찬가지로 젊은이들에게 직업적인 전망과 그와 함께 우리 노동사회에 동등하게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도록 요청하고 있다.

청소년 실업의 퇴치를 위한 연방정부의 긴급프로그램은 젊은이들의 이익을 위해 노동행정과 지방과 조치의 담당자들의 성공적인 협력을 진행시키기 위한

재정적인 토대이며 자극제였다. 연방정부는 이로서 EU의 최초의 고용 정책적인 기본노선, 즉 청소년들이 6개월 이상 실업상태가 되기 전에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조치의 투입을 요청하는 기본노선을 고려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대용이 아니라 청소년들을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다.

신연방주에서 아직도 엄청나게 높은 실업률을 볼 때 노동시장 정책적인 조치를 계속 거기서 훨씬 높은 비율로 취하는 것은 필수 불가결하다. 이로서 신연방주에서의 구조적인 변화가 계속 노동시장정책에 의해 사회적으로 보장된다. 금년에는 연방노동청과 독일을 위한 연대의 예산에서 총 460억 마르크에 못 미치는 자금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위해 마련되어 있다. 이것은 1999년 보다 15억 마르크가 더 많이 지출된 것이다. 신연방주의 비율은 224억 마르크 (48.6%)이다. 이로서 독일에서는 2000년도 연평균 약 159만 명의 사람들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조치를 통해서 지원 받을 수 있다. 이것은 1999년 보다 80,000명의 사람이 더 많은 것이다. 2000년이 경과하는 동안 참가자의 숫자는 현저하게 증가할 것이다. 왜냐하면 전년도로부터 어떤 극도의 높은 결합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2000년도 초 몇 달 동안에는 호경기적인 약진이 서독 노동시장의 짐을 덜어주는 반면에 동독 노동시장의 발전은 계속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에 크게 의존한다. 그 다음 몇 달간은 신연방주에서는 특히 고용창출조치와 구조적응조치에의 참가자가 증가함으로써 노동시장의 부담이 더욱 경감되도록 기대된다.

2000년 6월에는 다음과 같이 가장 중요한 노동정책적인 도구를 이용하였다:

- 재교육 : 144,100 (전달 보다 20명이 더 많고 전년도 보다 1,500 명이 더 많다)

- 노동창출조치 : 148,000 (전달 보다 4,200 명이 더 많고 전년도 보다 20,500 명이 더 적다)

- 구조적응조치 : 94,600 (전달 보다 620명이 더 적고 전년도 보다 90,000명이

더 적다)

2000년도에는 신연방주에서는 연평균 760,000명의 사람들이 노동시장 정책적인 조치를 통해 지원 받았다. 동시에 더 많은 정규적인 일자리을 마련하는 것이 고용정책의 제일 중요한 과제이다. 노동정책은 여러 가지 임금보조금으로서 실업자들이 고용에 대한 공평한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자신들의 역할을 기여하고 있다.

- SAM OfW	46,500
- 편입 보조금	38,000
- 새로 설립한 경우에 고용보조금	4,600
- 장기실업자 프로그램	9,900

그 외에도 14,900명의 사람들이 창업자를 위한 과도기보조금을 받았다. 이로서 더욱이 경제적인 회복과정을 다시 발전시키는 기회가 강화된다.

숫자통계는 신연방주에서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능력 있고 성공적으로 일하는 조치의 담당자를 잡는 것이 가능할 때에만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해준다. 이것은 직업 재교육 조치뿐 아니라 노동창출 조치나 혹은 “전형적인” 구조적응조치에도 해당된다. 그 외에도 더 상세한 분석은 공적으로 지원된 고용 없이는 신연방주에서의 삶의 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동시장정책의 연대적인 기여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실은 신연방주에서는 단기적으로나 중기적으로는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최초의 노동시장에서 더 많은 고용창출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7.2. 최초의 노동시장으로의 통합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과거에도 항상 신연방주에서는 제 2의 노동시장에서의, 공적으로 지원 받은 고용이상이었다. 가능한 곳에는 어디나 노동관청이 실

업자들을 최초의 노동시장에서 미래지향적이고 사회보장의무를 가진 고용으로 이끌기 위해 노동지원의 도구를 투입한다. 여러 가지 편입보조금 외에도 특히 직업 재교육과 노동창출조치도 (자질강화 부분이 더욱 많아지면서) 이러한 우선적인 목표설정에 도달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시장정책은 더 많은 고용을 위한 유일한 동력으로만 이해되어서는 안된다. 최초의 노동시장에서의 고용창출에 대한 지원은 우선 경제정책과 재정정책의 과제이고 무엇보다도 고용주와 노동조합의 책임범위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동, 교육 및 경쟁력을 위한 연대'로서 우리 사회에 고용을 위해 중요한 책임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큰 도전을 극복하는데 참가하고 서로 일치하는 행동을 합의하는 것은 옳은 것이었고 또한 옳다.

최초의 노동시장에서 충분한 정도로 고용가능성이 마련되지 않으면 제2의 노동시장에서의 고용을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실업을 지원하는 것 보다 낫다. 특히 신연방주에서는 노동창출조치와 구조적응조치가 많은 사람들에게 시간적으로 제한된 고용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산업적인 구부채의 청산과 사회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엄청나게 구조개선에 기여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최초의 노동시장에서의 고용가능성이 엄청나게 결여되어 있는 것을 감안할 때 노동시장정책은 계속해서 여기에 많은 공급을 확산시킬 것이 요구된다.

높은 수준의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은 향후 몇 년 동안에도 신연방주에서는 필수 불가결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노동시장 정책적인 도구의 투입을 효과성과 효율성의 측면에서 신연방주에서도 눈에 띄게 개선시키려는 시각을 왜곡시켜서는 안된다. 제 2의 시장에서의 고용은 지금까지 보다 더 강력하게 구조개선적인 효과를 보여야 하고 가능한 곳이면 어디나 정기적인, 원조 받지 않는 고용가능성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정규직 고용이 비록 직업적이고 지역적인 유동성과 연관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정규직 고용으로의 이전이 침해당해서는 안될 것이다.(서류 "동독 재건 협력단체의, 원조가 필요한 실업 여성과 남성의 통합과 최초의 노동시장에서의 자격강화 요구 : 제3장 1을 참조)

8. 사회보장과 삶의 질

8.1. 연금 보장

8.1.1. 노후보장의 핵심기둥으로서의 법적인 연금보장

보험 재정적 시스템으로서의 법적인 연금보장은 신연방주에서도 역시 노후보장의 첫 번째 기둥으로 보존되었다. 전 독일에 통일적인 연금법을 마련함으로서 신연방주에서의 4백만 명 이상의 영구 연금자들이 급여에 역동적인 연금지불에 연결될 수 있었고 신연방주에서의 연금은 서로 다른 수입상황을 고려해서 서독 연금 수준으로 인상될 수 있었다. 오늘날 소위 에크 연금 - 이것은 보험년수가 45년 이후에 평균급여로 받을 수 있는 연금이다 - 의 수준은 신연방주에서는 서독수준의 거의 87%이다(1996년 후반기에는 82.3%, 2000년 후반기에는 86.8%). 2000년 7월 1일까지 0.6%의 수준의 통일적인 연금적응으로 신연방주에서 매월 사용할 수 있는 에크 연금은 약 1,752 마르크, 구연방주에서는 약 2,020 마르크까지 인상된다.

그에 반해 남자와 여자를 위해 평균적으로 쓸 수 있는 보험자 연금, 말하자면 실제적으로 지불된 보험은 신연방주에서는 약 1,484 마르크로 구연방주의 약 1,330 마르크 보다 이미 더 높다. 여기에서 신연방주에서의 연금자들, 특히 여성들의 알려지지 않은 생계에 관한 전력이 표현되고 있다. 이러한 연금의 수준을 평가하는데 있어서는 특히 신연방주에서의 연금은 대부분 유일한 수입원이라는 사실을 고려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신연방주에서는 생명보험이나 다른 사적인 예방조치(예를 들면 부동산 취득 같은 것)에 대한 청구가 구연방주에서 널리 확산되어 있는 것만큼의 규모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납입금이 재정적으로 뒷받침되는 법정 연금보험은 미래에도 역시 노후보장의 전체시스템에 있어 핵심기둥을 형성할 것이다. 연방정부의 목표는 사람들에게 미래에도 역시 노후에 적절한 삶의 수준을 보장하고 신연방주에서의 연금생활

자에게 안정감을 제공하는 지불 가능한 연금보장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다.

8.1.2. 2000년도 연금개혁 조치

연방내각은 1999년 6월 23일 내각회의서 포괄적인 “미래의 프로그램”을 결정했다. 미래 프로그램의 중점사항에는 연금구조개혁을 통한 연금 시스템의 쇄신이 속한다. 이 개혁의 목표는 연금보험과 전체 노후보장 시스템의 미래확실성을 위한 지속적인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때 전면에 부각되는 목표는 연금보험의 보험료율을 계속해서 안정화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동시에 연금보험에 있어서의 문제가 젊은 세대들만의 어깨에서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젊은 세대들에 대한 표시이다.

연금보험에 있어서 보험료율을 축소시키고 임금 추가비용(Lohnnebenkonsten)을 인하시키는 첫 단계로 이미 1999년 12월에 예산정비법(Haushaltssanierungsgesetz)이 통과되었다. 이것은 과도기 규정으로서 2000년과 2001년의 연금을 그 전해의 생계비의 상승에 맞게 조절하는 것과 보험료율을 안정화시키기 위하여 환경세제개혁으로부터 나온 조세 납부액의 세부적인 단계를 적용시키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개혁목표를 계속 실행시키기 위하여 독일 연방의회의 연합정부는 2000년 7월 4일 2000년도 연금개혁을 위한 목표를 결의했는데 다음과 같은 핵심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 법정 연금보험으로부터 나온 연금을 보충하는 자유롭고도 자금이 보완된 노후보장을 구축하는 것, 이것은 국가적으로 폭넓게 지원되고 미래에는 법정연금보험으로부터 나온 연금과 함께 노후에, 법정 연금보험에 의해 보장되는 수준보다 더 높은 삶의 수준을 보장하게 될 것이다.

- 조종도구로서 연금계산형식에 균등화요소를 추가시키는 것. 이 균등화 요소

의 도움으로 재정적으로 분산되어 부담되는 연금 시스템의 능력이 2030년도에는 그때 연금생활로 들어가는 평균 봉급자에게 64%의 연금수준이 지켜질 수 있고, 22 %의 보험료률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될 수 있다.

· 2002년부터 순수입에 따른다는 원칙으로 돌아가기: 그러므로 미래에도 연금은 임금발전의 수준을 따른다. 이로서 정치적으로 모든 참여자들이 원하는, 1957년 이래로 내려오는 독일 연금보험의 기본특성이 보존되게 된다. 더 나아가서 이로서 신연방주에서의 연금수준의 신연방주의 수준에로의 동일화 과정이 임금수준의 동일화와 병행하여 진행된다는 것이 확실시된다.

· 자녀양육기간 동안, 그리고 유족을 돌보는 범위에서 자녀의 요소를 고려함으로써 여성들의 고유한 기대권(Anwartschaften)을 개선시키는 것.

· 직업불능연금과 생계불능연금의 법을 새로이 구성하는 것. 건강상의 업무능력에 따라 두 단계로 나누어지는(반 혹은 완전) 생계감소연금을 도입하고 생계감소연금을 보장할 때 노동시장상황에 대한 고려를 지속함으로서,

· 노후때와 생계불능시에 기본적 사회보장의 물질적인 목표를 노후의 가난을 피함으로서 실행시키고, 지속적인 생계불능시에는 사회구호법의 계속적인 발전을 통하여 실행시키는 것으로 이 사회구호법의 발전은 사회구호에 대한 요청을 유효하게 하는 것을 용이하게 만든다.

8.1.3. 자금이 보완된 노후보장의 지원

기업의 노후보장과 개인적인 노후보장은 신연방주에서는 지금까지 노후에서의 삶의 수준을 보장하는데 아주 미미한 역할만 했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신연방주에서 기업의 노후보장은 40세에서부터 60세 이하의 사람들에게는 비교적 미미한 역할만 하고 있다. 이렇게 미미한 비율의 원인은 동독 기업의 경제적인 상황이 평균적으로 나쁘고 노동시장에서의 사정이 좋지 않은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사적인 대비책 - 생명보험과 사적인 연금보험 - 에 있어서는 신연방주나 구연방주나 참가 수준이 비슷하다(동독 : 59%, 서독 : 64%). 여성들에 있어서는 신연방주의 수준이 52%로 서독의 비율인 40% 보다 심지어 높다. 사적인 생명보험의 평균 수준은 신연방주에서는 특히 구연방주 수준의 60% 밖에 되지 않는다. 그 원인은 단지 아주 적은 수의 시민들만이 동독 시절에 이미 생명보험에 들어있었고 통일 후에야 비로소 많은 동독 사람들이 생명보험이나 사적인 연금보험 계약을 체결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사적인 대비책은 1936년과 1955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에게는 노후에 수입상황의 지속적인 개선에 전혀 영향을 줄 수 없다. 여기로부터 파생되는 평균적인 서비스도 특히 신연방주에서는 미래에도 역시 아주 미약하다. 서비스의 수준은 수입의 수준과 명백히 연결되어 있다. 수입이 높을수록 사적인 보험으로부터 기대되는 서비스의 수준은 높다. 평균적인 서비스는 연금생활에 가까운 연령 그룹의 사적인 생명보험의 경우에 젊은 연령 그룹보다 못하고 여자들에게 보다 남자들에게 더 수준이 높다. 이때 생명보험으로부터의 일회적인 자금서비스에 관한 한, 보장되는 보험액은 기대수명의 기초 위에 65세 되는 해에 월별 배정액으로 환산하면, 관련자 한 사람 당 평균 기대되는 지불금액은 서독 남자의 경우 419 마르크와 동독 여자의 경우 163 마르크 사이이다.

이러한 출발상황에 직면하여 국가적으로 널리 지원되는, 법정 연금보험을 보충해주는 자금이 보완된 자발적 노후보장제도의 구축은, 2000년 연금개혁의 목표에서 마련되었듯이, 신연방주에서 더욱더 많은 의미를 얻고 있다. 지원은 보충적인 노후보장제도의 구축과 병행하여 행해져야 한다. 이 제도의 구축은 첫해에는 총수입의 0.5%로 시작하는데 이러한 보장에 대한 투자는 그 후의 7년 동안에는 매년 0.5%로 인상되고 8년째에는 총수입의 4%로 최종가에 도달하게 된다.

8.2. 광범위한 보건제도

건강은 모든 개인에게 있어서, 공공의 의식 속에서도 그리고 사회보장 시스템을 위해서도 높은 가치를 지니는 것이다. 그러므로 통일 이후에 신연방주에서의 보건제도의 발전에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었다. 10년이 지난 이후 광범위한 동일한 수준의 건강보호 시스템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게 되었다. 급속한 템포로 동독 보건시스템은 구연방주의 시스템과 동일해졌다. 구 동독의 보건시스템에서 단지 몇 개의 요소만이 보존되어 받아들여졌는데 예를 들면 연방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신연방주와 베를린에 의해 구동독 암기록서를 계속 유지한 것이다. 새 정부는 자신의 과제를 특히 보건정책에 있어서 노동상황과 삶의 상황을 계속적으로 동등화하는데 보고 있다. 1999년 1월 1일 발효된「법정 의료보험에 있어서의 연대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GKV-SolG)」으로 의료보험의 서독-동독 간의 재정이전이 2001년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 확실시되었다. 이로서 신연방주에서의 의료보험은 경제적인 발전의 결과로 더 나빠진 수입상황을 평준화하기 위한 계속적인 재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연방주에서 계속되고 있는 법정 의료보험(GKV)의 나쁘게 발전되고 있는 재정상황은 - 여기서 특히 일반 지역보험들(AOK, 작센주 AOK를 제외하고)은 지난해 통일로 인해 생긴 부담은 신연방주에서의 법정 의료보험에 의해서만 혼자의 힘만으로 떨쳐질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입법자는 통일이 된지 10년 후 동독 법정의료보험의 상황을 서독 법정의료보험의 상황에 마침내 동등화 되도록 유도하기로 결정하였다.

그에 따라 1999년 말 법정의료보험에서의 법률동등화법을 통과시켰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2001년 1월 1일부터 법정의료보험에서 신연방주에 해당되는 특별한 규정은 없앤다. 그리고 아직도 존재하는, 보험가입자, 보험급여자와 의료보험을 위한 서로 다른 전제조건이 사라져야 한다(하나의 예외는 단지 -예를 들어 폴리클리닉의 허가 때와 같이- 신연방주에서의 특별한 상황을 미래에도 고려해야 하는 그러한 분야에만 해당된다).

- 이 시점부터 구연방주에 대해 규정된 계산가치가 통일적으로 전 연방지역에 모두 해당된다. 이렇게 되는 한 구연방주와 신연방주의 분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동시에 이 법에서는 전 독일의 위험구조의 동등화를 2001년부터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결정되었다. 이러한 재정동등화를 통하여 특정한 위험요소의 차이, 예를 들면 보험회원의 연령구조와 성별구조의 차이나 혹은 의료 보험회사간의 차이도 균등화된다. 이를 통해서 의료보험의 보험률이 너무 많이 차이나는 현상이 기피되고 의료보험경쟁을 위한 동등한 전제조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지금까지 동독과 서독에 분리되어 고려되었던 보험지출이 이 시기에 완전히 균등화된다. 그때까지 아직 낮은 수준의 신연방주에서의 표준지불은, 2001년도 동독과 서독에 있어서 연방평균에 대한 차이를 각각 25% 씩 감소시키고 그 이후 몇 년 동안 각각 12.5% 씩 더 감소시킴으로서 균등화된다. 첫 번째 동등화 단계를 거친 후에는 즉, 2002년도에는 이러한 조치가 보험률에 미치는 영향이 검토된다.

이러한 법적인 규정이 없었다면 2000년 1월 1일까지 동독 의료보험의 엄청난 보험률 인상은 결코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 대신에 심지어 일반적인 평균 보험률이 13.9% 에서 13.8%로 인하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로서 서독 법정의료보험의 보험률 수준과의 거리는 0.4%에서 0.3%로 감소되었다.

2000년부터의 법정의료보험 개혁법 또한 신연방주에서는 여자환자들과 남자환자들뿐 아니라 보험급여자를 위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보험계약 체결시에도 동독에서의 대가의 증가에 대한 최상한계가 더 이상 동독과 서독으로 분리된 “기본임금률(Grundlohnrate)”에 따라서가 아니라, 기본임금률의 증가가 미미하면 전연방의 상승률 수준에 따른 증가에 따라서 한다. 이를 통해서 증가가 미미하거나 동독 의료보험의 보험료 납입의무가 있는 수입의 감소가 자동적으로 보험급여자의 측면에서 그에 해당되는 낮은 변화율로 연결되는 현상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만약 동독의 비율이 서독의 비율보다 높으면 더 높은 증가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

8.2.1. 간호보장 (Pflegeversicherung)

신연방주에서는 간호보장제도를 도입한지 5년 후 긍정적인 중간평가가 내려질 수 있다:

연방은 간호보장법(Pflegeversicherungsgesetz) 제52조에 따라 1995년부터 국민의 응급 간호, 부분입원간호, 완전입원간호를 위해서 그리고 구연방주의 간호수준에 적응하기 위해 기간상 2002년까지 제한적으로 매년 8억 마르크 규모의 재정적인 원조를, 즉, 총 64억 마르크을 보장한다.

1995년부터 1999년까지는 378개의 시설이 가동될 수 있었다. 이를 위해 신연방주에서는 지금까지 31억 마르크가 투입되었다. 주들은 공적인 투자금의 적어도 20%가 주와 지방의 자금으로부터 나온다고 확인했다. 주의 투자프로그램은 당시 (2000년 1월 1일 상태) 에 약 72억 마르크 규모의 총 827개 개별 프로젝트를 포함하고 있다. 이중 약 52억 마르크는 연방의 재정원조로 계획된 것이다.

그 외에도 1991년부터 “보호를 요하는 환자의 간호를 개선시키기 위한 모델 프로그램”의 범위 내에서 73개의 프로젝트를 위해 약 1억 3,500만 마르크 규모의 자금이 외래 시설과 종일간호와 단기간호 및 입원 간호시설을 위해 지급되었다.

병원투자의 영역에서는 연방은 신연방주에게 1995년에서 2004년까지 매년 7억 마르크의 규모로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이러한 연방자금의 투입은 노동시장 상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8.2.2. 의료 재활과 직업적인 재활

신연방주에서는 지난 몇 년간 사회보장 담당자들에 의해서 연방의 지원을 받아 수많은 의료 재활기관이 설립되었다 (7개의 모델 의료 재활 시설과 2개의 의료적, 직업적 재활 시설의 건축과 설비).

그사이에 신연방주에서는 172개의 인가된 장애인들을 위한 작업소가 있다. 여기서는 장애로 인해 일반적인 노동시장에서는 고용될 수 없는 약 32,000명의 사람들이 적절한 직업교육을 받고 자신의 능력에 맞는 임금을 받는 일거리를 찾을 수 있다. 연방은 주와 노동청과 공동으로 이러한 시설의 건축과 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연방은 이를 위해 그리고 숙식시설을 위해 지금까지 12억 마르크를 지원했다.

8.2.3. 안티 D 원조법 (Das Anti D-Hilfegesetz)

이 법은 1978년과 1979년에 구동독 시절 소위 “안티 D” - 이뮨프로필락스(Immunprophylaxe) 의 범위에서 전염병에 걸린 면역글로빈(Imunglobelinen)의 투여를 통해 C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여자들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규정한다. 구동독 시절 가장 큰 의약품 스캔들 후 20년 동안 1,250명 이상의 사람들이 만성적인 간염(Hepatitis)을 앓고 있다.

연방보건법과 연결하여 연방전염병법에 따라 지금까지 적용된 규정은 여러 측면에서 보아도 불충분하였다. 만성적인 환자의 대다수가 전혀 연금을 못받거나 단지 최고 191 마르크의 월 최저연금을 받았다. 2000년 1월 1일 까지 소급되어 효력을 발생하는 안티 D 원조법 상의 급여에는 기본적으로 월별 연금지불과 일시지불에 있다. 월별 연금은 생계능력이 30% 감소(Minderung der Erwerbsfähigkeit: MdE)할 때부터 시작되고 생계능력의 감소 정도에 따라 500 마르크에서 2,000 마르크로 단계적으로 되어있다. 지불금액은 매년 유동적이다. 연금인상은 지금까지의 연금지불방식에 비해서 해당자에게 월등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일시지불은 7,000 마르크(생계능력 감소가 10-20%일 경우)에서 30,000 마르크(생계능력 감소가 60% 이상일 경우)로 분포되어 있다. 이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만성적인 C

형 간염(Hepatitis C)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법적 상황에 따라서도 또 이 법에 의해서도 연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 그룹에게도 도움을 주었다.

합의된 재정지원 범위인 1,000만 마르크 중에서 매월 연금지급을 위한 비용은 50% 마다 연방과 주에 나눠진다. 이중에서 12.4%는 구연방주에서 37.6%는 신연방주와 베를린에 의해 부담된다. 이것은 매년 우선 약 610만 마르크에 달하고 유동성으로 인해 혹은 해당자의 생계능력의 감소가 상승할 때, 혹은 다른 인정사항이 있을 때 규칙적으로 조금씩 상승한다. 2000년에 지불되기 시작하는 1,500만 마르크 규모의 일시지불 비용은 연방이 혼자 부담한다.

8.3.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변화 속의 여성

현대화된 사회의 근본적인 기조에는 남성과 여성의 동등화가 포함된다. 모든 삶의 영역에 독일 연방의 모든 지역에서의 여성과 남성에 대한 동등한 삶의 기회는 우리 정부의 목표이다. 그러므로 신연방주에서의 여성들의 직업적인 기회를 향상시키고 실업을 퇴치시키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여성들이 생업에 참가하는 것은 역동적인 경제를 위한 전제조건이며 특징일 뿐만 아니라 독일의 내적 통일의 완성을 위한 과정의 일부분이다.

직업에서의 동등화에 있어서의 출발을 발단시키기 위하여 1999년 경제계와 노동조합과의 긴밀한 대화가 시작되었다. 경제계에서의 여성의 평등화를 지원하기 위한 자극 시스템과 도구 - 분야 마다의 특성을 고려하고 기업파트너에게 평등화의 분야에서 자신의 책임있는 행동으로 유도하는 진지한 자극을 주는 그러한 시스템과 도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8.3.1. 프로그램 “여성과 직업”

연방정부는 “여성과 직업”이란 프로그램으로 현대적인 평등화정책의 한 기둥을 세웠다. 이 프로그램은 젊은 여성들의 교육기회를 개선하고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에의 기회와 직업적인 승진가능성을 더욱 확대하고 창업여성들의 불리한 점을 제거하고 가족과 직업노동의 합일가능성을 지원해주고 남성들을 더욱 강력하게 가족 일에 끌어들이고 여성들의 수입차별에 반대하고 교수와 연구에 있어서 여성들의 비율을 높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연방정부의 창업프로그램과 청소년 실업 퇴치를 위한 프로그램은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지원을 위한 명료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정보사회의 미래전망이 밝은 직업을 위한 여성들의 직업교육 및 재교육(Aus- und Weiterbildung) 에 특별히 중점을 두고 있다. “정보사회에서의 혁신과 일자리”라는 행동프로그램에서 연방정부는 이를 특별한 중점분야로 만들었다. 2000년 4월 1일 건립된 능력센터인 “정보사회와 기술에 있어서의 여성”과 정보와 기술 분야에 있어서 최고의 기업과 연방정부와의 공동의 이니셔티브인 “독일 21 - 정보시대로의 출발 (D21)”은 신연방주를 위해서도 미래전망이 밝은 정보와 기술 노동시장에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여성들을 이러한 새로운 정보와 기술분야 직업으로 이끄는 조치를 지원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지금까지의 여성정책적인 도구에 국한되지 않고 성의 측면을 계획과 결정에 있어서 일반적인 원칙으로 만들려고 한다(Gender Mainstreaming). 이러한 계획은 - 이 계획을 실행하고 존중하는 데에는 유럽공동체협약의 제2조와 3조의 초국가적 법적인 의무가 존재하는데 - 정부의 모든 분야가 그 결정에 있어서 각 성의 고유한 출발요건과 여성과 남성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평등 정책적인 점검에는 여성부 장관만의 관할이 아니라 모든 정부임원이 자신의 영역과 자신의 프로그램에서 성의 평등화가 서독과 동독에서 모두 현실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 연방 여성부의 주도하에 전문분야를 망라하는 조정그룹이 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원칙(Gender Mainstreaming)이 모든 정부부처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8.3.2. 여성에 대한 폭력 퇴치를 위한 행동프로그램

여성에 대한 폭력을 퇴치하기 위한 연방정부의 행동프로그램으로서 연방정부는 1999년 12월 1일 처음으로 폭력퇴치의 측면에서 전독일 연방에 유효한 총괄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여성 보호을 위한 많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 - 특히 파트너 간에도 - 은 감소되지 않았다. 이 행동계획은 전독일 연방의 전체 폭력분야에서의 구조적인 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행동계획의 중점은 다음과 같은 영역에 주어진다:

- 전체 사회적인 예방: 예를 들면 폭력없는 교육의 분야
- 법률시행, 특히 해당 여성들의 민법적인 보호의 개선
- 국가적인 제도와 비국가적인 원조제공 사이의 협력, 예를 들면 협력단체인 '여성매매'
- 여성의 집과 긴급전화 그리고 여성매매에 대한 상담소들을 전연방에 걸쳐 네트워크화하는 것
- 가해자와 관련된 작업
- 전문인력의 집중적 교육, 공공의 민감화와 국제적인 협력

전체 계획의 실행은 동독과 서독 그리고 비정부조직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연방여성부는 2000년 4월 12일 이에 합당한 인력으로 이루어진, 가정내의 여성에 대한 폭력 퇴치를 위한 협력단체를 구성했다.

8.4. 청소년과 가족

8.4.1. 가족정책(Familienpolitik)

정권교체로 연방정부는 신연방주와 구연방주의 가족의 상황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는 작업을 시작했다. 연방정부는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하면서 단계적으로 접근하고 있고 물질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가족을 위한 전제조건을 적절히 구성하는 일 또한 계획하고 있다.

8.4.2. 가족급부(Familienleistung)의 균등화

그래서 동독에서는 가족의 상황이 가족급부의 균등화를 통하여 강화되었다. 연방정부는 이미 1999년 1월 1일 까지 첫 번째 자녀와 두 번째 자녀를 위한 자녀보조금을 30 마르크 올리고, 2000년 1월 1일 까지 20 마르크 올려서 270 마르크로 올렸다. 그 외에도 2000년 1월 1일 까지 자녀보조금 대신 유효한 가족공제액(Kinderfreibetrag)을 16세까지의 모든 자녀를 위해 3,024 마르크의 양육비(Betreuungsfreibetrag)로 늘였다.

8.4.3. 양육휴가 (미래에는 "부모들의 시간") 와 양육비의 개선

젊은 가족을 위한 기본조건은 2000년 3월 29일에 연방정부에 의해 결정되고 2000년 7월 7일에 독일 연방의회에서 통과된 양육비와 양육휴가의 개혁을 위한 개정안에 의해서 현저하게 향상되었다. 개정된 법은 2001년 1월 1일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양육휴가의 유동성으로 인하여 부모는 가족을 위한 계획의 여지가 더 많아진다.

- 7개월 째부터 받는 양육비 수령에 대한 수입한계가 약 10%에서 12%까지 증가된다. 자녀보조금(Kinderzuschlag)은 약 14% 가량 증가되고 단계적으로 2003년까지 6,140 마르크로 오른다.
- 부모는 양육비를 일년으로 제한하면 매월 900 마르크까지 받는다.
- 아버지와 엄마는 양육휴가를 동시에 가질 수 있고 지금까지처럼 서로 바꾸어가며 가질 필요가 없다.
- 아버지뿐 아니라 엄마도 양육휴가동안 주당 30 시간까지 생계활동을 할 수 있다.
- 15명 이상의 근로자가 일하는 기업에서 부모는 양육휴가 동안 시간제 노동을 할 권리가 있다.
- 고용주의 동의하에 아이의 나이가 3세에서 8세 사이에 1년간의 양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제 지금까지 보다 더 많은 아버지들이 가족의 물질적인 존재의 기초가 위협받지 않고 양육휴가와 자녀 돌보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엄마들에게는 자녀가 생후 1년 동안에도 직업활동을 할 수 있는 더 많은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다. 동시에 고용주의 바램, 즉 지금껏 보존되어 온 여성인력과 남성인력을, 이들이 양육휴가에 대한 요구를 해도, 완전히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바램에도 합당한 것이다.

가족의 요청을 다시 공적인 관심의 중심에 놓는 것은 가족정책의 목표이다. 그러므로 연방정부는 양육에 대한 책임에 있어 부모를 지원하고 강화시키는 것이 목표이다. 특히 폭력없는 교육에 대한 어린이들의 법적 권리와 함께 연방의회에서 체결된 법안 (민법 제1631조) 과 관련하여 구조적이고 공공에 영향력 있는 조치를 통하여 그렇게 하고자 한다. 법적인 규정은 이 문제에 관한 부모와 공공의 의식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캠페인이나 현장 조치를 통하여 보충된다.

8.4.4. 청소년 정책(Jugendpolitik)

어린이와 청소년 정책에 있어서 연방정부는 젊은 세대에게 특히 신연방주에서 진정한 미래의 전망을 주기 위한 책임 하에 있다. 그러므로 국가와 사회에서의 젊은이들의 직업적, 사회적 통합은 청소년 정책의 기본개념이다.

청소년 실업 퇴치를 위한 긴급 프로그램으로서 전 독일의 청소년 실업률은 눈에 띄게 감소되었다. 청소년 구호의 틀 안에서 이 긴급프로그램은 사회적인 초점에 있어 불이익을 당하는 젊은이들에 대해 집중함으로서 보호된다(5.4 “E&C” 프로그램 참조). 기업, 학교, 자발적인 담당자 및 정치는 신연방주에서도 이 프로그램의 범위 내에서 직업과 사회에서의 청소년들의 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적인 협약을 결성하고 있다. ‘자발적인 사회의 해(Freiwilligen Sozialen Jahres : FSJ)’의 법적인 기초 위에, 청소년들을 교육과 직업에로의 진입을 위한 직업적이고 사회적인 핵심자질양성을 주선해주기 위해 어느 정도까지 사회적인 훈련의 해의 형태로의 자유로운 참여가 적합한지를 1,100명까지의 특별히 불이익을

당하는 청소년으로 시험해 보고 있다. 자질양성의 기초 위에 노동경험과의 연결을 통하여 일자리, 예를 들어 도시지역정화, 병원, 양로원, 휴가기관이나 탁아소, 사회구호기관이나 스포츠연합 같은 곳에서의 배움과 다른 기타 자질양성을 위한 단계가 지원되어야 한다. 지역적인 실천은 특별히 발전이 필요한 41개의 도시구역에서 - 그중 14개는 신연방주에서 - 시작되었다.

신연방주에서의 어린이와 청소년 구호의 새로운 구축은 지금껏 이룩된 구호제공 구조의 배경에서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발전된 구호 담당 환경 구조의 측면에서 볼 수 있다. 0세에서 18세까지의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의 전체 숫자로 볼 때 1998년에는 일인당 신연방주(동베를린을 제외하고)에서는 2,500 마르크가 지불되었는데 이것은 구연방주에서 보다 약 400 마르크가 더 지불된 것이다. 이때 특히 탁아의 분야에서 수요를 충족시키는 높은 표준이 결정적이다. “신연방주에서의 조치”라는 행동프로그램의 범위 내에서 지원된, 청소년업무의 혁신적인 정책형태를 발전시키고 실험해 보기 위한 연합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지속되고 있으며 2001년에 완료될 것이다. 실천프로젝트를 통하여 14세에서 18세까지의 청소년들, 특히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신연방주의 시골지역의 청소년들은 청소년 구호의 제공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어야 한다.

8.4.5. 청소년들의 태도 : 증가되는 신뢰도

제13차 쉘 청소년 연구 “2000년 청소년”의 결과에 따르면 통일 독일의 청소년들은 대부분 미래에 대한 신뢰감을 가지고 있다. 세계화와 유연화 및 급격한 사회 변화가 가져온 산재한 문제와 도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은 대부분이 미래의 도전에 맞설 수 있도록 성숙했다. 더구나 동독의 청소년들 - 특히 젊은 여성들 -은 쉘 청소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서독의 청소년들 보다 심지어 더욱 성과 지향적이고 역동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사실은 여전하다: 즉 동독에서나 서독에서 모두 청소년 실업은 폭넓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

이다. 동독에서의 청소년들은 서독 청소년과 비교해서 자신들의 상황을 더 짐스럽고, 부분적으로는 억압적인 것으로 느끼고 있다.

연방정부의 부탁에 의한 IPOS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자신들의 경제적인 상황에 대한 판단이 1995년의 자료와 비교해 볼 때 특히 눈에 띄게 나아졌다. 이 연구는 “미래에 대한 신뢰감의 성장” 이란 표현을 쓰고 있다. 17세에서 27세 사이의 동독 젊은이들이 1995년에는 35%가 자신의 개인적인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더니 지금은 43%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더 나빠진 교육기회와 노동시장에서의 기회가 함께 성장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다. 그러므로 경제적인 평준화과정이 정부업무의 핵심적인 사안이다.

《IPOS 미래에 대한 신뢰감의 성장 연구》

삶의 상황

응답한 많은 청소년들이 거의 제한되지 않고 자신들의 개인적인 삶의 상황을 좋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서독의 경우에는 96%, 동독의 경우에는 94%의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에 대하여 만족하거나 매우 만족하고 있다.

주요한 개인적인 문제

서독:	학교/ 공부	11%	동독:	실업	14%
	학교/ 공부	13%		학교/ 공부	13%
	직업교육	9%		직업교육	9%

젊은이의 경제적인 형편, 실업

동독 청소년들 중 35%(서독의 경우 51%)가 자신들의 경제적인 상황이 일년 후에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1995년에는 동독의 경우 일년 후에 나아질 것으로 예상한 청소년은 28%에 불과했다.

정치적인 성향

청소년에 대한 실업은 여전히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서독의 경우 66%와 동독의 경우 77%).

정치에 대한 관심은 청소년에게는 여전히 낮다. 강하거나 아주 강한 관심을 가진 청소년은 동독의 경우 19%(1995년의 경우 18%)이며, 서독의 경우 26%(1995년의 경우 27%)이다.

독일통일/ 청소년의 교류

75%의 동독 청소년이 서독방식의 정치적인 체제의 도입은 옳은 것이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단지 12%만이 이러한 결정을 잘못된 것으로 보고 있다.

43%의 동독 청소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독시절의 젊은이들의 상황이 요즈음보다 저 좋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그 경우 37%가 자기 스스로의 경험에서 나오는 그 시대에 대한 정보에서 판단하고 있다.

또한 베를린의 장벽이 무너진 10년 후에 동서독의 청소년들의 인식과 교류가 부족하다. 1999년에 14세에서 27세인 서독 청소년들 중 19%만이 신연방주에 와 보았고, 동독 청소년의 60% 만이 서독에 와 보았다.

젊은이의 전체 느낌

서독 젊은이의 92%와 동독 젊은이의 88%가 독일에서 안락함을 느낀다. (1995년에는 서독에서는 90%, 동독에서는 82%이었다)

9. 미래의 에너지 확보와 환경보호

9.1. 에너지정책

동독에서는 에너지경제가 전통적으로 특히 갈탄에 의존하는 구조였고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모두 아주 비효율적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특히 에너지 전이와 에너지 응용에 있어서 경제성이 결여되어 있고 환경파괴률이 높은 점과 면적에 대한 수요가 크다는 점 등으로 특징지워 진다. 오늘날 신연방주의 에너지 분야에서는 광범위한 현대화가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시장경제적인 구조가 형성되었다. 신연방주는 오늘날 구연방주와 마찬가지로 현대적인 에너지 믹스를 쓰고 있다. 이를 위해 500억 마르크 이상이 투자되었다. 새로운 에너지 생산시설이 건설되었다. 이들은 전세계적으로 갈탄을 베이스로 한 발전소 중에서 가장 현대적인 시설들이다.

160개 이상의 시영전력회사가 설립되었다. 이들은 발전-난방 연결(Kraft-Wärme-Kopplung : KWK)의 사용시에 원격난방공급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다. 이를 위해 원격난방 지원프로그램이 도움을 주었다. 총 12억 마르크 규모의 연방과 연방주의 지원자금에서 6억 마르크가 원격조정의 현대화를 위해 투자되었다. 오늘날에는 신연방주에서의 주택의 28 %가 원격난방을 공급받고 있다. 발전-난방 연결 시설(KWK-Anlagen)에서의 전기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조치가 효력을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동독 발전-난방 연결 시설의 경영자에게도 도움이 된다.

가정과 소규모 사용자에게 있어서 에너지 사용은 엄청나게 변하였다. 이전에는 난방을 위한 목적으로는 에너지 수요의 65%가 갈탄으로 충당되었고 가스의 비율은 단지 6%에 불과했던 반면 그 동안 상황은 거의 반대로 되었다. 오늘날 이 분야에서의 가스의 비율은 41%에 달하고 화석연료의 비율은 13%로 감소되었다.

대체 에너지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발전을 확인할 수 있다. 신연방주에서는 총 1,500 MW 성능의 2,000개가 넘는 풍력장치(Windanlagen)가 사용가능하다(2000

년 중반의 상태). 이로서 독일에 설치된 풍력발전용량(Windkraftkapazität)의 35% 이상이 신연방주에 소재해 있다. 2000년 4월 1일 발효된 대체에너지법(Erneuerbare-Energien-Gesetz: EEG)을 통하여 풍력에너지 사용을 계속 확대하는데 있어서 긍정적인 발전이 특히 국내에서도 가능하게 되었다. 풍력에너지 소재지에 따라 차별화된 요금으로서 특히 신연방주를 위한 투자에의 매력이 더해진다.

이러한 발전과 더불어 환경파괴에의 부담이 극도로 경감되었다. 단지 갈탄발전소의 현대화와 신설을 통해서만도 먼지 방출이 99% 이상, 유황의 방출이 약 88%, 산화질소의 방출이 약 74% 감소하였다. 새로운 발전소의 더욱 효과적인 성능수준으로 인해 같은 전기생산에 있어서도 더욱 적은 양의 갈탄이 사용되었고 이로서 이산화탄소의 방출량도 1/3로 감소했다.

9.1.1. 갈탄에 의한 발전의 확보

신연방주에서의 갈탄에 대한 지원은 거의 6,500만 톤에 달하고 이로서 90년대 초의 지원의 단지 20% 밖에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탄은 발전과 일자리 확보에 있어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갈탄은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제공된다. 물론 가정의 에너지 담당자는 전기 시장의 자유화와 그로 인해 인하된 전기료로 인하여 추가적인 경쟁압력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갈탄 기업으로 하여금 다른 합리화 조치를 취하도록 강요한다. 신연방주에서는 여기에 덧붙여서, 에너지 공급기업 VEAG는 발전소 파크(Kraftwerkpark)와 전기선을 새로 하기 위한 100억 마르크 이상의 수준의 투자로 인해서 아직도 엄청난 자금공급을 해야만 하고 이 때문에 한시적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난점이 따른다.

그러므로 연방정부는 서독의 연합기업과 함께 VEAG의 지분소유자로서 1999년 말 안정화 모델(Stabilisierungsmodell)에 합의했다. 여기에서 중요한 측면은 - 신연방주와의 합의하에 - 동독 갈탄을 통한 발전의 확보(VEAG의 발전소 블록과

쉬코파우(Schkopau) 발전소로부터 나오는 갈탄 전기가 적어도 50 TWh/a가 되어야 한다)와 지분소유자를 통해 한시적으로 재정적인 부담을 인수시킴으로서 동독이 전기 경쟁에 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안정화모델의 실현은 끝날 수가 없었는데 왜냐하면 VEAG에 관여한 중요한 지분소유자들(REW Energie AG, VEW AG, Preussen Elektra AG와 Bayernwerk AG)이 합병 콘트롤 절차의 범위 내에서 VEAG에 대한 자신들의 할당에 대해 발표할 의무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외에도 합병 파트너들에게는 경쟁관청(Wettbewerbsbehörden)으로부터 새로운 원매자에게 할당량을 매각할 때까지 VEAG의 청산을 확실히 하고 "새로운" VEAG를 위한 전기매출에의 특정한 장기적인 의무를 인수하도록 과제가 주어졌다. "새로운" VEAG로서 독일 전기 시장에 더욱 강력한 경쟁 참가자가 만들어 져야 한다.

1994년의 VEAG와 LAUBAG 사유화 계약에 따라 새로운 소유자는 같은 가치의 실가를 가져야 하고 사유화 계약의 조건, 특히 경쟁력 있는 동독 갈탄의 발전에 대한 의무를 부담해야만 한다. 사유화 계약의 조건에는 VEAG를 동독의 기업으로서 유지하기 위한 핵심적인 전제조건으로서 VEAG 안정화 모델의 조건과 재정적인 파탄상태를 극복하는 것이 포함된다.

사유화 계약은 새로운 인수자에게 기업의 할당을 발표함에 있어서 연방정부의 동의의 의무를 마련해 놓고 있다. 이러한 사전의 동의에 대한 의무는 합병 파트너에 대한 경쟁관청의 명령에도 들어있는 것이다. 이때 연방정부는 사유화를 통한 해결의 목표가 계속 확실시되고 VEAG 안정화를 위한 의무가 새로운 인수자들에 의해서도 인수될 수 있도록 주의할 것이다.

9.2. 환경 보호

지난 10년 동안 동독에서의 환경 상태는 대기 유지와 하천보호에 대한 광범위한 투자를 통하여, 그리고 좀더 소규모의 환경보호적인 산업생산방식을 통하여서 총괄적으로 개선된 이후에 오늘날에는 개별적인 침해요인의 감소가 전면에 부각되지 않는다. 이제는 지속적인 발전에 있어 더욱더 복합적인 과제를 처리하여야 한다. 이것은 특히 기후보호(Klimaschutz)와 종족보호(Artenschutz), 원천보호(Ressourcenschonung) 및 환경친화적인 역동성에 대한 지원 등에 해당된다. 중요한 과제는 미래에도 역시 하천보호, 특히 인접국가와의 협력을 통한 엘베강과 오더강의 하천보호와 그 이전과 마찬가지로 구부채의 정리와 갈탄채석장의 재개발 및 우라늄광산지역의 수리이다.

9.2.1. 구부채의 정리(Altlastensanierung)

생태학적인 구부채에 대해서 연방과 신연방주는 1992년 행정조약에서 합의를 보았다. 이에 따라 구부채 정리를 위한 비용, 이것은 필요한 정리를 위해 자유로이 지급한 후에 신탁청 분야로 부터 온 이전의 기업에 떨어진 것인데, 이것이 기본적으로 60(연방) 대 40(주)으로 나뉜다. 이것을 위해 이 조약은 1992년부터 10년간 매년 10억 마르크 까지의 재정지원 틀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중요한 큰 프로젝트를 위해서 연방은 또 다른 재정지원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재정원조비율은 연방 75% 대 주 25% 이다). 대형 프로젝트로는 갈탄정비 프로젝트 외에 다음의 23개의 프로젝트가 확정되었다:

연방주	큰 프로젝트
베를린	스프리 산업지역
메켄부르크 포어폼먼	비스마르 조선창, 로스토크 조선창 스트랄준트 조선창
브란덴부르크	오라니엔부르크 지역, 브란덴부르크 도시, 바스프 쉬바르쯔하이데 주식회사, 쉬베트 PCK
작센 안할트	볼펜 필름공장, 비터펠드 화학 주식회사, 부나 주식회사, 로이나베르크 주식회사, 히드리에르베르크 짜이츠 유한회사, 만스펠드 주식회사, 막데부르크-로텐제 지역 고메른 석유, 천연가스
작센	뵐렌-리펜도르프 올레핀베르크, 프라이베르크의 삭소니아 주식회사, 라우타베르크 유한회사, 드레스덴-코쉬츠/그릴터제
튀링엔	칼리-베라 주식회사, 칼리-쥐드하르츠 주식회사, 로지츠의 환가회사

* 출처 : 연방환경부

구부채의 정리를 위한 행정조약 이행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신연방주의 대표자와 통일 관련 특수 업무청 및 해당 연방국의 대표자로 이루어진 공통의 협동그룹인 행정조약 "환경적인 구부채"는 "최종적인 합의(총액화)"를 통하여 연방의 재정지원 의무의 규모를 확정할 수 있고 우선 정리비용이 충분히 확실하게 있으면 대형 프로젝트를 각 주의 단독적인 의무에로 넘겨줄 수 있다. 이것은 그 사이에 3가지 대형 프로젝트, 즉 멕클렌부르크-포어폼머른주의 베르프트산업, 작센-안할트주의 "Mansfelder Land" 프로젝트와 작센주의 대형프로젝트 "삭시오나(Saxiona)"에서 실제로 발생하였다. 1999년 튀링엔주와 일반계약이 체결되었다. 통일관련 연방 특수업무청은 멕클렌부르크-포어폼어른, 작센, 작센-안할트주와의 해당되는 협상에 돌입했다.

9.2.2. 방사성 구부채의 정리 (Sanierung radiologischer Altlasten)

신연방주에서의 가장 크고 어려운 구부채에는 작센과 튀링엔에 있는, 처음에는 독일 소유의 나중에는 소비에트-독일 소유의 우라늄철광산의 유산이 속한다.

연방은 신연방주에서의 특별한 상황 때문에 독일 통일을 재확인하는 의미에서 비스무트 공장부지의 정리를 위한 책임을 떠맡았다. 오로지 연방의 자금으로 지원되는 이 환경정화프로젝트의 목적은 가능한 다시 이 지역에서의 국민을 위한 온전한 환경과 생활조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지금까지 사용된 자금(62억 마르크)으로 연방기업 비스무트 주식회사는 광범위한 폐쇄조치(Stilllegungsmaßnahmen)와 정리조치를 단행했는데 이것은 해당 지역에서의 방사성 유해물질과 전형적인 유해물질을 가진 환경오염을 현저하게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이로서 활성화를 위한 기본적인 전제조건이 마련되었다. 론네부르크와 아우에/슐레마에서의 2개의 재생프로젝트가 EXPO 2000에서 소개된다. 이때 현대적인 수리기술도 소개된다. 비스무트 프로젝트는 그 환경적인 중요성 이외에도 우라늄철광산의 경제적이고 구조정책적인 발전을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그 지역에서의 중요한 고용주이며 평균이상의 직업교육, 비스무트 유한회사를 통한 급부를 여러사람에게 많이 나누어 주는 것). 그 외의 환경개선은 근본적으로 2000년에서 2005년까지 완료될, 아직 오픈된 광산과 수직갱도의 계속적인 정지로 시작될 것이다.

앞으로 8 내지 10년 동안에는 노천 탄광메꾸기의 계속과, 부지 및 슬래그더미 정화의 지속, 수질정화시설의 설립과 운영의 계속이 우라늄광산 유산의 지상에 노출된 분야에서의 수리업무의 핵심적인 중점이 될 것이다. 현재의 평가에 따르면 해체 및 정화작업은 정화프로젝트의 상태에 따라 2010년에서 2015년 사이에 기본적으로 종료될 것이다.

그에 연결해서 장기간에 걸쳐 정수, 정화시설의 수리와 감독 업무 및 환경탐지장치 같은 후속정비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1999년 말까지 단행된 정화조치에 관한 개관은 다음의 도표가 제공한다:

동굴건물(원래 111 km2의 지하 면적과 1,395 km의 개방통로와 길)
유해물질이 있는 1,372 km의 길과 통로를 처리함
4천 4백만 입방미터의 동굴을 처리함
477만 입방미터의 지하 동굴공간을 채움
124만 입방미터의 굴과 지표면을 채움

언덕 처리
6,200만 입방미터의 흙더미를 옮김.

건물의 철거
13만 8천톤의 고철과 52만 1천톤의 폐기물을 처리함

산업폐기물의 처리(14개 시설, 723 ha의 면적)
380만 입방미터의 물질로 채워넣음.

공장표면 정리
270 ha의 면적을 사용가능하도록 만듬.

리히텐베르크 노천광의 처리(원래 9천 입방미터가 개방되어 있었음)
5,100만 입방미터를 채워넣음.

9.2.3. 원자력 발전시설의 해체(Stilllegung von Atomkraftanlagen)

그라이프스발트-루브민과 라인베르크-멘츠에 있는 소련식 원자력 발전소는 1991년 이후로 가동이 중지되었는데 연방정부에 의해 지원된 발전소 해체작업은 올해에도 계속된다. 이때 여러 분야에서 최초로 소련식 발전소에 있어 기술적인 노하우가 투입되는데 예를 들면 오염된 방사성 블록을 원격조정으로 해체하는 경우 같은 것이다. 다 타버린 화기요소의 중간적재와 해체시에 떨어진 방사성 폐기물의 중간적재는 북부 중간적재소에 있는 소재지에서 이루어진다.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짐으로서 소재지 루브민을 에너지와 산업의 기지로 이용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더욱 개선되었다. 그래서 초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인

GuD-발전소의 설립을 위한 계획이 지속적인 진보를 하였다. 연방과 주는 산업기지의 투자가를 위한 계획의 확실성을 마련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틀을 최대한 이용할 것이다. 이를 위해 미네랄오일세 납부의무로부터의 한시적인 해방과 같은 조세적인 감면이나 그 외에 현존하는 지원도구들의 투입 등이 검토된다.

9.2.4. 갈탄의 정화 (Braunkohlsanieru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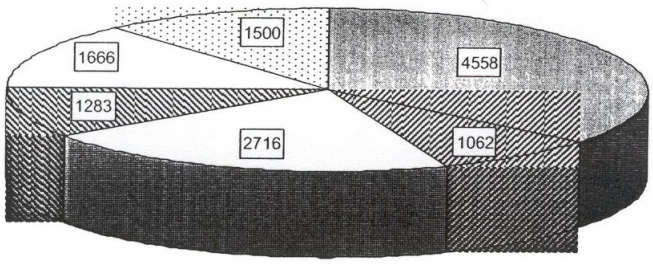
구동독지역의 상당히 넓은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갈탄탄광의 해체와 갈탄개량(Braunkohlveredelung)은 심각한 생태적인 파괴를 가져왔다. 중부독일과 라우지츠 지역에 남겨져 있는 이러한 "갈탄탄광 구부채(Braunkohlealtlasten)"의 정화는 통일 이후 바로 고용창출조치의 일환으로 시작되었고 1933년 이후 연방과 동부독일의 갈탄탄전지역의 주 사이에 체결된, 환경적인 구부채에 대한 재정지원 규정에 관한 행정협정(구부채 재정지원에 관한 행정협정 VA-Altlastenfinanzierung)의 기초 위에서 이루어진다.

1998년부터 2002년까지의 기간동안에는 보충적인 행정협정(갈탄의 정화에 관한 행정협정 VA-Braunkohlesanierung)을 통해서 재정이 확보되었다. 이에 따르면 매년 12억 마르크까지 쓸 수 있다. 2002년 이후의 과제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해서는 보충적인 행정협정이 연방과 주가 적절한 시기에 합의하에 가능한 수요에 맞는 재정적인 틀을 약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갈탄의 정화를 위해서 1999년에는 "고용집중적인 조치(Beschäftigungsintensive Maßnahmen)" 프로그램과 연결하여 약 11억 마르크가 사용되었다. 이로서 1991년 갈탄정화 작업의 시작 이래로 연방과 주에서 제공된 자금이 100억 마르크를 넘어선다. 그 이전 해와 마찬가지로 동독 갈탄지역의 갈탄정화작업으로부터 중요한 노동시장 정책적인 효과가 나타난다. 즉 1999년에는 약 12,000개의 일자리가 유지되거나 새로 마련되었다. 정화작업을 그 지역의 기업에 위임함으로서, 혹은 직업교육 조치를 통하여 - 2000년 1월 1일 까지 681명의 훈련생들이 직업훈련을 받았다 - 갈탄정화작업은 신연방주의 갈탄지역에서 중요한 구조정책적

인 기여를 한다.

《일자리 효과》



이전의 노천탄광의 구멍에서부터 물이 범람함으로서 많은 곳에 여가와 휴가 장소로서 높은 가치를 지닌 호수가 생겨났는데 예를 들면 라이프찌히 시의 바로 외곽에 코스푸덴의 휴면갱도의 범람을 통해서 호수가 생긴 것이다. 중부독일 지역의 노천탄광 정화에 있어서 20개 중에서 16개의 노천탄광이 엄청난 탄광기술적이고 지리기술적인 작업으로서 진행하는 기본정화는 그 외의 휴면갱도 범람이 1999년에 시작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진행되었다. 구 노천탄광 비트니츠, 남서 델리치, 고이체(시험적 범람), 북 골파, 나흐틀스테트 및 노천탄광 에스펜하인의 "마르클레베르크 호수"가 이에 해당된다. 가이젤탈의 범람을 위한 탄광기술적이고 수리건설적인 전제조건(2001년부터)은 미래의 작업의 중점을 성격짓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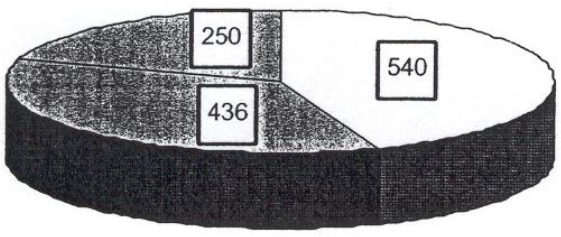
라우지츠 지역의 정비 노천탄광에 있어서는 핵심적인 탄광기술적이고 지리기술적인 작업이 5개의 프로젝트로(20개 중에서) 완료되었다. 9개의 휴면갱도가 범람 중에 있는데 그중 2개는 지난해 초에 범람하기 시작했다(이전의 노천탄광인 제제와 슐라벤도르프). 올버스도르프의 노천탄광의 범람은 이미 끝난 상태다. 자연환경조성과 인프라구조는 여기서는 이미 많이 진전되어서 전체 지대가 1999년 주의 정원조경대회(Landesgartenschau)에 소개될 수 있을 정도였다. 미래에는 저수지 로자 II(2004년에 가동준비가 가능)의 확장조치와 젠프텐베르크

지역과 베르츠도르프 지역의 범람조치를 위한 다른 준비작업이 중심에 놓이게 된다.

원래 100개가 넘는 갈탄개량의 산업중심지의 정화(브리켓 공장, 발전소, 유황, 코커스, 가스발전소)는 분해, 폐기, 중지 및 처분조치에 있어 이미 많이 진전되었다. 중부독일에서는 55개의 중심지의 모든 중요한 작업은 개관할 수 있는 나머지 작업까지 완료되었다. 라우지츠에서는 이것은 31개의 프로젝트에 해당된다. 낡은 몇몇 유황지대 및 이전의 거대시설지역(뵐렌-에스펜하인, 라우흐함머, 슈바르체 품페)은 중요한 대지오염과 지하수오염(Boden-und Grundwasserkontaminationen)으로 특징지워진다. 이들은 효율적인 기술의 투입과 함께 아주 힘들고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정화작업을 요한다. 작업들은 1999년 이래로 시작되고 BMBF에 의해 지원받은 응용중심의 연구 프로그램에 의해 직접 이루어진다.

두 지역에서는 이전의 노천탄광과 개량공장 분야에서 총 1,200개가 넘는 구부채가 있다고 의심되는 지대가 파악되었는데 이들은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평가와 조사에 따라서 과거에 확정되거나 정화되었고 현재에도 그렇게 되고 있다. 1999년 말에는 다음과 같은 처리수준에 도달했다: 지금까지 이러한 구부채는 540개가 정화되었다. 그 반면에 436개의 경우는 조사에 근거하여 정화의 필요가 전혀 없다. 나머지 약 250개의 구부채에 있어서는 “행위에의 수요(Handlungsbedarf)”가 있었다. 이때 미래의 작업에 있어서의 중점은 지하수정화를 위한 기술에 있다.

《갈탄광산 처리에서 오염추정면적》



라우지츠와 중부독일 탄광 관리회사(Lausitzer und Mitteldeutsche Bergbau-Verwaltungsgesellschaft gmbH: LMBV)는 1999년 토지처분(Liegenschaftverwertung)의 틀 내에서 총 3,174 ha의 토지를 매각했는데 그 중 1,905 ha는 정화토지이다. 예를 들어 작센-안할트의 로이치 소재지에는 20.9 ha의 거대한 토지를 매각하는 것과 관련하여 미국 자동차공급업체인 "New Venture Gear"가 들어설 수 있게 되었는데 이는 약 300개의 일자리을 마련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한 폐쇄된 부동산 기금은 라우흐하머의 이전 노천탄광 클레비츠 지역에 310 ha 크기의 토지(재개발된 쓰레기 퇴적소와 그 이전의 노천광산)를 브란덴부르크주의 최대규모의 풍력에너지시설을 건립하려는 목적으로 사들였다. 각각 1.65 메가와트의 공급능력을 가진 38개의 풍력발전시설은 그 사이에 가동되었다. 마르크클레베르크시(자유국가 작센)는 LMBV에게서 386 헥타르의 정화된 노천탄광토지(미래의 코스퓨덴 호수의 수면과 가장자리 면)를 사들였다. 이 도시의 목표는 주택지역을 개발하고 골프장이나 요트항구 같은 여가시설을 건립하는 것이다. 이때 호수가의 큰 부분은 자연보호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 이전의 노천광산 토지 위와 그리고 폐쇄된 정련소가 있던 소재지 위에 미래의 탄광후속풍경은 까다로운 경제적이고 환경적인 이용목표를 실현시킴을 통해서, 예를 들면 자연친화적인 지대를 형성함으로서 뚜렷한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다.

9.3. 자연보호(Naturschutz)

"국가전체적으로 대표적인 의미를 가진,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는 자연과 환경의 건설과 보호"라는 지원프로그램의 틀 안에서 연방정부는 독일 연방공화국의 특히 중요한 자연환경의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재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원조로서 독일 연방공화국의 자연유산과 생물학적인 다양성의 보존에 기여하게 된다.

1990년 이후로 이 프로그램의 틀 안에서 신연방주의 총 12개의 프로젝트가

재정적인 지원을 받았다. 늦어도 2008년까지 완료되어야 할 이 프로젝트를 위해 3억 3,963만 마르크 규모의 전체비용 중에서 총 2억 4,877만 마르크의 연방자금이 마련되어 있다. 이것은 프로젝트 전체비용에 대한 연방의 재정참여가 73.4% 규모임을 나타내고 있다.

1999년에는 "동독 철광지역의 탄광평야"이라는 프로젝트 (자유국가 작센)가 지원에 포함되었다. 이 프로젝트의 지원자로는 특히 현지에 자리하고 있는 지방 행정기관과 그 현장 혹은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자연보호협회가 연관되어 있다.

《신연방주에서의 자연보호 프로젝트》

연방주	프로젝트	주된 생활공간	지원시기
브란덴부르크	누테-니플리츠-니더룽	습지, 숲	1992-2004
	우커메르키쉐 제	고인물, 초원, 숲, 늪,초지	1996-2007
	운터레서 오데르탈	갯가, 초지	1992-2008
메켄부르크-포어폼먼	페엔네탈 / 페에네-하프-모르	개천, 습지숲, 갈대숲, 초지	1992-2005
	동뤼겐의 경치	잔디밭, 숲, 땅, 초지	
	쉬알제	고인물, 숲,늪, 초지	1992-2003
작센 안할트	드뢈링	초지, 습한 숲	1992-2003
작센	프레설러 하이데 숲과 늪지역	숲, 늪	1995-2007
	니더스프리-하머쉬타트의 연못 지역	숲, 연못, 초지	1997-2007
	동에르츠 산맥의 산초원	산초원, 숲	1999-2008
튀링엔	잘러탈의 무쉘칼크헹에	건초원, 숲	1996-2005
	키프호이저	숲, 초원	1997-2006

* 출처 : 연방자연보호청

9.3.1. 신연방주 자연보호지역의 사유화의 중단

보상-및 변제법의 개정안으로서 동시에 신연방주의 보호지역의 매각이 법적인 규정을 통해 중단되었다. 자연보호지역, 국립공원 그리고 특정 생태 보호구

역의 대규모 대지는 사유화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이로서 연립정부의 합의의 중요한 관심사가 실행되었다.

개별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정해졌다:

- 주와 자연보호협회에게는 50,000 헥타르까지 보호가치가 있는 대지가 무상으로 제공된다.

- 그 외의 50,000 헥타르는 우선적으로 교환되거나 특정한 경우에는 교환가치로서 자연보호를 위해 제공될 수 있다.

- 자연보호 사유화 문제를 위임받은 베를린 소재 토지평가 및 관리회사 BVVG를 통한 모든 자연보호지역 사유화가 있기 전에 각각 해당 주는 이 토지가 자연보호의 이유에서 주의 소유로 넘어가게 되는지 혹은 자연보호협회나 자연보호재단으로 넘어가게 되는지 통보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주는 6개월의 기간 내에 입장을 표명할 수 있다. 이 기간은 신청에 의하여 3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이로서 주와 자연보호협회와 자연보호재단은 신연방주에서의 국가적인 자연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자기들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9.3.2. 생물 서식공간의 연결체계 (Biotopverbundsystem)의 마련

연립정부의 합의는 약 10%의 대지비율을 가진 방대한 면적의 생물 서식공간의 연결체계(Biotopverbundsystem)를 마련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의 실현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현재 전문적인 컨셉트가 마련되고 있는 중이다. 해당 전문기관 사이의 이에 필요한 동의가 가능한 곧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도되고 있다.

10. 농촌지역의 지원

10.1. 농업에 대한 지원

연방은 “농업구조와 어촌보호의 개선(Verbesserung der Agrastruktur und des Küstenschutzes : GAK)”이라는 공동의 과제의 틀 안에서 신연방주에서의 농업구조지원에 참가하고 있다. 이로서 연방은 능력있는 농촌경제의 발전과 농촌지역의 삶의 상황의 개선을 위한 아주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지난 몇 해와 마찬가지로 1999년에도 개별기업적인 투자지원이 신연방주에서의 GAK 지원의 핵심을 이루었다. 연방은 1999년 약 1억 3,500만 마르크로 이 분야를 지원했다. 신연방주는 이 지원의 틀 안에서 보증을 제공해 줄 수 있었고 이로서 주로 농경지 중심의 기업의 자기자본이 취약한 불리함을 감소해 줄 수 있었다.

개별기업적인 투자원조 이외에 연방은 1999년 시장구조의 개선을 위한 지원조치에 약 1,920만 마르크의 규모로 참여하였다. GAK의 틀 안에서의 신연방주 지원에 있어서 또 다른 중점은 변제보조금(Ausgleichszulage)이다. 이것은 문화환경의 유지와 소재지에 맞는 농업의 보장을 위한 중요한 기여를 한다. 이 조치를 위하여 연방은 1999년 신연방주에 약 1억 1,055만 마르크를 지원했다.

개별기업의 발전에 초점을 맞춘 조치는 농경지정리, 농촌마을의 현대화와 농촌 도로건설 혹은 식수경제적이고 문화건설기술적인 조치 같은 개별기업을 넘어서는 조치를 통해서 보충되었다.

지난 몇해 전에 시작된 신연방주와 구연방주 사이의 GAK 지원조건의 평등화는 1999년에 계속 진행되었다. 1999년 10월에 체결된 2000년에서 2003년까지의 기본계획은 모든 연방주에 대해서 폭넓은 통일적인 지원의 틀을 마련하고 있다. 신연방주를 위한 특별규정은 개별적인 지원원칙(예를 들어 농촌의 도로건설, 농

촌마을의 현대화)을 위해서만 합의되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지원의 수준에만 국한된다. 개별기업적인 투자지원의 분야에 있어서는 보증이 신연방주를 위한 유일한 특별규정이다.

2000년도 연방예산에 있어서 "농업구조와 어촌보호의 개선"이라는 공동의 과제를 위해서 총 17억 마르크 규모의 연방자금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 중 5억 6,100만 마르크가 베를린을 포함한 신연방주를 위해 준비되어 있다. 연방주들은 GAK의 틀 안에서의 조치를 지원하는데 40%(어촌보호의 지원분야에 30%)참여하고 있다. 2000년에는 연방주 측에서 총 약 10억 8,900만 마르크의 규모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베를린을 포함한 신연방주 측에서 약 3억 6,900만 마르크를 마련하고 있다.

10.2. 농경지확보 프로그램 (Flächenerwerbsprogramm)

2000년 7월에 통과된 재산권보충법(Vermögensrechtsergänzungsgesetz)으로 신연방주의 이전에 인민소유의 농경지와 산림지를 위한 경지확보프로그램이 규정되었다. 유럽위원회는 1994년의 보상 및 변제법(Entschädigungs- und Ausgleichsleistungsgesetz: EALG)에 있는 지금까지의 경지확보 규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연방정부에게 그 허용할 수 없는 규정을 다시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농경지의 매입가격은 일반적으로 유통가격에서 35%를 할인하여 산정되었다. 1990년 10월 3일 까지 그 곳에 거주했어야 하는 사실을 매입의 전제조건으로 하는 규정은 삭제된다.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미 체결된 매매계약에 있어 후불이 요구되면 당사자들에게는 이로운 절차가 결정된 것인데, 이로서 해당 기업이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막아준다. 집중적인 협상 후에 소중한 자연보호지역을 보호할 수 있는 규정 또한 마련되었다. 자연보호를 위해서는 이제 100,000 ha가 제공된다. 이 중에서 주들과 자연보호연합 혹은 자연보호 재단들이 50,000 ha까지 무상으로 받는다. 나머지 50000 ha까지는 주가 개인 소유의 토지와 교환하거나 혹은 유통가치를 위해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하여 자연보

호지역의 사유화는 새롭고 지속적으로 소유권적인 기초위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법을 통해서 연방정부는 어떤 하나의 매매계약도 청산됨이 없이 유럽연합법에 합치되게 하는데 성공하였다. 이것은 특히 신연방주에서의 농업적 기업과 많은 소규모의 산림기업을 위해 커다란 의미를 가진다.

11. 예술, 문화, 스포츠

11.1. 신연방주와 베를린의 문화지원

공동의 성장과 내적인 통일을 이룩하는 데는 바로 문화가 큰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신연방주에서의 문화에 대한 지원은 연방정부의 역점사항에 속한다. 주와 지방이 우선적으로 관할권을 갖는 것을 보장함으로서 신연방주에서는 문화정책적인 참여가 눈에 띄게 강화되었다. 신연방주에서의 문화를 위한 '문화와 미디어의 사항에 관한 위임기관(Beauftragte für Angelegenheiten der Kultur und der Medien; BKM)'의 매년 예산은 1999년부터 1998년에 비해서 거의 두 배로 되었다. 연방정부는 국가예산의 정비를 위한 극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지속적으로 효과적인 독일정책적인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문화정책의 표현은 신설프로그램인 "신연방주에서의 문화(Kultur in den neuen Ländern)"이다.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1999년과 2000년 예산기간 중에 1억 5,000만 마르크가 준비되어 있다. 주와 지방은 자금을 보충자금으로서 최고 작은 규모로 투입하기 때문에 건설프로그램의 규모는 5억 마르크를 훨씬 넘어선다. 이것은 추가적인 지원이다. 분배는 브란덴부르크주, 멕클렌부르크-포어폼머른주, 작센주, 작센-안할트주, 튀링엔주의 제안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신연방주를 위한 다른 재정적인 지원은 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11.1.1. 신설프로그램 “신연방주에서의 문화”

신설프로그램 “신연방주에서의 문화”는 그 중점에 있어서 하나의 투자프로그램이다. 건축조치와 조달이 그 전면에 놓인다. 이 프로젝트는 근본적인 개조를 확실히 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주는 새건축과 또한 새로운 문화정책적인 활동을 가능하게 한다. 지금까지 주와 합의한 300개가 넘는 계획의 폭은 전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한 최고의 예술에서부터 지역적인 구조를 규정하는 사회문화적인 앙상블에까지 이른다. 가장 눈에 띄는 개별적인 계획에는 예를 들면 수년동안 계속되는 비텐베르크의 루터할레의 건축개조나 혹은 드레스덴의 위생 박물관, 라이프찌히의 그라시 박물관, 라인스베르크의 성 극장의 건축개조, 그리고 슈트랄준트의 독일 해양박물관을 유럽에서 유일무이한 거북이 연못으로 확대한 것 등이 속한다. 순전히 숫자적으로는 도서관 분야에서의 지원프로젝트가 주를 이루는데 이 프로젝트에는 건물의 개조 뿐 아니라 구건물의 현대화와 기술적인 시설설치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11.1.2. 투자지원법 (Investitionsförderungsgesetz)

인적 물적 비용이 높아서 신연방주에서의 문화시설의 대표자들은 여러모로 건축적이고 기술적인 현대화를 위한 힘이 모자란다. 여기에 연방과 주의 지원프로그램은 동인을 줄수 있고 새로운 시작을 자극할 수 있다. 2000년부터 문화건물의 개조를 위해서도 투자지원법(IfG)으로부터 나오는 자금을 투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신연방주를 위한 이러한 연방 최대의 지원프로그램은 1995년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문화적인 투자에 대해서는 통로가 차단되어 있었다. 2005년까지 매년 66억 마르크의 연방자금이 이 법의 틀 안에서 신연방주로 유입된다.

문화분야가 이 법에 참여할 수 있을지 혹은 얼마나 거기에 참여할지는 연방이 근본적으로 문화계를 위해 지원카탈로그의 확대에 동의하고 난 이후에 주의 차원에서의 결정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자유국가인 작센은 합의된

신설프로그램의 범위 내에서 이미 2,200만 마르크의 투자지원법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연방측에서는 미래에 동독 재건의 범위 내에서 문화지원에 더 높은 가치를 두기 위한 전제조건이 마련되었다.

11.1.3. 그 외의 투자원조

연방은 막대한 자금으로 그 외의 투자에 참여하고 있다.

- 연방은 총 3,000만 마르크로 라이프치히의 조형예술 박물관 - 이 박물관의 초석은 2000년 6월 7일에 성대하게 놓았다 - 의 신건축을 위한 비용의 1/4을 부담한다. 라이프치히의 조형예술 박물관의 회화모음은 신연방주에서의 가장 뛰어난 시민계급의 회화 모음 중의 하나이다.

- 4 개의 또 다른 탁월한 장기적 건축계획은 각각 5백만 마르크의 연방지원금을 받는다: 브란덴부르크의 돔, 비스마르의 게오르게 교회, 크벤드린부르크의 알텐부르크 성과 고도시. 드레스덴의 프라우엔 교회의 재건을 위한 원조의 모범사례에 따라 기본법 제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독일 마르크 기념주화 판매기금으로부터 2,000만 마르크가 제공된다.

11.1.4. 문화재 보호 (Denkmalschutz)

양 독일 국가의 통일로 우리의 건축적 문화적 유산이 현저히 증가했다. 신연방주와 베를린 시의 동부에서의 수십년간의 문화재 보호를 소홀히 한 것으로 인해 이곳에서는 연방정부의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연방정부는 2000년도에도 신연방주에서의 문화재와 역사적인 도심의 확보와 유지를 위하여 2,900만 마르크의 연방자금을 공급한다. 이 자금으로 신연방주에서 약 380개의 문화재가 더 이상의 손상으로부터 보호되고 복원될 수 있다. 이 지원금에다가 “도시건축적인 문화재 보호”를 위한 2억 마르크의 막대한 자금이 더 추가되는데 이 자금으로 127개의 동독 소재의 도시에 있는 역사적인 도심이 정비될 수 있

다. 구동독의 정당조직과 대중조직의 재산으로부터 나온 5,000만 마르크(매년 625만 마르크)의 추가자금은 1997년부터 2004년까지 독일 문화재 보호재단을 거쳐 신연방주와 베를린 동부에 문화재 보호의 확보와 보존을 위해 투입된다. 이러한 원조 조치로서 신연방주에서의 문화재 보호는 연방정부의 문화정책의 중점사항에 속한다.

11.1.5. 수도 베를린

연방정부는 수도 문화 지원정책의 틀 안에서 베를린의 특정한 문화시설을 총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계속하지 않고 그 대신에 2001년부터 개별적인 시설들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연방에 각각 시설의 급부를 결정하는 기관에 있어 적절한 협력을 보장한다는 주와의 합의가 있다.

지원을 받을 전망이 있는 시설들은 각각 그 구조에 있어 서로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그래서 협상이 단 시간 내에 마무리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년초에 2000년도에도 지금까지의 연방의 수도문화지원의 양식을 그대로 계속하기로 합의하였다. 2000년도 수도의 문화지원에 관한 계약은 7개의 아주 중요한 시설의 지원에 총 8천만 마르크를 지원하기로 최종 합의하였다. 2천만 마르크는 혁신적인 개별 프로젝트의 지원을 위해 수도 문화기금에 지불된다.

11.1.6. 프로이센 문화재 재단

수도에서의 연방독일의 문화지원의 중점은 프로이센 문화재단(2000년도 연방의 지원비율: 2억 9,500만 마르크)인데 이 재단의 재정에는 베를린 이외에도 나머지 주들이 참여한다. 베를린의 중심에 있는 전쟁에서 심하게 손상된 도시건축상의 특이한 박물관 섬의 개조는 중심적인 과제이다. 20년에 걸친 지금까지의 계획은 연방정부로서는 수락하기 어렵다. 그래서 연방은 베를린과 함께 개조와 재건축을 위한 시간을 현저하게 단축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재정자금을 지원하려고 한다.

11.2. '등대지원'- 프로그램 (Leuchtturm-Programm)

구연방주에서와 마찬가지로 신연방주에서도 연방은 전국가적이고 국제적인 의미를 가진 문화시설들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들은 문화국가로서의 독일의 의미를 위해 본보기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제도들의 등대와 같은 후광은 지역적인 문화환경의 위상을 결정적으로 각인시킨다. 이들은 이들 도시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매력적이고 그곳 거주자들의 성숙한 자의식을 강화한다. 이러한 "등대들(Leuchttürme)"에 대한 지원은 일반적으로 매우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러나 적절한 표준은 필수 불가결하다. 그러므로 연방은 매년 신연방주에서의 이러한 문화시설의 유지와 현대화를 위하여 매년 7천 5백만 마르크를 투입하고 있다. 이에 속하는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베를린-브란덴부르크 프로이센 성 및 정원 재단
- 바이마르 클래식 재단
- 소르벤 민족을 위한 재단
- 라이프찌히 소재 바하 자료관
- 베를린-브란덴부르크의 예술아카데미 기록보존 재단
- 작센 안할트의 루터기념비 재단
- 슈트랄준트의 독일 해양박물관 재단
- 할레의 프랑켄 재단
- 데사우 뵈를리츠 문화재단
- 바드 무스카우(Bad Muskau)의 퓌르스트 퓌클러 공원 재단
- 브라니츠의 퓌르스트 퓌클러 박물관 공원과 성을 위한 재단
- 아이제나흐의 바르트부르크 재단
- 오더 강가 프랑크푸르트의 클라이스트(Kleist) 기념 연구소
- 카멘츠의 레싱(Lessing) 기념박물관
- 중부 독일 바로크 음악을 위한 회의 및
- 귀스트로(Güstrow)의 에른스트 바를라흐(Ernst Barlach) 박물관, 바드 프랑켄하우젠 (Bad Frankenhausen)의 파노라마 박물관, 베를린의 산업적인 형

성에 관한 갤러리, 혹은 우제돔(Usedom)의 코제로프(Koserow)에 있는 오토 니마이어 홀슈타인(Otto-Niemeyer-Holstein) 아뜰리에를 위한 프로젝트 지원

특별히 강조할 만한 것은 베를린 브란덴부르크의 프로이센의 성과 정원 재단 및 바이마르 클래식 재단을 위해 연방의 지원이 증대되었다는 것이다.

베를린과 브란덴부르크의 예전의 프로이센 성과 정원들은 1994년 양 주의 공동재단, 즉 베를린-브란덴부르크의 프로이센 성과 정원 재단에 함께 통합되었다. 동시에 연방은 이들 주와 공동의 재정부담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재정부담은 1999년 새로 규정될 수 있었다. 브란덴부르크, 베를린 그리고 연방은 건물의 유지와 건물의 수리정비에 관한 비용을 분담한다. 2000년 이후로 BKM은 이 재단을 2천6백만 마르크로 지원하는데 그 중 1,450만 마르크는 인적・물적 비용에, 1,150만 마르크는 건설조치에 지원된다.

2000년 초에 이 재단은 새로이 구성되었고 업무영역이 확대되었다. 샬로텐부르크(Charlottenburg)와 글리에니케(Glienicke)의 정원들이 추가로 인수되었고 예를 들어 카푸트(Caputh)와 쾨니히스 부스터하우젠(Königs Wusterhausen)의 수리된 성들이 다시 오픈되었고 성 박물관이 박물관 전문적인 관리를 받았다(예를 들어 오라니엔부르크 성).

연방의회와 연방정부의 이전 이후로 이미 1998년 포츠담에 미국 대통령 빌 클린턴의 공식방문시에 보여진 것처럼, 연방은 베를린과 그 주변의 성과 정원에 대해 엄청난 규모의 추가적인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연방은 건물의 유지와 건물 수리를 위한, 이 재단을 위한 기금을 증대시킬 준비가 되어있었다. 1999년에 2,140만 마르크의 연방자금이 지원되었다면 2000년부터는 중기적 재정계획의 범위 내에서 2,600만 마르크가 지속적으로 지원된다.

바이마르 클래식 재단은 1991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는 신연방주의

국제적인 중요성을 가진 기관에 속한다. 1999년에 박물관, 기념관, 성, 정원, 자료관 및 도서관, 특히 독일 고전주의 문학에 관한 도서관들로서 전국가적으로 중요한 이 재단은 특히 괴테 탄생 250 주년을 위한 성대한 행사에 초점을 맞추었고 1999년 문화도시의 해에 결정적인 공헌을 하였다.

이제 안나 아말리아 공작부인 기념 도서관의 수리와 확장을 눈앞에 두고 있다. 여기서는 바이마르 시의 중심에 있는 문화재 보존 종합건물의 개조와 지하서가의 개조와 도서관의 역사적인 중심건물의 보수가 핵심 사항이다. 연방은 이를 위해서 필요한 자금의 50%를 준다. 전체규모를 위한 비용은 약 5천만 마르크로 추산된다.

그외에도, 예술가 에른스트 바를라흐의 필체와 그래픽을 적절한 형태로 소개할 수 있기 위해서, 귀스트로의 에른스트 바를라하 재단(Enst-Barlach-Stiftung)의 스튜디오 건설을 위한 자금을 지급하려고 의도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바드 프랑켄하우젠의 파노라마 박물관의 건축 현대화 작업도 연방의 원조로 계속된다.

“동독 문화-등대계획 (Kultur-Leuchttürme Ost)”을 위한 연방차원의 참여의 효과는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수년간의 퇴락 이후에 할레의 프랑켄 재단은 인상깊을 정도로 다시 부활했다. 이 재단의 문화부문의 수리는 많이 완성되었다. 독일 해양박물관은 매년 600,000명 이상의 방문자를 가진 북독일 최대의 인기 있는 박물관으로서의 명성을 인상깊게 증명하였다. 새로운 매력으로서 2001년에서 2002년까지 유럽전역에 유일무이한 거북이연못(Schildkrötenbecken)의 건립이 예정되어 있다. 데사우-뵈를리츠의 문화재단의 성과 정원 건물, 그리고 바드 무스카우의 퓌르스트 퓍클러 공원(Fürst-Pückler-Park)은 유네스코의 “세계의 문화유산” 리스트에 등록이 시도되고 있다.

1999년 10월 9일에 연방수상 슈뢰더는 구동독에서의 평화로운 혁명 10주년 기념일에 ‘라이프찌히 시대사 포럼(Zeitgeschichtliche Forum Leipzig)’을 오픈

했다. 이 전시 기록물 및 정보센터의 건립은 독일 연방의회와 연방상원의 독립적 연방주의 위원회(unabhängige Föderalismuskommission)의 이니셔티브에 의한 것이다. 계획 의도에 대한 준비와 조직적인 집행과 전시물 건설은 독일 연방공화국의 '역사의 집 재단(Stiftung Haus der Geschichte)'이 담당을 맡았다.

11.3. 스포츠, 황금빛 동부계획 (Goldener Plan Ost)

스포츠의 통합적인 힘은 스포츠에 의한 만남에서 계속 신연방주와 구연방주의 사람들을 더욱더 긴밀하게 연결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동독과 서독의 스포츠 조직 사이의 긴밀한 파트너쉽을 통해서 이러한 선의의 접촉이 계속 심화될 것이다.

11.3.1. 특별지원 프로그램 "황금빛 동부계획 (Goldener Plan Ost)"

연정의 합의에서 이미 공고된 특별지원 프로그램인 "황금빛 동부계획"은 1999년 1천 5백만 마르크의 연방자금으로 출발할 수 있었다. 전체투자규모가 약 7천 7백만 마르크인 69개의 프로젝트는 단지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만 마련된 지원방침의 기초 위에서 지원되었다. 이 조치에 있어서는 주로 새 스포츠 실내시설과 스포츠 경기장이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체조장과 기구장 및 위생시설 공간의 개조와 같은 작은 조치들도 이에 관련되어 있다.

특별지원 프로그램은 2000년도에도 계속된다. 이를 위해 연방정부예산에서 3년에 나누어서 4천 5백만 마르크가 더 지원되었다. 주의 보충자금과 함께 이를 통해서 신연방주에서의 스포츠 시설 인프라 구조의 현저한 향상이 가능해진다.

그 외에도 추가적으로 '동독 재건(Aufbau Ost)'을 위한 투자 지원법(IFG)으로부터 나온 연방의 원조가 지원되는데 이것은 스포츠를 위해 쓰여지는 한 이제 스포츠 시설의 수리에도 쓰여질 수 있다.

11.3.2. 베를린의 올림픽 경기장의 현대화와 라이프찌히의 중앙경기장의 개조

연방은 베를린 올림픽 경기장의 현대화와 라이프찌히의 중앙경기장의 개조를 위한 재정적 지원으로서 유일무이한, 엄청난 수준의 기여를 하고 있다. 독일 축구연맹의 더욱 성공적인 2006년 축구 월드컵 유치를 원조하기 위해 연방수상은 두 도시에 미리 지원을 약속했다.

라이프찌히의 중앙경기장의 개조를 위한 1억 마르크는 '동독 재건'을 위해 쓰인다. 현존하는 경기장 벽 내부에 45,000개의 지붕이 있는 관객석을 가진 초현대적인 축구경기장이 생기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 독일 체조 대회나 음악회 같은 큰 행사들을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다. 약 1억 6천만 마르크가 경기장을 축구 월드컵에 맞게 개조하는데 들 것이다. 독일 축구 연맹 설립 100주년의 틀 안에서 연방수상 슈뢰더에 의해 2000년 1월 초석이 놓여진 후에 건축 착수가 연말로 예정되어 있다.

2006년에 최초로 축구 월드컵이 통일 독일에서 개최될 것이다. 여기에는 물론 월드컵 경기가 동독에서도 열리게 된다는 사실도 포함된다. 그러므로 베를린과 라이프찌히는 독일 축구연맹에 의해 "조정된다". 연방은 베를린 올림픽 경기장의 개조를 위해서도 3억 8천 3백만 마르크를 지원할 것이다.

11.3.3. 스포츠학 관련 연구소

하나의 공통된 담당연합 하에 통합된 연구소인 라이프찌히의 '응용 훈련학 연구소(Institut für Angewandte Trainingswissenschaften; IAT)'와 베를린의 '스포츠기구의 연구와 개발(Forschung und Entwicklung von Sportsgeräten; FES)'을 위한 연구소는 스포츠학문적인 관리시스템에 있어서의 자기의 위치를 계속적으로 굳혔다. 연방은 이러한 연구소들의 엄청난 재정적 지원을 부담할 뿐만 아니라 막대한 재정적인 자금으로 응용훈련학 연구소(IAT)에 의해 사용된 건물

의 수리와 그 동안 완료된, 스포츠기구의 연구와 개발(FES)의 현장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에 참여하고 있다.

제3장 다른 각도에서의 주제와 부록

1. 신연방주에 대한 고용, 교육, 경쟁력을 위한 연대의 결의

결의 I : 동부 독일 생산품과 용역의 지역외 매출의 지원 (AG Aufbau Ost)

I.

동부독일의 생산품과 용역의 매출의 증가와 증진은 신연방주의 고용증가와 안정 및 기업의 발전에 대한 중요 조건이다. 기업들은 지난 몇 년간 이러한 일들을 과제로 설정하였었다. 이러한 일들을 지원하고 측면에서 도움을 주는 것이 연방정부와 신연방주 정부 정책의 주요한 부분이다.

많은 동부독일의 기업들은 이러한 과제를 그 동안 달성해왔으며, 스스로 지역외의 시장에 진출하였다. 지난 몇 년간 많은 수출증가를 달성하였다. 수출비율이 1994년의 12%에서 대략 17%로 증가하였다.

다른 기업들은 - 특히 많은 새로이 신설된 기업과 작은 기업들은 - 이제 점차 자신들의 지역외 매출을 늘이고 있다. 또한 국제 시장에의 진출도 점차 중요해 지고 있다. 그러나 지역외 시장과 해외시장에 대하여 이들은 대부분 노우하우도 재정적인 힘도 부족하다. 또한 경제전반적으로 동부독일의 경제계의 수출의 강화는 특히 중요하다. 베를린을 제외하고 전독일의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8년에 3.7%에 불과했다(베를린을 포함하면 약 6% 정도이다).

그래서 연방정부는 신연방주의 기업들에 대하여 매출과 수출지원을 위한 특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신뢰성있게 추진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 밖에도 공적인 수단을 통한 매출증가를 위한 측면지원의 중요한 요소는 신연방주 정부의

주도적인 노력이다. 많은 적극적인 행위를 통하여 그들은 그 지역 기업들의 밀도 있는 노력을 지원한다.

두 번째 중요한 동부독일 경제의 지역외 매출지원의 지주는 경제계와 사업자단체의 노력들이다. 1999년 말까지 '독일을 위한 경제적 선도자(wir -Wirtschaftsinitiative für Deutschland ev.)'에 의하여 조직된 행위들(구매노력과 수출노력)이 매우 중요했다. 서독의 유통계에서 신연방주에서의 구매를 1995년과 1998년 말 사이에 두배로 늘이겠다는 약속과 산업계에서 신연방주에서의 구매를 2000년 까지 50% 증가시키겠다는 약속이 큰 기여를 하였다.

II.

미래에 문제가 되는 것은 매출지원의 두 중요한 지주(공적인 기관에 의한 지원과 경제계의 주도적 노력)를 미래의 요구에 맞추어 지속하고, 더 목표에 적합하게 강화하는 것이다. 동부 재건의 작업팀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한다:

a) 공공 기관의 활동

- 연방정부의 프로그램과 계획에 의한 시작개척의 완화
  여기에 속하는 것은:
  - 연방정부의 매출지원프로그램의 지속,
  - 대외경제적 지원조치에서 동독 기업에 대한 우대,
  - 신연방주에 대한 연방의 지원프로그램에 시장개척조치를 포함시키는 것
  - 공공기관의 동독 기업에 유리한 공사발주 노력의 지속
  - 동독의 기업과 동독지역을 알리기 위한 고위 공직자의 여행이용
  - 동독지역에서의 국제적인 성격을 가진 행사의 개최 강화

- 신연방주 정부의 매출지원적인 노력의 지속. 이러한 노력은 개별적으로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작업에 대하여 재정적인 지원

을 한다:

- 시장진입 및 시장개척조치
- 내 외국에서의 상품전람회에의 참가
- 교육과 재교육조치
- 전자 매체를 이용한 매출지원
- 외국소재 상공회의소와의 협력을 통한 회사풀제 및 협력네트워크
- 외국에서의 조인트벤쳐

신연방주는 내국 상품전람회에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가능성을 검토한다.

· 연방 및 주 정부의 지원프로그램에의 알기쉬운 구조

b) 경제계의 활동

- 동독 기업들의 수출과 지역외 매출의 지원을 위한 경제계의 실무에 입각한 노력의 지속(기업의 수출협력 및 구매회의의 지원, 서독의 대기업들이 신연방주에서 높은 수준으로 계속 구매해 주도록 요청하는 단체들의 호소),
- 서독의 대기업의 동독담당자들의 그룹이 미래에 매출과 일반적인 경제정책적인 문제에 관하여 자문단으로 역할을 하는 것,
- 분야별 그리고 분야를 초월한 대화 및 내외국 기업과의 접촉시도의 주선
- 동독 기업의 시장개척, 특히 동유럽과 남동유럽 시장개척을 위한 독일 경제계의 협력사무소의 활동의 지속 및 이러한 목적에서 베를린의 벡바이저(Wegweiser) 유한회사와의 협력,
- 외국시장에의 매출지원을 위한 대외경제회의와 그 밖의 행사 그리고 외국소재 상공회의소와 함께 지역적인 상공회의소의 조치
- 외국소재 독일 상공회의소와 협력으로 연방경제부의 판매지원프로그램의 범위에서 공급자사이의 협력
- 동독 기업들의 대외파견단에의 집중적인 참가,

- 특히 개별적인 상담 및 세미나와 워크숍에서의 지원가능성과 전문 상품전시회에 대한 동독의 경제단체의 지역적 하부조직을 통한 동독기업의 상담과 정보제공,
- 수출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특별한 상품의 제공의 평가를 위해 동독 경제계를 위한 수출장려상.

c) 공동 진전

모든 참가자들은 공동 회의에서 동독 기업들의 수출과 지역외 매출의 발전이라는 테마로 2000년 초에 자신들의 영역에서의 경험, 발전 그리고 미래의 중점에 대하여 보고할 것이다.

결의 II : 신연방주에서의 혁신적인 잠재력의 향상을 위한 연구와 개발의 기여 (AG Aufbau Ost)

상황분석 : 신연방주의 혁신기초는 아직 얇다.

혁신능력과 내일의 시장에 대한 방향이 동독 경제에 대해 경쟁을 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결정적인 전제조건이다. 이는 잘 숙련된 인력을 가진 고임금 국가의 부분인 지역에 대하여서도 특별한 방식으로 적용된다.

신연방주에서의 구조의 변화는 처음에는 연구 개발 잠재력의 큰 감축과 결합되어 있었다. 최근의 명백한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오늘도 만족스럽지 않다.

- 경제계에서 연구인력의 존재는 1989년 이래로 크게 줄어들었다. 1995년부터 비로소 연구인력은 다시 천천히 늘어나기 시작하였다(1998년 말에 15,000명에서 18,700명으로, 베를린 연구대리인(유한회사의 통계). 우선 감소는 이전

에 주도적인 대기업에서 시작되었는데 반하여, 증가는 작고 젊은 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동독 경제에서 연구개발비용이 다시 증가하였는데, 1997년 16억 마르크에서 1998년 22억 마르크로 증가하였다.

- 완전히 새로운, 서독과는 다른 연구개발 구조가 생겨났다. 연구개발 종사자들은 대부분 소규모의 젊은 기업에서 일하고 있다. 100명 이하의 종업원을 가진 기업 중 86%가 연구개발을 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연구개발인력의 60%가 일하고 있다.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의 과반수(56.4%)가 5년 내지 8년 된 기업이며, 단지 5%가 8년 이상된 기업들이다(구연방주에서는 72%가 9년 이상된 기업이다). 신연방주에서는 내부적 연구개발 비용의 단지 35%(서독에서는 85%)를 대기업에서 부담하고 있다.

- 연구개발 비용에 공공기관의 참여도가 30%로 서독의 15%보다 훨씬 높고, 대부분 예산에 의해 재정적으로 지원되는 외부 산업연구의 비중도 크다.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전독일의 연구개발 중 - 재정적 연구개발 비용으로 비추어 보면 - 신연방주에서 약 5%가 이루어지고 있다(연구인력 대비로는 대충 7%이다).

- 연구가 집중적인 분야는 산업생산의 약 1/3로 구연방지역의 50%와 비교할 때 아주 적은 비중을 가지고 있다. 생산연관성이 깊은 용역 분야에서도 사정은 비슷하다.

- 특허등록의 숫자는 직업인의 숫자와 관련하여 보면 서독보다 많지 못하다. 비율은 1994년 이래로 일정하게 전체독일의 특허등록의 약 9%에 머물러 있다. 물론 등록은 연구개발 인력 숫자에 비하면 비슷해지고, 특허 등록의 증가는 전체독일의 활동보다는 더 우위에 있다.

- 창업은 연구개발이 집중된 산업분야에서도 처음 몇 년의 높은 수준 이후에는 다시 감소하고 있다. 기술집약적인 서비스 분야에서 창업열기는 서독의

경우와 비슷하게 높다.

이러한 동독 경제의 구조적 문제는 국가적인 계획경제에서 사회적인 시장경제로의 중대한 전환을 고려할 때 놀라운 것은 아니다. 이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다. 새로운 시장에서는 안정된 경쟁자들과 싸워야 하며, 재정적인 유보도 서서히 형성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동독 경제의 약한 연구개발집중도는 혁신적인 중대형 기업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결과이다. 다른 독일과 다른 나라에서 점차 혁신열기와 기술적 진전의 모터 역할을 하는 혁신네트워크의 결정점이 그와 함께 지역에서 부족하다. 대학으로부터의 공적인 지원구조는 그 동안 잘 발전되었으나, 여기에서도 지역적으로 경제계와의 연결이 아직 너무 약하다. 특히 대학교와 대학 밖의 연구기관은 아직 충분한 정도의 산업적인 자금을 받는데 문제가 있다.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점이외에 신연방주에 혁신열기가 낮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며, 이는 종종 경영분야에서 찾을 수 있다(예를 들면 기업과 연구자들은 시장과 고객의 희망을 등한시하고 기술지향적이거나 기업의 독립성을 잃을까 염려하여 외부자본의 참여에 소극적이기도 하다).

그리고 인프라구조(특히 교통인프라)에서의 아직 잔재하고 있는 과제들이 동독에 있는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새로운 대기업의 이주를 어렵게 하고 있다.

다른 조치를 위한 참여자의 행동영역

국가적인 연구 및 혁신지원은 지금까지 기업내의 연구개발 잠재력과 기업외적인 연구기관의 안정화와 현대화를 위한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대학교와 다른 공적 연구기관의 건설과 재정적 지원; 기업과 기술이전설비의 건설을 위한 동부 연구개발의 특별프로그램). 신연방주에서 연구개발의 국가적인 지원은 물론 그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서독에 비하여 연구감소의 방지는 단지 민간 투자자의 참여에 의하여 이룩될 수 있다. 지난 몇 년간 '독일을 위한 경제주도권(wir, Wirtschaftsinitiaitve für Deutschland e.V.)'이란 단체가 노우하우의 이전의 실무에 근접한 조치 및 투자 및 연구지역으로서 신연방주를 위한 집중적인 홍보작업을 함으로써 언급할 만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잔존하는 문제를 고려하여 다른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모든 참여자는 그들의 책임영역에서 신연방주에서의 혁신기초를 넓히고, 더 많은 열기를 혁신과정에 불어넣기 위해 계속 기여 하여야 한다. 목표는 동독기업들이 자력으로 세계시장에서 독립하여 존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특히 주로 작고, 젊은 기업들에게 장기적으로 계속되어야 하는 과정이다.

동독건설 작업팀은 그리하여 다음의 조치를 지원한다:

1) 공공기관의 활동

경제적인 환경조건의 혁신우호적인 형성은 동독의 다른 발전과정에 대한 핵심적인 의미를 가진다. 법인세와 소득세율의(25%로) 인하 및 임금외 비용의 절감 등과 같이 연방정부에 의하여 규정된 기업의 부담절감은 동독의 혁신능력의 강화를 위한 기회를 의미한다. 이러한 정책은 연구와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을 통하여 보충된다. 연방정부에 의하여 마련된 연구, 교육, 과학분야의 투자를 위한 매년 10억 마르크 자금의 증액으로 신연방주는 많은 혜택을 입을 것이다.

다른 조치들 :

- 연방의 동독 연구개발 특별프로그램은 중장기적으로 높은 수준의 계속적인 개발에 발맞추어 지속될 것이다.

- '지역적인 경제구조의 개선'이란 공통과제 프로그램의 자금을 통한 지원

은 신연방주의 연구개발을 위한 주변여건을 개선할 것이다. 공통과제 보조금은 기본적으로(예를 들면 기술, 연구집약적인 기업의 연구개발부문의 투자) 산업계의 기업내적인 투자의도를 위하여(저렴한 공간의 제공, 공동서비스 그리고 기술, 연구, 혁신 및 창업센터), 경제에 연관된 인프라구조에 대한 투자를 위하여 투입된다. 그 밖에도 공동과제 자금은 경제계의 혁신력을 강화하기 위한 주정부의 전문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서도 투입된다(예를 들면 응용연구 및 개발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인력개발).

- 전체 독일의 연구개발지원프로그램도 중류층 우호적으로 형성되어 동독의 KMU에게 접근을 완화하고 있다(특히 집중과 강화된 투명성). 전체적으로 존재하고 있거나 혹은 새로운 연구개발 지원요소들은 변화하는 조건에 맞추어 변화하고 규칙적으로 스스로 자신들의 효율성을 점검한다.

- 동독 주들은 연구와 기업에서의 기술적인 혁신을 위한 여건을 계속하여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특히 작은 기업들은 연구에 노력하도록 독려받으며, 상호간의 협력과 지역적으로 재정지원을 받는 연구인프라구조가 강화된다. 동독 주의 담당 부서는 연구 및 개발 계획의 지원을 미래에 중요한 분야에서 지속한다.

대학교와 대학외의 연구기관들은 미래에도 적당한 기본설비를 통하여 제3자의 자금을 유치하고, 학계와 경제계 사이의 동반자관계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효율적인 이전구조 및 창업교육, 대학교에 연구센터, 프라우엔호퍼연구소와 다른 연구소들이 연구개발의 인프라구조의 의도적인 확장을 통하여 급부 및 경쟁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될 것이다.

연구 유한회사들은 기술시장에서 성공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혁신보조원의 지원이 미래에도 특별한 불이익, 특히 소규모 기업의 불이익을 보상하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또한 기술이전을 지원한다. 기술기업의 설립자는 예를 들면 기술센터 혹은 경영 개발 센터를 통하여 복합적인 후견

을 받는다. 위에 언급되 조치 이외에, 발아자본회사를 통하는 경우처럼, 혁신의 초기과정 재정지원의 개선이 기업의 혁신능력 증대를 위한 주요 도구로서 보여진다. 그 밖에도 더 큰 기술기업의 이주에 대한 노력이 특히 주목된다. 동독 주들은 그들의 기술지원을 2006년까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 다가오는 2000년에서부터 2006년까지 지원시기에 유럽공동체의 구조기금의 자금을 연구개발 영역에 강하게 투입될 것이다. 여기에 속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 연구 개발 영역에서 인프라 구조
  - 대학
  - 기술이전
  - 근대적인 정보전산망의 구축과 이용

- 기업 사이 그리고 기업과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화는 일련의 새로 형성된 조치를 통하여 지역의 혁신적 잠재력을 작동시키고, 기업의 이주를 위한 혁신적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강화되어 지원된다.

  - 연방정부는 신연방주에서 지역적인 노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InnoRegio (지역을 위한 혁신적 박동, Innovative Impulse für die Region)”의 경연을 시작하였다. 그것은 연방의 새로운 지원정책에 대한 본보기적인 기능을 가진다. 주도적 노력의 목표는 경제적 가치창조, 경쟁력, 그리고 노동시장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스스로 조직하는 지역의 혁신잠재력과 혁신역량을 강하게 개척하려는 것이다. 그 경우에 교육 및 연구기관, 경제계, 행정의 존재하는 잠재력을 결합시키는 것이 문제이다. 경쟁에는 444개의 지역적 선도그룹이 참여하였다.

- 신연방주에 대한 특별한 의미를 또한 전독일의 조치가 가진다. (신연방주 기업들의 예상 참여율이 약 40%로 기대되는) 새로 형성된 연구협력지원 “프로이노(PRO INNO)” 및 기업과 연구기관 사이의 협력을 장려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 “이노네트(InnoNet)”는 신연방주에서 네트워크의 형성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게 된다.

- 기술지향적인 분야의 창업은 연방과 주 정부에 의하여 지원된다:

· 특히 창업의 초기에 참가자본에 대한 조건들이 계속 개선된다. 전체 독일에 대하여 BTU 프로그램이 지속되었다. 특별히 신연방주에 대하여 1999년 말까지 진행된 FOTOUR 프로그램을 위하여 예산정책적인 가능성의 범위 내에서 연결규정이 검토되었다.

· 자기자본시장의 행사와 경영엔젤 시장의 설립은 설립자를 조언자와 민간자본을 결합시킨다. 연방정부는 이러한 노력을 반트(BAND)라는 주도적 노력의 범위 내에서 계속 지원한다. 그들은 지역 자본시장이 새로운 시장의 문턱아래에서 자본시장의 일부를 제공하는 것을 환영한다.

· 주들은 동독 주들의 대학이 적절한 방법으로 교육에서 기업의 실무를 도입하도록 영향을 주고 있다. 이는 예를 들면 교육규정과 준비시의 실제적인 도움을 통하여 독자적으로 달성된다(제3의 자금지원, 특별한 강의와 코스, 실습, 일자리소개, 기업설명회, 동문과의 만남 등). 여기에 대학은 경제계의 조직과 개별기업들과 함께 우선적으로 지역적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연방정부와 DtA는 창업자를 위한 강좌를 설치하는 데 도움을 줌으로써 이를 지원한다. 동독에서 3개 지역(드레스덴, 막데부르크, 베를린의 훔볼트 대학)에서 이를 위한 준비가 이미 진행 중이다.

· 엑시스트(EXIST - Existgründer aus Hochschule)란 대학에서의 창업이란 선도작업의 5개 수상지역 중 2개는 동독에 있다. 드레스덴은 드레스덴 엑시스트라는 이니시어티브로 일메나우(Ilmenau), 예나(Jena), 쉬말칼덴(Schmalkalden)은 겥업(GetUp)이라는 것으로 수상하였다. 목표는 지역적으로 존재하는 창업지원을 위한 개별적인 사항을, 포괄적인 공적·사적인 동반자관계로 안정

화시키고 목표에 맞도록 잠재력을 동원하기 위하여, 지역적인 네트워크로 함께 모으는 것이었다. 연방정부는 그 프로그램을 매우 재정적으로 강화하였고, 그 범위 내에서 다른 혁신적인 지원조치를 개발하게 될 것이다.

· 네 번째 자금시장지원법은 주식시장을 위한 외부여건을 계속하여 개선하고 그럼으로써 주식시장에서 지분의 매각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 것이다.

2) 경제계의 활동

독일 경제는 신연방주에 연구환경과 기업의 혁신잠재력을 건설하는 것을 지원한다. 목표는 기업 간에 그리고 연구기관과의 강화된 협력을 통하여 전독일의 잠재력을 더욱 집중시키는 데 있다.

조치들 :

- 지향점이 있는 정보들을 통하여 - 또한 인터넷과 다른 미디어를 통하여 -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대기업이 신연방주의 지역적인 그리고 개별기업적인 개혁잠재력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경제계의 이니시어티브 'wir'의 지금까지의 행동에 연계되어 서독기업과의 혁신협업이 강화되는데,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 지역선전을 통하여
  · 지역적인 주역들(특히 상공회의소와 다른 경제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하여
  · 노우하우 이전을 위한 행사을 통하여 (전문가의 제공, 후원자의 선전 등)
  · 변화된 환경에 적응된 간행물 "신연방주의 혁신잠재력"을 통하여

- 경제단체들은 그들의 회원들에게 연구잠재력의 확장과 이주에 대하여 또한 동독의 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줄 것을 요청한다.

- 경제단체들은 기업의 혁신능력을 경영과 직원교육의 영역에서 보충적인 조

치를 통해 강화하는 것을 그 과제로 본다. 그 경우 그들은 개념적으로 노동조합과 협력한다.

- 상공회의소의 측면에서 기업의 혁신노력은 지원받는다. 그 경우 서독기업가의 동독기업에로 주선하는 것이 자매결연모델의 범위에서 지속되고, "기술-코치센터"라는 새로운 모델이 추가되었다. 새로 생겨난, 혁신지향의 풀제나 네트워크 형성의 발단들의 경우 상공회의소는 조절자의 역할을 담당한다.

공동활동

- 참여자들은 혁신과 기술적인 진전의 의미를 경쟁력과 새로운 일자리를 위하여 더욱 강하게 기업과 일반인의 의식속에 밀어 넣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본다. 목표는 신연방주를 내외국에 현대적이고 유능하며 의욕적인 경제중심지로 표현하는 데 있다. 그들은 그리하여 적정한 방법으로 예를 들면 수상을 칭찬하거나, 단체잡지에 홍보하거나, 언론과 관련하여 가장좋은 실천의 예로 칭찬되고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모방하도록 권유된다. 이 경우에 가장좋은 실천은 넓은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동독의 KMU의 혁신경영, 동독에서의 협력 혹은 동서독의 협력, 서독 혹은 외국기업의 동독에서의 연구개발 등).

작업그룹의 참여자는 이러한 범위에서 내년 전반기에 공동으로 혹은 독자적으로 신연방주에서 지역적인 혁신토론회를 준비하고 실행하도록 합의한다. 이러한 토론회는 특히 지역적이고 기업적인 신연방주에서의 혁신실무의 좋은 모범사례를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한다.

- 회의소와 단체는 상담을 통하여 특히 동독 기업들이 중부와 동부 유럽의 유럽공동체 가입국의 역동적인 시장에 중장기적으로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의한다. 신연방주와 가입국의 KMU 사이의 연구협력은 유럽공동체의 5번째 연구유관프로그램에서 뿐만 아니

라, 연방 프로그램 “PROINNO”에서 지원받는다. 연방정부는 경제계의 단체, 유럽공동체 그리고 주정부와 함께 존재하는 협력과 지원가능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이다. 독일 KMU에 대한 많은 지원이 그 경우 중부 및 동부 유럽에 10개의 연구협력 사무소를 제공하였다. 그 외에 “기술 부문의 경영자(Technologie-Area-Manager)”가 아시아와 남미 시장에의 진출시에 도와줄 것이다.

결의 III : 지원이 필요한 실업자의 사회에의 편입과 1차 노동시장에서의 자격취득노력 (AG Aufbau Ost)

1)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의 투입은 포기할 수 없다.

· 일자리사정의 지속적인 개선과 신연방주에서의 실업률의 감소는 단지 경제적인 활동을 통하여 그리고 보통 노동시장의 근로가능성의 성장을 통하여 달성될 수 있다.

· 현재의 일자리사정에서 높은 수준의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의 추진은 포기할 수 없다. 특히 장기실업자, 노령실업자, 미숙련공들에게는 노동정책적인 도움없이는 일자리를 얻을 가능성이 낮다.

· 노동정책의 추진에서 지속성, 목표정확성, 그리고 효율에 큰 비중을 두어야 한다.

2) 노동시장정책은 특별한 목표그룹을 통상적인 노동시장에 적응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 노동정책적인 활동은 - 항상 가능하다면 - 특별한 목표그룹이 통상적인 노동시장에 적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노동시장정책의 과제는 실업자인 남자와 여자를 통상의 일자리에로 교육시키고, 일자리를 빨리

주선하고, 노동시장정책의 특별한 목표그룹이 다시 일자리를 잡을 때 지원하는 것이다. 노동시장정책은 피할 수 없는 측면공격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현재와 기대되는 요구에 상응하는 미래지행적인 전문화분야에서 목표지향적 재교육코스, 기업내적인 훈련조치들, 그리고 특별 목표그룹의 취업을 위한 임금보조는 신연방주에서는 실업자의 일자리 개성을 위한 그리고 구조적 변화에 대한 노동자들의 적응을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부인들의 특별한 노동시장문제는 고려되어야 한다.

· 통상 노동시장에서 청소년들의 취직(두번째 어려움의 극복)은 측면의 노동시장정책적인 활동에 의하여 개선될 수 있다. 여기에 대한 필요한 전제조건은 통상의 노동시장에서 일자리가 증가하는 것이며, 기업외에서 학교에서 교육받는 것보다 훨씬 나은 취직가능성을 보장하는 이중 시스템에서의 교육이다.

3) 전문가 부족의 위험은 이중교육과 직업적인 재교육을 통하여 막아야 한다.

· 경제구조의 다른 발전과 함께 그리고 미래의 학생수의 감소에서 신연방주는 전문가 부족현상을 배제할 수 없다. 교육동맹의 형태인 경우도 있는, 강화된 미래에 대한 기업내부의 직업교육, 직업교육자의 경제적인 변화에 대한 빠른 적응, 그리고 직업적 재교육의 국민경제의 현재와 미래의 수요에 대한 강한 지향성은 필요한 예방책이다. 청소년과 성인들에 대한 상담과 직업적인 재교육이 필요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기업은 그들이 처한 전문가수요을 미리 노동관청에 알려야 한다. 상공회의소와 수공업단체들은 현재와 미래의 전문인력 수요를 예측하기 위하여 기여하여야 하고, 노동청과 이에 대하여 의견을 조정하여야 한다.

· 기업의 교육기회제공의 확장의 문제, 공적인 보충조치의 보다 나은 조정, 그리고 전문가후계자들의 보장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 “교육과 재교육

(Aus- und Weiterbildung)" 작업팀의 결과들이 동부 작업그룹의 일에 도입되었다.

4) 노동시장정책은 실업자에 의한 창업을 계속 지원하여야 한다.

· 신연방주는 새로운 일자리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창업을 필요로 한다. 실업에서 창업 또한 성공적이며 안정적이라는 것을 입증한다. 독자적으로 창업하는 실업자에 대한 노동시장정책적인 지원은 지난 몇 년간 개선되었다. 지원의 요청이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새로이 창업된 기업에 새로운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을 지원하는 새로운 도구가 보장되었다. 이러한 도구들은 노동시장정책에서 큰 비중을 가져야만 한다.

· 필요한 것은 그러한 창업자금에의 접근이, 또한 실업자가 창업하는 경우에도 쉬워져야 한다. 이러한 창업은 우선 작은 규모의 자금 대출이 필요하다.

5) 2차 노동시장의 조치들은 실업율이 높은 단계에서 계속 필요하다. 통상 노동시장에 대한 경합은 회피되어야 한다.

· 높은 실업률의 단계에서 노동시장정책적인 조치는 2차 노동시장에서도 계속 필요하다. 특히 장기실업자와 노령실업자들에 대하여 2차 노동시장은 유일한 취업가능성일 수 있다. 이 조치들은 지속적으로 효율과 목표정확성의 필요성에 맞추어야 한다.

· 통상 노동시장과의 경합상황은 회피되어야 한다. 가능하면 발주는 경제기업에 주어져야 한다.

6) 노동시장정책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새로운 길

· 실업수당이나 사회부조수당을 받는 사람들이나 미숙련공들의 취직을 위해 새로운 방법이 시험되어야 한다. 여기에 모델프로젝트가 시행되어야 하는데, 신연방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 유럽공동체의 구조기금의 자금은 신연방주에 통상적인 노동시장에서의 취업가능성을 향상시키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다른 구조정책적인 그리고 노동시장정책적인 조치들 그리고 재정적인 자금과 효율적인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 지역의 노동시장에의 참여자들은, 노동시장정책적인 조치의 형성과 실행에 집중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모든 관계자의 입장 조정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만 노동시장정책적인 목표의 달성이 가능하다.

· 일자리를 위한 연대에서 '동독 건설' 작업팀은 2000년에 예정된 노동지원 개혁에서 노동시장정책의 일자리유효성이 계속 강화될 것을 기대한다. 연방노동부는 이러한 개혁의 준비를 위하여 신연방주의 노동부에서 온 전문가와 그들의 경험을 개혁에 반영하기 위해서 심도있는 대화를 한다.

결의 IV : 신연방주의 교육기회의 안정과 확대 (AG Aus- und Weiterbildung)

연대파트너들은 특히 기업내의 교육생자리의 수요의 확대 및 재교육과 공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되는 교육생자리 프로그램의 구조전환에서 조치의 필요성을 보고 있다. 이에 포함되는 결의에서 다음과 같은 것들이 대부분 일치하는 지향성과 전환활동으로서 유지되어야 한다:

- 교육능력을 만들고 인정하기 위한 상공회의소를 통한 적극적 정보의 강화,

개인적인 인사, 상담, 그리고 중소기업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지원; 이러한 관련성에서 경제단체와 직업학교는 기여하여야 한다;

- 교육자성격의 인정을 위한 모든 법적으로 제공된 가능성의 이용. 그 외에도 만약 교육자성격이 다르게 인정될 수 있고 연이어 실제로 교육받을 수 있다면 교육자성격의 취득을 위한 준비코스는 창업자와 중소기업의 경우 지원되어야 한다;

- "외부 교육경영"을 위한 조정된 지역적 서비스제공의 의미에서 교육의 시작과 실행에서의 도움을 위한 경제단체, 상공회의소, 노동관청의 조치의 지역적 연대와 지속성.

- 단체의 경영비용의 인수를 통하여 혹은 외부 연수경영을 위한 지역적 서비스제공을 통하여 단체경영의 지원시에 기업내 연수계약과 더불어 단체 교육의 혁신적 모델의 성취;

- 특히 사무실 직업에서, 공공 서비스의 고용주의 교육급부를 자기들이 필요한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 이들은 또한 공공서비스 이외에 취업기회를 열어준다.

- 새로운 활동영역에 대한 현대화되고 새로운 교육직업의 이행시에 신연방주의 특별한 고려;

- 연방, 주 프로그램의 미래의 적용, 주의 보충프로그램 그리고 청소년 실업을 감소시키기 위한 긴급프로그램에서 규정된 조치들과 관련된 연방과 주의 조정된 공동 지원구상의 발전;

- 기업에게 뿐만 아니라 청소년에게 지원경합과 기대의 방지라는 목적 및 지역적 노동시장의 수요와 함께, 1999년 6월 6일 연대파트너의 교육에 대한

합의에서 규정된 지역적인 교육생자리에 관한 회의의 구성요소로서 조달이 가능한 지원자금과 지원방법을 조화되게 목표에 맞게 투입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주정부, 코뮨(Kommunen, 기초지방자치단체), 상공회의소, 노동관청, 경제단체 그리고 노동조합 사이의 지역적인 협상;

- 발생되지는 않았거나 혹은 진행중인, 연방교육과학부에 의한 연방과 주의 교육생자리마련을 위한 특별프로그램과 주에 의한 주의 특별프로그램의 신속하고 포괄적인 이전;

- 기업과 경제에 가까운 교육생자리 프로그램의 형성시에 “추가성”의 기준에 대한 더 강한 결합; 특히 지원프로그램에서 기업에 가까운 모델에 대한 비율의 제한을 통한 경우;

- 중복금지에 의한 경제계에서의 교육생자리의 1인당 보조금의 반환, 연방과 주 프로그램의 범위 내에서의 지원시에 제한적이고 엄격한 목표그룹의 제한 및 1인당 지원금의 단계적인 종결, 그리고 2002년까지 기업에서의 교육생자리 제공의 확대를 위한 제안된 간접적인 지원을 위한 자금의 수요적합한 전환.

연방교육과학부는 ‘교육 및 재교육’ 작업팀의 추천을 주와 연방 사이에 합의를 준비하는 연방과 주 작업팀의 토론에서 제기하였다. 경제단체, 노동조합, 주 그리고 연방노동청은 지역적인 참가자들에게 추천에 대하여 알리고 지역에서 전환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2. 연방주의위원회의 결정들과 그 실천

1992년 5월 27일의 독립된 연방주의 위원회의 결정의 실천

1992년 5월 27일의 독립된 연방주의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일련의 연방기관들이 신연방주로 옮아갔다. 여기에 속하는 조치로 1992년과 1994년에 외국 피난민의 인정을 위한 연방관청의 외청이 Eisenhüttenstadt, Jena, Kolm, Mühlhausen 그리고 Nostorf-Horst로 옮겨졌다. 기술적인 조력기관의 하부조직이 Chemnitz, Dresden, Erfurt, Frankfurt/Oder, Halle, Leipzig, Magdeburg, Potsdam, Stralsund 그리고 Schwerin에 설치되었다. 그 외에도 동독에 성장하는 자원의 전문대리점이 Gülzow에 Potsdam의 지부와 함께 새로이 설치되었다.

1997년에 연방최고법원의 제5 형사부가 대검찰청의 일부와 함께 Leipzig로 옮겨졌다. 1998년에 외청이 Potsdam에 검사원이 Magdeburg에 연방회계원과 연방국경수비청이 Chemnitz에 독일 특허 및 상표청의 지부가 Jena에 설치되었다.

최근에 다음과 같은 이전이 이루어 졌다:

1) 카셀(Kassel)에서 에어푸르트(Erfurt)로 연방노동법원의 이전

1994년 봄에 이미 Erfurt에 3명의 직원으로 건설팀이 투입되었고 Erfurt에 개별적인 합의부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연방소유의 토지 “Petersberg의 운동장” 위에 새로운 건물이 지어졌다. 1996년 9월 26일에 시공의 삽질을 시작하여 1999년 9월 30일에 건물이 양도되었다. Erfurt의 새로운 건물에서의 첫 회의는 1999년 11월 24일에 이루어졌다. 전체적으로 Erfurt에 180개의 일자리가 옮겨왔다.

2) 튀링엔(Thüringen)주에 연방직원보험청의 급부국의 건립

급부국의 과제는 연금을 계산하는 것과 피보험자의 구좌를 알려 주는 것이다. 1997년 1월 2일에 이미 Gera에 105명의 직원이 구좌고지를 시작하였다. 1999년 1월에 보험과 연금 영역의 과제가 Gera로 옮겨졌다. 현재 430명의 직원이 Gera에서 일하고 있다. 급부국은 단계적으로 계속 확장될 것이며, 2003년에는 완전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Gera의 새로운 건물에는 800개의 사무실이 있고 넓이는 35,000 평방미터이며 건축비로 1억 3천만 마르크의 자금이 투입되었다. 1998년 여름에 관청본부가 완성되었고, 1998년 8월 26일에 공식적으로 개소되었다.

새로운 부서를 위한 인력은 대체로 Gera와 주변에서 채용되었다. 첫 번째 행정감독후보자와 지역출신의 교육생들은 이미 교육을 마쳤다. 현재에는 계속해서 지역출신의 157명의 행정감독후보자와 124명의 교육생이 사회보험전문인력의 직업을 위하여 교육을 받고 있다.

3) 메컨부르크 포어폼메른(Meckenburg-Vorpommern)주에 연방직원보험청의 급부국의 건립

1997년 Stralsund에 210명의 직원이 보험구좌 고지업무를 시작하였다. 1999년에 보험과 연금 영역의 업무가 Stralsund로 옮겨왔다. 현재 약 820명의 직원이 Stralsund에서 일하고 있다. 급부국은 단계적으로 계속 확장될 것이며, 2003년에는 완전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Stralsund에 새로운 건물이 건립되었고, 2000년 6월 30일에 공식적으로 개소되었다.

급부국의 직원들은 대체로 Stralsund와 주변 출신이다. 이미 Stralsund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이외에도 현재 이 지역출신의 600명의 행정감독후보자와 교육생이 베를린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다른 교육생자리는 필요에 따라 마련될 것이다.

4) 베를린(Berlin)에서 튀링엔(Thüringen)주로 수로건설을 위한 연방청의 외청의 이전

Ilmenau에 공과대학 바로 옆에 새로운 건물이 지어졌다. 기술적인 이전은 1999년 10월 1일에 이루어졌다. 업무는 우선 55명의 직원으로 1999년 11월 15일부터 시작되었다. 단계적으로 전체적으로 대략 100명의 일자리가 Ilmenau로 옮

겨진다.

5) 함부르크(Hamburg)에서 로스토크(Rostock)로 선박 및 수로에 대한 연방청의 일부이전

Rostock으로 이전이 결정된 150명의 일자리를 위하여 얼마 전에 Neptun-Werft의 부지의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새로이 건설된 건물로의 이전은 2002년 9월로 예정되어 있다.

오는 몇 년 동안에도 계속된 연방관청의 신연방주로의 이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Brandburg/Havel에는 연방직원보험청의 새로운 서비스센터가 들어설 것이다. 드리고 농업과 임업에 대한 생물학적 연방청의 시설이 Potsdam-Wilhelmshort의 환경기술공원에 2004년에서 2005년 사이에 조성된다. 연방환경청의 업무의 Dessau로의 이전도 진행되고 있다. 2001년 말에 건물에 입주가 계획되어 있다. 이미 올해 말에 Magdeburg의 수로와 해운국을 위한 건물에 입주가 계획되어 있다. 그 외에도 이미 2003년으로 계획된 연방행정법원의 Leipzig로의 이전을 위한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독 일 통 일 백 서 (2000)

印　刷 : 2001. 2.
發　行 : 2001. 2.
發行處 : 統一部 統一政策室
政 策 企 劃 課
電　話 : 3703-2337
F A X : 739-0624
http : //www.unikorea.go.kr

<비매품>